



7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7 호

(루계 제 609 호)



차 례

금수산기슭에서	4
그날의 전승광장에서.....	5
세기의 목소리	6
우리는 강철전선에서 전투명령을 받았다	16
친필비는 서있다	16
시의 꽃다발	17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	18
녀인이 들려준 이야기.....	21
명언해설	24
전승의 《봄노래》	24
그리움의 바다.....	25
만민의 사랑속에 영원하시라	27
11 월 29 일	27
언제나 기쁨속에 맞으리라.....	28

눈보라 6 천리	29
총서작품창작을 계속 왕성하게 내밀도록 이끌어주시며	32
남기고싶은 한마디(외 1 편).....	34
우리 민족의 풍습을 귀중히 여기시여.....	35
안고가노라	36
나에게는 새날이 있다.....	36
양도어부	38
7 월의 하늘아래	52
가시는 전선길 따라	53
한목소리	53
군관신분증	54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67
금강산만물경(외 1 편)	68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69
동집게	79

금수산기슭에서

김명익

언제나 내 마음의 창가에
비껴오는
해쫄는 동녘-
금수산기슭

세월도 여기선 흐름 멈추고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 만고의 자욱자욱을
다 새겨안는듯

이 아침에도 예서 새벽길을 떠나시는
우리 수령님을 문득 뵈올듯
금시 나의 이름도 불러
다정히 찾아주실것만 같아...

그렇게
가신 길 오신 길
천리였던가
만리였던가

물새가 울던
시월의 강변
송화강가는
오, 멀어멀어

못잊을 그 오두막에서
첫 동지들과 포옹하시던
그 기슭에서부터였더냐
인민이 지어드린 이름으로
이 세기를 사시며
인민을 찾으신 기나긴 길
오늘은 금수산기슭에
이어졌나니

장장만리에
만나신 사람은
수수천만이어도
버리신이는
하나도 없구나!
정녕 우리 수령님 생애는
상봉만 있고
인민과의 작별은 없더라

여기 궁전에서 오늘도
끝없이 찾아오는 후손들을
끝없이 품어주시거니

그렇다
금수산기념궁전은
민족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작별이 없는 궁전
사람들 가슴에 해가 지지 않는
한없이 성스러운 우리의 조국!

인민을 그리도 사랑하신 수령님
해와 달이 다하도록
금수산의 궁전에서
인민들과 즐겨 만나시라고

아버이를 못잊어 따르는
이 나라 만백성이
그 7월에 울던 인민이
무궁한 4월의 봄을 안고
수령님을 늘 가까이 뵈오라고
위대한 그이
김정일동지 세워주신
금수산기념궁전!

하늘의 못별을 따내려오고
대양의 진주를 씻어올려다
천년세월을
다듬어세워 엮은들
아니되리
로동당세월의 이 궁전처럼은 못세워

말하라
금성거리 전동차여
굽이치는 외랑이여
눈부신 광장이여
설레이는 수림이여

언제나 만민의 하늘가에
그리움의 동녘
내 꿈결에도 안아보는 땅
금수산기슭아

여기 최고성지로
구름처럼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와서는
오 돌아서지 못하는곳
떠나지 못하는 궁전
진정 하늘땅을
가득히 채우며 솟아오른

인류력사 백만년의 봉우리
의리의 최고봉
사시절 아침노을 피어나는
태양의 집

영원한 영원한
상봉의 궁전이여라!

그날의 전승광장에서

정렬

승리자들의 우뢰성이
오늘도 저 하늘에 비껴가는가
그날의 전승광장에 들어서면
애절한 병사시절도 나를 이끌어가는
승엄한 발구름소리여

사열대 높은곳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위훈많은 군기들을 펴력이며
근위부대들이 나아가고
전쟁의 불먼지를 턴
땅크와 포차들이 지축을 흔들며
첫 전승절을 기념하던곳이여

파도치는 대오의 머리우에
해살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수령님 축복의 손길 높이 흔들어주실 때
내 얼마나 크나큰 감격에 눈굽을 적셨던가

아 수령님의 예지로운 그 손길은
강적 미제의 패전장을 짚으시며
놈들의 사등뼈를 꺾어놓은
승리의 붉은 화살을
작전도에 그으시던 그 손길이였다

화선천리 전사들을 찾아
필승의 신념과 용맹을 안겨주시던
불면불휴의 그 낮과 밤
우리 무력을 백승으로 이끌어가시던
위대한 령장의 그 손길이였다

포연서린 1211 고지 전호속에서
우리 수령님
한손에 쌍안경을 드시고
천리전장을 굽어보시며

탁월한 지략을 펼치시던 그날
꿈결에도 그림던
어버이품에 안겨 흐느끼던
어린 전사 나의 어깨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던 그 손길
내 어찌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열병대오의 위훈많은 포신에도
수령님 그 손길 없어진 자욱이 있고
하늘을 나는 은빛매의 날개에도
수령님 그 손길 어려있고
배고동소리 울리는 함선에도
수령님 그 손길 뜨겁게 새겨져있었나니

령장의 예지로운 손길아래선
병사들 누구나 승리자가 되고
인민의 힘은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한다는것을
멸적의 총대로
세기의 창공에 새긴 력사의 날이여

세계가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영광의 상상봉우에
조선의 존엄을 안아올리고
미제를 멸망의 내리막길에 처박은
우리는 자랑높은 승리자

그날의 전승광장에서
나는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하노라
오늘은 수령님과 꼭같이
천하무적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
손길 높이 드시여
무적강군의 앞길 가리키고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고

세기의 목소리

최창학

1

주제84(1995)년.

그날도 몬트리올비행장의 대합실은 손님들이 많았다. 캐나다가 각이한 민족, 각이한 인종이 사는 나라라는것은 이 대합실 하나만 보고도 알수 있었다. 언어와 피부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의자에 앉기도 하고 혹은 서서 억양이 같지 않은 큰소리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이런 혼잡속으로 두명의 조선사람이 들어왔다.

한사람은 고국방문차로 먼 여행길에 오르는 캐나다 교포신문의 오랜 톤설원인 독신 문형석이었다. 다른 한사람은 문형석을 배려주려고 비행장까지 같이 나온 리운사장이었다.

문형석이 적을 두고있는 신문사의 사장 리운은 그의 상급일뿐아니라 오랜지기였다. 문형석이 해방전에 경성제국대학 분과에 다닐 때 리운은 그의 3년선배였다. 벌써 그 시절부터 문형석은 서울출신의 이 선배를 각별히 존대하였고 정의감이 강한 그를 인간으로 존경하였다. 리운은 자기가 일찌기 6.25전에 남조선을 탈출한 이유에 대하여 누구에게 말한적이 없다. 주위에서는 다만 그 남다른 정의감이 눈꼴시것만 번창하는 남조선땅을 버리고 캐나다로 망명케 한것이라고 짐작으로 알고있을뿐이다.

대합실 한가운데 서서 리운사장은 자못 엄숙한 표정을 하고 전송인사를 하였다.

《문형, 류다른 이번 여행길을 아무쪼록 몸성히 다녀오기 바라오. 그리구 나는 50년만에 고국을 찾아가는 문형한테 한가지 특별주문을 하겠소.》

문형석은 문득 눈길을 들며 리운의 길쭉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원체 무표정형인 그의 얼굴만 보고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짚을수 없었다.

《문형, 알다싶이 사회의 흥망성쇠는 인간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귀착되는 문제가 아니겠소. 그런데 지금 지구의 한쪽에서는 인류를 파멸에로 몰아넣는 인간의 속물화과정이 촉진되고있소.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가 어디에 운명을 위탁하는가 하는것은 이 세계가 직면하고있는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수 없소. 문제를 이러한 기점에서 내다볼때 김일성주석이 이끄는 북조선은 이 세계의 전도를 락관을 가지고 내다볼수 있게 하는 희망의 등대였소. 확실히 김일성주석은 세상만민이 공인

하는 특출하고 탁월한 수령이었지.

그런데 한해전에 김일성주석이 뜻밖에 서거하였소. 그때부터 김일성주석이 없는 북조선이 이제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이 문제는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소. 물론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정통한 소식도 많이 듣고있소. 그러나 나는 고국에 직접 가서 제눈으로 보고 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싶소.》

문형석은 사장의 말끝이 이렇게 떨어지는것을 보고 그가 참말 여간치 않은 주문을 하고있음을 깨달았다. 사장이 주문하는 문제에는 이 동란하는 시대에 누구나 관심하는 인류의 그 운명문제가 비껴있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역에서 조용히 인생의 막을 닫고 있던 문형석이로써도 잠자던 녀에서 깨어나 꼭 알아보고싶은 문제였다.

시간이 되여 손님들이 개찰구로 나갈 때 리운사장은 문형석의 처와 딸문제도 상기시켰다.

《문형, 이번에 고국에 가면 처와 딸의 행방도 찾아봐야지.》

《그래야겠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여 만나보고 오면 얼마나 좋겠소.》

《웬걸 일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헤여져 50년이 나 되었는데.》

문형석은 기대를 가지면서도 자신없이 대답하였다.

비행기에 오르는 러객들중에는 일본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았다. 입언저리에 수염터가 까만 토이기사람이 타야 할 비행기를 잘못 알고 다른 데로 갔다가 달려오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여행용 구력에서 오토기가 튀어나왔다. 오토기는 구력에서 나오자바람 뚱그란 눈을 부릅뜨고 문형석을 향하여 오흑 서서 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길할 징조야, 오토기가 형석군만 바라보는군.》

리운사장은 껄껄 웃으면서 어서 비행기에 오르라고 손짓을 하였다. 대형러객기는 한동안 캐나다상공을 비행하였다. 시창으로는 지상의 곳곳에 있는 호수가 구름무늬처럼 내려다 보였다. 캐나다에는 호수가 5만개나 있다니 호수의 나라로 불리우는 핀란드나 스웨리예와 어금지금한 셈이다.

문형석은 오랜 시간 삼십여년을 정작해 살면서도 정들이지 못한 이역의 산천을 울적한 기분으로 부감하였다. 그에게는 이 땅의 자연이 눈에

익으면서도 생소하였다. 러객기는 록키산줄기를 넘어 어느덧 북태평양상공에 들어섰다. 해심이 6천미터나 된다는 북태평양은 새벽하늘처럼 검푸르게 보였다. 시작도 끝도 없어보이는 아득한 수평선과 어울려 그 경계선을 육안으로는 도저히 가려보기 어려웠다. 안개처럼 몽롱한 그 불가사의한 미지의 세계는 문형석이로 하여금 조용히 명상에 잠기게 하였다. 그는 의사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멀리로 흘러가버린 옛시절을 추억한 회포 속에 더듬었다. 문형석은 평양본토배기였다. 베리야스공장주인이던 그의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당시 조선에 하나밖에 없던 경성제국대학 문과에 입학시켰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문형석은 여러해전부터 심장병을 앓던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베리야스공장경영을 물려받고 장가를 들었다. 안해는 재산이 없는 목수의 딸이었으나 인물이 깨끗하고 교양도 있는 녀성이었다. 금술이 좋은 부부사이에는 인차 딸 봉숙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해에 나라가 해방되었다. 평양거리는 해방의 기쁨을 안고 설설 뚫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이 이역에 떠다니던 사람들이 배편으로, 기차편으로 련일 태줄을 묻은 조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형석은 남들처럼 기뻐할수만 없었다. 문형석은 해방되기전에 일본군후방보급장교로부터 3만켤레의 양말을 한달안에 짜달라는 긴급 주문을 받았다. 중학동창인 보급장교는 후한대가를 약속했다. 의로운 일을 못할바에는 폭리를 얻어 기업이라도 확장해 볼 심산으로 문형석은 주문을 접수하였다. 노동자들은 이 내막을 알고 파업을 일으켜 작업을 중지하였다. 악이 난 문형석은 경찰의 힘을 빌어 파업주동인물 십여명을 체포구금하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내몰아 보급장교가 요구하는 양말전량을 약속한 기일안에 짜주었다. 이 《공로》로 문형석은 일본천황의 표창을 받고 거액의 상금도 받았다.

나라의 해방은 이런 전과가 있는 그의 전도에 밝지 못한 그늘을 던져주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중시 심장병으로 갑자기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겼다.

《형석아, 세상이 뒤집혔다. 북조선에는 인차 로스케 치하의 공산사회가 선다더라. 사람이 네것 내것없이야 무슨 재미로 살겠니. 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곧 서울로 나가야 한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문형석은 처자를 차후에 데려갈 작정을 하고 먼저 혼자서 남조선으로 나갔다.

그후 썩은 이남사회와 결별하고 인줄을 타고 캐나다로 갔다.

그런 나날속에 문형석은 북조선에 대하여 남다른 직의를 품은 독설가로 되었다. 그는 남조선

《평사관》이 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 두고온 처자를 북에서 전쟁때 참살한줄로 알고있었다.

고독과 외로움속에서 이국에서의 생활은 때없이 그에게 하이데거의 말이 떠오르게 하였다. 주저 《존재와 시간》을 쓴 도이칠란드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하였다.

재혼하여 후처가 낳은 아들은 돈에 환장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인생의 빛은 문형석의 몸에서 꺼져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락은 독서, 특히 세계 각국의 신문구독에 몰두하는 길이었다. 5개 국어에 정통한 그는 세계각국의 신문들을 빠짐없이 열독하였다.

이러는 과정에 문형석은 세계 각국의 신문들에 북조선의 령도자 **김정일**장군에 대한 칭송기사가 자주 실리는것을 신문으로 읽게 되었다.

박식다문한 문형석의 시야로 볼 때 **김정일**장군처럼 세계 수많은 신문, 방송으로부터 아낌없는 레찬을 받고있는 령도자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로 각국의 언론계는 다른 나라 령도자들을 소개하는데 린색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장군이 대해서는 레외로 특수한 대접을 하고있을뿐아니라 그이를 레찬하는 글들에는 흠모와 정중성이 채색되어있었다. 이를테면 **김정일**장군은 위도와 경도를 넘어 온 세계의 신비한 추앙의 대상으로 되고있었다.

그래서 문형석은 늘 **김정일**장군의 업적과 비범하고 특출한 천품에 대하여 쓰고있는 외국신문들을 받아들면 첫줄부터 마감줄까지 품놓고 자세히 읽어보곤하였다. 그것을 보고 한번은 리운사장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군. 인제는 문형까지 북조선지지도로 돌아서는게 아닌가?》

문형석은 그때 씩씩히 대답하였다.

《나의 경우는 지지와는 의미가 같지 않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저 인간이라고 일컬을수 있는 세상만인에게는 량심이라는 마음속 거울이 있는것이고 량심있는 인간은 진실앞에 공정하며 위인앞에서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것이다.

지난날 조국앞에 죄를 지은 문형석의 경우 조국에 대한 인식은 피부와 감각으로 와닿는 체험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인식은 어디까지나 금박에 서서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인식의 한개에 머물러있었다.

이 객관적인 《프리즘》이 90년대를 맞게 되었다. 세계는 대진통을 겪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휩쓸어 버린 폭풍이 동아시아로 넘어갈 기운이 보이자 많은 사

람들이 다음차례는 북조선이라고 짚었다. 실상 나라가 작으니까 분계선을 하나 사이에 두고 미군과 접하고있는 북조선에는 자본주의역풍이 쳐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보다 특별히 더 많았다.

그러나 북조선은 광풍앞에 끄떡하지 않았다.

문형석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북조선의 견해를 수령덕으로 보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시었다.

문형석을 큰 충격을 받고 정세발전을 지켜보았다. 미국의 호전충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에 심심한 조의를 표시한 자국정부의 공식인물들과는 달리 돌연 태도가 일변하여 화약내 뿜는 강경론을 메고 나왔다. 이제는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북조선사정이 달라졌으니만큼 《핵》문제에 대한 본래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북조선에 《특별사찰》을 다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북조선은 사상전례를 모르는 초특급 관심사의 초점이 되어 만천하의 각광속에 들게 되였다. 이제는 **김일성** 주석이 안계시는데 작은 나라인 북조선이 세계유일초대국인 미국과 1:1로 회담탁에 마주 앉았으니 그 위세에 놀려 숨이나 제대로 쉬겠는가.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문형석을 손자방법을 생각하였다. 2,400여년전에 나온 손자방법은 전쟁에서 이긴 등급을 상, 중, 하, 최하로 나누고 최상은 적을 모(많)로 치는것이라고 하였다. 적을 모로 친다는것은 용병하지 않고 지략으로 친다는 뜻이였다. 그런즉 작은 나라인 북조선을 세계유일초대국과의 대결에서 수천년전부터 병법에서 공인해 온 최상의 승리를 총 한방 쏘지 않고 얻은것이였다.

문형석이 한테는 풀수 없는 의문이 생겼다.

이 사태를 어떻게 리해하는것이 옳은가? 미국이 양보를 하였는가? 아니면 선의를 베풀었는가?

문형석의 눈으로 볼 때 또하나 신기하게 생각되는것은 북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후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국가수반을 추대하는 공식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사실이였다. 이 역시 세계정치사에 있어본적 없는 특수한 현상이였다.

유사이래로 지구상에서는 수천수만의 국가수반이 고인으로 되었고 국가수반이 돌아가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차 새 수반을 공식추대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나라의 체모와 통치체제를 도저히 유지할수 없으므로 보통서거당일이 아니면 며칠안으로 공식적인 명의를 띤 새 수반이 들어앉았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주체 23(1934)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자 한시간도 안되어 당시 수상직

에 있던 히틀러는 자신이 국각원수로 된다고 공포하였다.

미국에서는 주체34(1945)년 에 루즈벨트대통령 죽자 2시간도 안되어 부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취임식을 몇분사이에 해치웠다.

그러나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수반이 서거한 때로부터 무려 한해가 지내도록 국가수반을 추대하는 공식의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북조선은 지난 한해동안 **김정일** 장군의 령도를 받으며 세계의 면전에서 자기의 위상을 오히려 더욱 높였다.

문형석의 눈으로 볼 때 이처럼 희한한 사실은 북조선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에 대한 전국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숭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면 한나라 령도자가 자기 인민들로부터 이처럼 열광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있으며 어쩌하면 전국민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이처럼 철통같이 뭉칠수가 있는가.

생각할수록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문형석은 날이 갈수록 고국으로만 쏠리는 마음을 막을수가 없었다.

2

평양에 도착한 문형석은 해외동포영접총국의 일꾼인 지영호의 안내를 받아 고려호텔에 들자바람 옥상으로 올라갔다.

본시 평양태생인 문형석은 팔목상대할 광경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였다. 지금 문형석의 눈에 보이는 평양거리는 걸설력사가 오랜 캐나다의 제1도시인 몬트리올의 중시가를 무색케 할 지경이였다.

문형석은 거악처럼 솟아오른 평양의 새 모습만 보고도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높이 들어올린 고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힘을 느끼는것 같았다.

그는 옥상에서 처자도 생각하였다. 물론 처자가 살아있다면 그들이 매우 불우한 처지에 있을것은 명백하였다.

죄를 짓고 조국을 버리고 달아난 사람의 처자를 나라에서 곱다고 끌어줄리는 만무하였다. 만일 고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그들에게도 공민권을 주었다면 언제나 떼여던질수 있는 맨 마지막 대렬의 끝자리에 세웠을것이다. 이를테면 처자는 나라의 《마지막 공민》으로 박해를 받으며 주검이 들어 죽지 못해 살아갈것이다.

그 다음날 지영호는 교외구경을 하자고 하면서 150리 나가있는 《s》방직공장으로 손님을 안내하였다.

이태전에 해외동포영접총국에서는 문형석으로부터 자기의 처자의 행처를 확인해줄것을 요청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영접총국에서는 그 일을 지도원 지영호에게 위임하였다. 그는 전국각지로 편지를 띄워 수소문하던중에 《사》방직공장 문봉숙지배인이 문형석의 딸같다고 짚게되었던것이다.

문형석은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머리에 꽃수건을 쓴 처녀들이 비단천을 짜는 직포직장에 들어 섰을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물어보았다.

《지배인님, 공장에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3천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큰 공장을 녀성지배인님이?》

문형석이 하도 놀라와 연방 혀를 차는것을 보고 지배인은 미소를 지었다.

지영호는 두 사람이 줄곧 《지배인님,》 《손님》 하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서로 이름까지 소개하며 인사를 시켰는데 혈육이라면 그렇게 몰라볼수 없는것이다.

저녁이 되어 돌아오는 길에 지영호는 가정방문도 한집 하자고 하면서 한 아파트주택으로 손님을 안내하였다.

문형석은 집주인의 친절한 마중을 받으며 집구경부터 하였다. 현대인의 집에 있어야 할 가장집물이 그뿐하게 갖추어진 매개의 방은 정신이 들만큼 깨끗하였다. 넓고 긴 베란다에는 란초며 백리향 채송화가 피어있는 수십개의 화분이 주련이 놓여있었다.

문형석은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화초들을 보면서 이집 식구들의 정서만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에게만 있을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보았다.

집주인의 제의에 따라 마침 속기 켄켄하던 손님들을 명태며 마늘같은 간단한 안주감을 놓고 《통성맥주》를 서너고뿌씩 마시었다.

《술도한잔 할가요?》

집주인 서동길은 손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장안에서 백삼한뿌리가 들어있는 개성인삼주를 가져왔다.

문형석은 안내자의 집주인이 부어주는 인삼주를 안주도 입에 대지 않고 연거퍼 다섯잔이나 마시었다. 한생 술로 고독을 다스려 온 문형석은 칠순이 넘은 지금에도 주량이 대단하였다. 취기가 좀 오르자 문형석은 양복웃거고리를 벗어 안내원에게 주면서 집주인쪽에 말하였다.

《안주인은 어딜 갔는가요?》

《직장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시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바쁘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녀자가

남자보다 발언권도 더 크답니다. 나는 건설사업소직장장이지만 그 사람은 영웅지배인이니까요.》

그때야 손님은 자기가 지금 좁전에 만나본 문봉숙지배인네 집에 와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문형석은 놀라며 웃음을 चे했다.

《영웅지배인?...그러니까 안주인의 발언권이 세다는 말이 리해가 됩시다. 어떻습니까! 녀성의 치하에서 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동길은 히죽이 웃어보였다.

《물론 급할 때도 있습지요. 어떤 날은 직장에서 먼저 온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지배인님에게 저녁밥을 지어드려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집에서 결정적인 주도권은 세대주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따금 수틀리면 주먹을 메고 짹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무서워 벌벌 떠납시다.》

서동길은 소탈한 사람이였다.

문형석은 호기심을 가지고 웃고있는 세대주한테 청을 들었다.

《나는 원래 신문기자입니다. 캐나다에 돌아가서 이 집 내외분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싶는데, 당신은 어떻게 영웅지배인의 남편이 되었습니까?》

서동길은 거북해하면서 좀 주저하는듯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정전이 된지 한해밖에 안되던 때여서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였습시다. 너무도 부족하였지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소.>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곳곳에 애육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세우고 전체 고아들을 키우고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평양교외에 있는 초등학교 원아였는데 글썽 하루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초등학교를 찾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른반원아들은 교원의 인솔하에 등산도 가고 목욕을 하려구 강변으로 나가서 학원에는 우리반만 남아 마당에서 바줄당기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는분이 사진에서 늘 보아온 우리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바줄을 팽개치고 《수령님, 수령님—》 하며 그이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두팔을 벌리시여 손닿는것 우리 원아들을 그러안으시고 《너희들이 보고싶어서 왔다. 그사이 모두 잘있었느냐. 앓는 아이는 없느냐.》 하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우리 원아들은 뻥뻥한 목소리로 잘 있다고, 다 건강하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이는구나.》 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롭게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수령님 안색이 점차 변하시였습니다. 주접이 들어 맨 뒤줄에 서있는 한

소녀의 얼굴에서 눈물자욱을 보시었던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겹겹이 둘러선 원아들을 헤치시고 그 소녀앞으로 가시였다.

《애, 너는 어디가 아픈게로구나.》

수령님께서 별로 피기가 없어보이는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물으시였다. 소녀는 얼굴을 숙인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너 이름이 뭐지?》

수령님께서 또 물으시자 소녀는 금시 울음을 터칠듯이 입을 실룩거렸다.

《문봉숙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교원이 말씀드렸다.

《애 봉숙아, 다른 아이들은 혈색이 다 좋은데 너만은 왜 그렇지 못하냐.》

그러자 소녀는 마침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교원이 사연을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그애의 별명이 《울보》라는것까지 알게 되시였다.

《그래 봉숙아, 일없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갔느냐?》

그 물음에는 한마을에서 살던 서동길이가 대답을 올렸다.

《53년입니다. 미국놈비행기에서 내쫓는 기총탄을 맞아 피를 토하고 죽는것을 내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애 어머니는 <우리 봉숙이가 불쌍하구나...> 하고는 숨졌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봉숙의 얼굴을 꼭 두손으로 감싸주시며 원아들을 둘러보시였다.

《애들아, 너희들속에서는 봉숙이를 몰아주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안된다. 봉숙이 아버지는 지난날 나라가 없었던 탓에 본의아니게 죄를 짓고 남으로 나갔다. 그러나 봉숙이 어머니는 미국놈폭격에 죽었다. 봉숙인 커서도 어머니를 죽인 원썬을 잊지 않을게다. 너희들은 구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봉숙이를 더는 울려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봉숙이와도 친형제처럼 지내야 한다. 알겠느냐.》

따뜻이 타이르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원아들은 뉘우침에 잠겼다.

그럴수록 봉숙은 머리를 숙인채 흐느끼기만 하였다.

《이애야, 그동안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겠니. 슬렸지, 외로웠지. 누가 너를 버림받은 고아라고 하더냐.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버림받지 않는다. 알겠느냐. 봉숙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높이 들어라. 그렇게 머리를 들고 어서 커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면 너는 꼭 너를 낳은 아버지도 만날수 있다.》

봉숙은 수령님을 부둥켜안고 왕왕 울기 시작하

였다. 수령님께서는 말래지 않으시였다. 불쌍한 어린것이 작은 가슴에 뭉치였던 설음을 자신의 옷자락에 응어리쳐 말짱 쏟아 버리기를 바라시였다.

세월이 흘렀다.

봉숙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방직공장 직포공이 되었다. 그때 서동길은 다른 공장에 배치받았으나 봉숙이가 간 방직공장으로 같이 가서 수리공이 되었다. 서동길은 기대에 아무 고장이 없을 때에도 스파나를 쥐고 봉숙히 말아보는 직포기옆에 자주 나타나서 여기저기 두드려보며 고장이 없는가고 물어보곤하였다.

그러건말건 봉숙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럴사가 없었다. 사실 봉숙이한테는 한초가 새로왔다. 다기대운동의 선구자가 된 그는 직포기순회시간을 계속 단축하기 위해 언제나 땀이처럼 돌아갔다. 그는 아무리 뛰고뛰어도 힘든줄을 몰랐다. 할수록 더 하고싶은것이 일이었다.

봉숙의 머리에서는 언제나 네가 어서 커서 일을 잘해야 아버지를 만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 봉숙은 세상밖으로 버림을 받았던 자기를 찾아주고 키워주신 수령님 은덕을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었다. 그저 아글타글 힘닿는것 일하여 수령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고싶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깨우쳐주신대로 일을 잘하여 아버지의 죄도 씻고싶었다.

봉숙은 해마다 년간계획을 상반년안으로 초과완수하여 공장적으로 손꼽히는 혁신자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몇해가 지나 공장에서는 탄원사업이 있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평양에서 150여리 떨어진곳에 건설된 《S》방직공장에는 유능한 기대공들이 많이 요구되었다.

봉숙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 일떠선 방직공장으로 보내줄것을 탄원하였다.

공장에서는 언제나 일터에 선물을 일으키던 혁신자를 내놓기가 무척 아수하였지만 한 공장보다 온 나라를 생각하는 봉숙의 성장에 감동되어 그의 탄원을 지지하였다.

봉숙이 새 공장으로 가는것이 결정된 날 서동길이 찾아와 다짜고짜 고아였다.

《봉숙이, 그런 문젠 나하고 토론도 안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 .

《예? 내가 왜 동무하고 토론해요?》

《그래, 봉숙인 내가 동무를 사랑한다는걸 정말 모른단말이요?》

웃웃자락을 할 헤친 서동길의 눈에서는 슷불같은것이 이글거렸다.

《...》

《하여간 알아두라구, 나도 봉숙이가 가는 공장으로 갈테니.》

《누가 말린됐담.》

새 공장으로 온 첫해에 봉숙은 년간계획을 단석달동안에 완수하고 종업원총회때 주석단에 오르고 어느 총각이 주는 꽃다발을 받았다. 봉숙은 박수를 쳐주는 만장을 향하여 꽃다발을 흔들어보였다.

그때 봉숙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방금 봉숙이한테 꽃다발을 안겨준 청년은 서동길의 옆에 앉아 열정적으로 손을 마주 흔들어보였다.

서동길은 지금 장내에 있는 모든 총각들이 봉숙이를 황홀하게 바라보고있음을 육감으로 느끼고 속으로 《매우겠구나.》하며 한숨을 지었다. 그날밤 서동길은 봉숙이를 합숙에서 불러내어 고백이 아니라 우름장을 놓았다.

《봉숙이, 언제까지 내 애간장을 태우겠소. 봉숙이때문에 이 서동길의 심장이 터져도 좋겠소?》 그때까지 일에 지장을 줄가봐 일부러 서동길이의 사랑을 모르는척해 온 봉숙은 《나도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라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캐나다에서 온 손님은 자기도 모르게 서동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눈을 슴벅거리면서 입안소리로 《고마우이, 고마와...》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서동길의 이야기를 듣고 문봉숙이 자기의 딸이 틀림없다는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당장 서동길의 앞에서 내가 봉숙이 아버지라고 단언할수는 없었다. 모든점으로 미루어보면 문봉숙이 자기의 딸이 확실한것 같은데 그가 영웅지배인이라는 꿈같은 사실이 거연가미연가 하는 한가닥의 의혹을 남기게 하였다. 문형석은 봉숙지배인이 퇴근해오기를 기다리면서 흥분하여 한가지 더 물어보았다.

《이 사람, 봉숙이가, 아니 봉숙지배인님이 영웅은 어떻게 되었소?》

《선생님, 그 이야기는 본인한테 듣는게 좋겠습니니다.》

3

도당회의에 참가한 문봉숙지배인은 부지배인이 보낸 쪽지편지 받고서야 오늘 공장을 참관한 카나다교포손님이 자기 집에 와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미안해하면서 저녁 여덟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서동길은 주부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해한테 신경질을 부릴사하면서 미간을 찌프리고 재촉하였다.

《여보, 어서 와았소. 선생은 당신이 영웅이 된

경위를 알고싶어하는데.》

《그래요?》

문봉숙은 거북하고 쑥스러워 머뭇머뭇하면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지배인님, 저녁식사부터 하시고 천천히...》

문형석이 말하였다.

문봉숙은 부엌으로 나가 저녁밥을 한술 뜨다말고 옷방에 가서 귀중품함을 들고와 앉으며 그안에서 번쩍이는 영웅메달과 국기훈장1급을 꺼내어 문형석에게 보여주었다.

문형석은 그것을 만져보며 《지배인님이 일을 잘하여 금별의 수훈자로 되었던말이지요.》하고 봉숙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제가 잘하여 된것이아니예요. 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키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살펴주고 내세워주시여서 영웅이 된것이랍니다.》

봉숙은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안은 은혜에 보답하고싶은 일념을 안고 혁신으로 나날로 이어진 직포공과 작업반장 시절도 간단히 언급하고 직장장을 한 15년동안에 온 직장이 기술혁신의 봉화를 들게하여 국가에 수백만원의 이익을 준 사실도 락후분자 13명을 최소리나는 혁신자로 키워낸 소행도 다 동지들이 도와서 함께 한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로동신문에 봉숙이를 소개하는 기사가 사진과 같이 크게 실리었다. 이 신문이 나간날 저녁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봉숙이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그 기사를 보여주셨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신문을 보시고 기억을 더듬으시며 《문봉숙이...봉숙이...》 하시면서 서기더러 그가 애육원출신이 아닌가 알아보라고 하시였다. 한시간후에 서기는 애육원출신이 옳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우리 초등학원의 <울보>가 큰 위훈을 세우고 내앞에 나타났구나.》 하시며 몹시 기뻐하시였다.

그런데 며칠후인 7월8일에 천만뜻밖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

문봉숙은 수령님동상앞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수령님, 수령님—!》

엎드린채 일어날줄 모르고 대성통곡하는 문봉숙의 귀에는 문득 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다정하고 은은한 그 목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다.

《봉숙아,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것은 일찌기 수령님께서 초등학원에 오시였을때 봉숙의 머리를 쓸어주시며 하신 말씀이였다. 봉숙이 한테는 이 한마디속에 수령님이 계시였다. 피눈물속에 여섯달이 지나갔다.

그때 있는 일에 대하여 문봉숙은 자기네 도의

도당책임비서 림동찬이한테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림동찬이 일을 보다가 퇴근하려고 일어서는데 전화종이 울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정일** 장군님께서 몸소 전화를 걸어오시었다. 《책임비서동무는 지난 6월말에 신문에 난 그곳 방직공장 문봉숙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까? 수령님께서 그 기사를 보시고 말씀도 계시어서 나는 문봉숙동무에 대한 영웅내신서가 올라오지 않았는가 중앙인민위원회에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내신서도 올라온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림동찬은 그때에야 정신이 번쩍들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비통하고 원통한 속에 봉숙이 문제를 감감 잊어버리고 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연을 듣고 《일이 그렇게 되었던군.》라고 하시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었다. 송수화기를 받쳐든 림동찬의 손이 축축하게 내뿜은 땀발에 젖어들었다.

이윽고 피로움이 실린 **김정일** 동지의 말씀이 나직한 음조를 타고 림동찬의 가슴을 울리었다.

《봉숙동무는 유년시절부터 수령님을 아버지품으로 여기고 이날이때까지 일편단심 당을 따라온 충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인민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피어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꾸어주는것이 동무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신을 석달동안이나 잊어버리고있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인민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피어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꾸어주는것이 동무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무들은 인민을 위하여 늘 사색하며 모든것을 바치는 충복, 부지런한 역마가 되어야 합니다.》

림동찬은 깊은 자책에 잠겨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듣고있었다.

《물론 동무들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오. 수령님을 잃고 그럴 경황이 없었겠지. 그렇지만 동무들은 당사업을 하는 일군으로서 자기의 근본원칙을 잊어서는 안되지. 더구나 봉숙동무는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일군이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수령님 계시 때보다 더 잘 보살펴주어야 하오. 동찬동무, 봉숙동무에 대한 영웅내신서를 빨리 올려보내시오.》

림동찬은 가슴을 울리는 이 말씀에서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슬기와 의지가 더욱 새롭게 심장에 빈구석 없이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며칠후 문봉숙은 중앙인민위원회로 올라와서 여러 간부들이 립석한 가운데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길로 책임서기와 함께 문봉숙은 대기하고있던 승용차를 타고 당중앙위원회청사로

가서 **김정일** 동지의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문봉숙동무가 왔습니다.》

서기가 보고를 드리자 문건을 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문득 눈길을 드시었다.

《아, 우리 봉숙동무가 왔구만! 어디 좀 봅시다.》

봉숙은 친애하는 그이앞으로 달려나가고싶었다. 그는 방금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그간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에게 돌려주신 은정깊은 배려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봉숙은 앞이 안보여 걸음을 내짚을수 없었다. 그이를 뵈고보니 수령님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문봉숙은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지난 7월

김정일 동지를 찾아가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싶던 그때의 심정이 그대로 솟구쳐 흑흑 흐느끼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울고있는 봉숙이 앞으로 오며 갈리는 음성으로 달래시었다.

《봉숙동무, 그만 그치라구. 나는 봉숙동무의 심정을 잘 알고있소. 우리는 다같이 어버이를 잃었지.》

문봉숙은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너걸음 사이를 두고 문봉숙의 앞가슴에 번쩍이는 금별메달이며, 그수척한 얼굴이며 소박한 차림새, 한마디로 문봉숙의 전체를 일별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봉숙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말씀하시었다.

《봉숙동무, 축하하오, 축하해. 지난날 초등학의 <올보>가 영웅이 된 모습을 보고싶어서 데려오라고 하였소.》

《경애하는 장군님, 모두 장군님께서...》.

문봉숙은 목이 잠겨 감사의 인사조차 제대로 올릴수 없었다.

《그런말 마오. 동무가 일을 잘해서, 영웅이 된거지.》

그이께서는 눈물에 젖어있는 문봉숙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그를 의자에 앉혀주시었다.

전화종이 울렸다.

김정일 동지께서 여러대의 전화기가 놓여있는 책상앞으로 가시었다.

그때 문봉숙은 그이의 책상앞에 각종 문건이 한자가 넘게 쌓여있는것을 보았다. 세계 각국에 들어오는 통신자료같은것이 역시 그만한 높이로 쌓여 있었다.

문봉숙은 온 나라와 세계가 그이의 시야속에 있음을 보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정일 동지께서 그처럼 귀한 시간을 자기를 위해 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송구하여 앉아있을수 없었다.

《교환수동무, 나한테로 오는 일체 전화를 한시간 후에 넣어주세요.》

그이께서는 이렇게 이르고 다시 문봉숙이앞으로 오시었다.

《봉숙동무, 왜 일어났소?》

《저는 ... 영원히 이—자리에 있고싶지만...》

《내가 시간을 앓길가봐? ... 그럼 내가 섭섭하지, 내가 섭섭해. 봉숙동무에게 부모가 있다면 금별 메달을 달고 온 딸을 선자리에서 돌려보내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친히 문봉숙을 자리에 도로 앉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봉숙의 입술에 하얗게 조갈이 인것을 보고 서기더러 시원한 사이다를 한병 가져오라고 이르고시었다. 그러시고는 손수 사이다를 고뿌에 부어 봉숙의 손에 들려주시며 어서 마시라고 하시었다.

봉숙을 한모금 입에 대다말고 고뿌를 옆에 있는 원탁우에 놓으려 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 고뿌를 놓지 못하게 하시며 다 마시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옆에 지켜앉아 보시었다.

문봉숙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수없이 그이앞에서 시원한 사이다 한고뿌를 다 마시었다. 긴장이 풀리었다. 어느덧 봉숙은 친어버이앞에 앉아있는 심정이 되었다.

그때야 **김정일**동지께서는 물으시었다.

《봉숙동무 나이가 지금 몇살이더라?》

《원한살입니다.》

《원한살, 한창 일할 때지. 어려워말구 제기할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다 이야기 하라구.》 《저는 그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봉숙동무, 내보기에는 봉숙동무가 몸을 좀 추세워야 하겠소.》

《예? ... 저는 건강합니다.》

《아니요. 봉숙동무 얼굴은 수령님서거후에 반쪽이 되었소.》

《제 얼굴이 워낙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 언제인가 신문에서 본 봉숙의 얼굴은 지금같지 않았소.》

봉숙은 들을수록 목이 메여올랐다. 자기가 도대체 뭐라고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안고 계시는 그이께서 자기의 얼굴이 축간것까지 걱정해주시는지 알수가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상앞으로 가시여 매끈매끈한 종이장을 봉숙의 손에 쥐여주시었다.

봉숙이 영문모르고 내려다보니 료양권이였다.

《그것은 내가 마련해주는것이니 한달 푹 쉬면서 몸을 추세우라구.》

《장군님, 저는 당장 내려가서 생산을 지휘해야 합니다.》

《글쎄 내 말대로 하라구.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게 아닌가.》

문봉숙은 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 한장의 가벼운 종이장에 천만금의 눈금으로도 재일수 없는 사랑의 무게가 실려있음을 느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직 어버이만이 주실수 있는 자애를 담아 말씀을 이으시었다.

《봉숙동무, 당으로 혹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꼭 알리라구, 봉숙인 예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수령님의 품속에 있을것이요!》

문봉숙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자기의 가슴속 한구석에 자리잡고있던 걱정을 송두리채 가시여 주는 그이의 숨결에서 수령님의 숨결을 느꼈다....

문봉숙지배인의 이야기는 끝났다.

문형석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이 문봉숙이 자기의 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젊은 부부가 두어살난 계집애를 사이에 놓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였다.

《지배인, 이 사진에 알 사람이 있는가 보라구.》

문봉숙은 고개를 수그리며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에서 본것이였다.

《아니? 이게 웬 일이에요?》

문봉숙은 가슴이 후두둑 뛰여 사진을 들고 이쪽 저쪽 보았다.

《여보, 왜 그러오?》

남편이 눈을 깜빡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예요!》

서동길은 눈이 둥그래지며 문형석을 쳐다보았다.

문형석은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사진속의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묻고 있었다.

《지배인,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나?》

문봉숙은 머리를 저었다.

《이 애기는?》

《...》

봉숙은 애기적 자기 모습과 두살때 헤어진 아버지의 얼굴을 알수가 없었다.

문형석은 의자에서 떨어지며 흥분하여 터질것같은 가슴을 부여안고 부르짖었다.

《이 애야, 그렇게도 몰라보겠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문봉숙은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비볐다. 그때야 봉숙은 사진에서 본 젊은 남자의 모습이 앞에 앉아있는 로인의 얼굴륵락과 신통히 같다는것은 알아보았다. 그는 얼마나 사람처럼 멍하니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기만 하였다.

문형석이 딸을 향하여 두팔을 벌리었다.
《봉숙아, 이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봉숙은 의자에서 내려앉으며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부둥켜잡았다. 그리고는 울었다. 한생을 이역에서 덧없이 보내고 인생말년에야 조국을 찾아온 아버지가 가엾고 처량하여 오래오래 울었다.

문형석은 50년전에 버리고 간 딸을 나라의 영웅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정을 생각하니 목이 메여와서 두분의 초상화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열두번이나 하였다.

문형석은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옆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누울수 있었다. 그러나 잠들수가 없어 도로 일어나앉았다.

딸 역시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그는 종시 다시 일어나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옆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앞에 와앉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이 없었다. 딸은 속삭이듯 물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아직은 괜찮다.》

《아버지, 저는 두살때 헤어져서 아버지의 식生活を 모릅니다. 아버지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영?》

《이 아침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제 손으로 만들어 드리고싶어서...》

딸의 대답에 문형석의 두눈에 그 나이에 있을 상심지 않은 눈물이 고였다.

먼동이 푸름푸름 터오고있었다.

문형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창문을 열고 시원한 새벽공기를 마시면서 말하였다.

《네가 만든 음식이야 다 맛이 있겠지. 애야, 너를 만나니 너의 자식들도 보고싶구나. 지금 어디가 있느냐?》

《큰아들은 군사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평양에 있는 경공업대학 방직과에 다니고 둘째아들은 지금 군대에 나가있어요.》 《네가 둘째한테 편지를 자주 하느냐?》

《예, 저는 어제 그애한테 써보냈어요. 우리 행복을 지키려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신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

딸은 아버지가 한시경이 지나도록 말이 없는것을 보고 나직이 물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는 평도자와 조국에 대하여 생각한다.》

문형석은 장중하게 들릴만큼 웅글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대답을 듣고 문봉숙은 자리를 고쳐앉았다.

《아버지, 인제는 아버지도 알 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의 큰집으로 되었어요. 평도자를 잘 모신 덕에 세계의 주봉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딸의 얼굴에는 존엄높은 인간의 긍지와 자신심, 생의 환희가 넘치고있었다.

문형석은 가슴에 철장대같은 기둥이 서는것을 의식하면서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다.

과연 나의 피를 받은 이 봉숙이 내 딸이 옳은 가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는 살아있으면 나라의 《마지막공민》으로 주접이 들어 기를 못퍼고있을줄로 알았던 딸이 아버지앞에 영웅지배인이 되어 나타날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또 몸가짐은 얼마나 의젓하고 목소리는 당당한가!

《봉숙아, 이 아버지는 한생을 살고서야 조국과 인생을 알겠고나. 저 이남같은 <조국>은 버리어도 되지만 인생을 빛내는 조국을 버리는것은 최악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생 것처럼 참다운 조국을 외면하고 살았으니 얼굴은 늘 어두웠다. 사람이란 운명을 마음놓고 맡길데가 있어야 것처럼 밝은 얼굴을 가질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아버지, 옳은 말씀이에요. 이 딸은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 운명을 맡겼습니다. 제가 그이께 운명을 맡기지 않으면 어디에 맡기겠어요. 운명이란 아무데나 쉬이 맡길수 있는 길손의 가벼운 보따리가 아니지요.》

문형석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깊은 공감의 빛이 어리었다.

문형석은 인제야 조국에서 온 나라 인민들이 **김정일**장군을 절대적인 숭배심을 안고 것처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남들 같으면 오래전에 세상밖으로 던져버리었을 《마지막 공민》까지 품에 안아 영웅지배인으로 내세워주시는 평도자를 따르지 않을 백성이 천하에 어디 있겠는가.

그는 다른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세계에서 오직 북조선에만 있는 일심단결이란 말뜻이 감각으로 피부에 와닿는것을 느꼈다. 자기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조국인민의 일심단결이 땅땅 굳은 100프로짜리임을 딸의 운명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보도계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김정일**장군님은 회세의 지략과 의지를 지니신 강철의 평장자시다.

문형석은 비로소 지난해에 북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하게 1대1로 맞서 월계관을 쓰게 된 요인도 바로 리해하게 되었다. 력사는 바람을 피해 돌아앉는 약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준 례가 없다.

그때 미국은 양보한것이 아니었다. 선의를 배

푼것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미국은 다만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자국의 이익에 맞게 분별있는 처사를 하였을뿐이었다. 그것을 보면 미국에도 령철한 사고로 호전광들을 누를만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들은 북조선에 **김일성**주석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장군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미국인들은 북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함부로 건드리자 하다가는 저부터 먼저 죽어야 한다는 호상관계의 생리를 깨닫게 된것이였다.

《아버지...》

떨리는듯한 딸의 목소리를 듣고 문형석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카나다로 다시 돌아가시겠나요?》

문형석은 심호흡하여 잠시 동안을 두며 대답하였다.

《떠나올 때는 돌아갈 생각이였다. 가긴가야지. 그러나 아주 돌아올테다. 해외에서 영웅지배인의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좀 하고 아주 오겠다. 제 운명을 맡길품이 있는데야.》

《아버지...고마와요!》 봉숙은 아버지의 우무려든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는 행복하였다. 자기가 버리고 가서 한생 걱정해온 딸이 어디서나 보이는 인간으로 솟아올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였다.

다음날 문형석은 카나다에 조국방문 첫감상을 텔레스로 보내려고 국제통신센터를 찾아갔다.

텔레스를 받아볼 사람은 리운사장이였다.

문형석이 이날 텔레스로 보낸 조국방문 첫감상문은 아래와같았다.

사장선생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나는 카나다에 있을 때 세계 각국 신문들에 관례를 벗어나 자주 실리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글을 빠짐없이 읽어왔다. 그 과정에 이 문형석은 전세계에 울리고있는 그이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상상할수 없는 정도로 높은것을 보고 그이의 위인상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이러한 표상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조국을 멀리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인식의 한계에 머물러있었다.

무릇 위대하고 거창한 창조물의 완전무결성을 보자면 앞면만 아니라 후면결속점을 잘 보아야한다. 나는 조국에 와서 나라의 《마지막공민》으로기를 못퍼고 주접이 들어있을줄로 알았던 내 딸의 운명에 청신한 홍화가 만발한것을 직접 보았다. 천만사람을 만난것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게

한 혈육과의 상봉은 나로 하여금 객관적인 인식의 한계에 머물러있던 나의 인식을 이제 판단이가해진 견해로 세워 세상앞에 피력하고싶은 누를수 없는 충격을 주고있다.

사장선생이 말한바와 같이 사회의 전도는 구경인간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귀착된다.

본래의 의미대로 인간이라고 부를수 있는 참사람들은 너나없이 미래를 안고 산다. 미래, 그것은 숭고한 지향과 꿈,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희망의 언덕이다. 건전한 리성이 마비되고 악과 타락의 시궁창에 빠진 속물들만이 오늘날을 위해 산다.

세월과 더불어 관념화된 보편적인 인식이 이럴진대 마땅히 인류의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한쪽에서 촉진되는 인간의 속물화과정을 무조건 정지시켜야 한다. 무기는 있다. 등대는 있다.

오늘 **김정일**장군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에서는 인류의 최고 재부인 주체사상이 설계한대로 인간을 새롭게 가꾸고있다. 그이께서는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인민을 《하느님》도 눈길을 들고 올려다보는 천상의 최상단에 세워주시였다. 령은 인민을 친자식같이 사랑하고 인민은 수령을 충의로 모시는것이 도덕화 된 사회, 온 국민이 자기의 령도자에게 운명을 맡기고 하나의 의지로 뭉쳐 충하없이 복락을 같이 누리는 나라, 이것이 내가 딸의 얼굴을 통하여 본 조선의 모습이다.

이처럼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세워주신 인간애의 조국, 인류가 지향하는 리상사회의 표준은 **김정일**장군께서 제시여 끄떡없이 여전하며 만년 초석같이 공고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하없는 광풍이 지구를 열백번 메꾼져도 희망의 성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끄떡없다.

그리고보면 문제는 결국 령도자에게 달려있다. 령사는 인류지성의 대변자이시며 슬기와 의지의 권화이신 **김정일**장군의 위인상을 세계앞에서 검증하였다. 우주를 포섭하고도 남을 그이의 도량과 인덕의 최고체현자이신 그이의 천품은 시대를 완전히 매혹시켰다.

바로 이런 리유로 정의와 진리앞에 공정하며 그리고 또 엄정한 령사는 신성한 세기의 목소리로 선언하고있다. 수수천년 구세주를 바로 찾지 못하고 쫓기고 시달려온 인류가 자기의 운명을 마음 폭 놓고 맡길수 있는분은 세상에 오직 한분 오늘의 **김일성**주석이신 **김정일**장군이시다. 천심이 떠받들어 모신 21세기의 태양이 이 행성의 푸른 하늘에 영원한 광원으로 빛나고있다.

우리는 강철전선에서 전투명령을 받았다

류동호

백광을 휘뿌리며
철의 봉화가 타오르고
새로운 대고조의 천리마가
화광이 충천한 붉은 하늘을 날으는
성강, 강철전선에서
우리는 당의 구호를 받아안았다

준엄한 시련의 년대마다
강철로 우리 당을 옹위하고
강철로 사회주의를 지킨 우리
장군님 믿으시는 성강은
대고조의 붉은 쇠물을 휘저으며
쇠장대를 높이 들어 당의 부름에 화답한다

보라!
천리마를 타고 출근길을 다그치는
저 억센 발걸음은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화선병사의 출전이 아니더냐

또 한차지
출강을 웨치는 로장의 거센 목소리는
당의 구호로 심장을 달큰

용해공들의 맹세가 아니더냐

당의 구호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용해공들의 가슴가슴은
쇠물보다 더 뜨거운 충효의 격류
성강은 이 격류로 쇠물을 끓여
강성대국의 기둥을 세우리라
결사옹위의 성새를 구축하리라

오, 우리 장군님 지퍼주신
새로운 천리마의 봉화를 든 성강
강행군의 앞장에선 로동계급의 전위부대가
당의 구호를 장군님 안겨주신
전투명령으로 받아안고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했다

성강은 달린다
천리마는 억센 나래를 펼쳤다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장
국경절 50돐 경축광장을 향하여
성강은 달린다
세기를 주름잡아 천리마여 날으자
강철전선은 앞으로!

친필비는 서있다

변홍영

이 나라에 드리운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셔주시려
그리고 로고에 찬 먼길을 걸어오신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저 글밭에 빛나고있다

갈라진 겨레의 피눈물에 젖은
이 강토를 안으시고
수령님 지새워오신
기나긴 세월의 닳과 밤이
오늘도 저 글밭우에 어리어온다

승엄히
젖어오는 눈길로
이 땅 이 행성의 그 어디서나
온 겨레가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친필비

외세의 칼에 맞은 깊은 상처가
상기도 아프게 가슴을 허비는 땅
민족의 그 비극을 영영 가셔줄
태양의 빛발을 안고
여기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는 서있다

오, 불멸의 저 글밭앞에
삼가 발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머리숙인
민족의 순결한 량심이며 애국의 넋이며
반세기가 넘도록
분렬의 고통에 피흐르는 세월이며

뜨거운 걱정 의 눈물로
조용히
거룩한 저 글발을 새겨안으라
어버이수령님 생애의 마지막날에
통일의 대경륜을 펼치시며 남기신 그 친필
우리 장군님 화강석비에 새겨
조국과 민족앞에 높이 세우셨나니

반만년의 이 조선
민족의 창창한 앞길에
태양은 빛난다
그 해빛 꺼질줄 모르는 하늘아래서
무궁토록 번영할
내 조국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오, 수령님의 친필비는 서있다

김일성
위대한 존함과 함께 영원할
하나의 조선
하나의 민족
그 존엄높은 모습으로-

어버이수령님 그토록 바라신
통일된 삼천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기어이 일떠세우실
장군님의 결심
장군님의 의지를 안고
위대한 친필비는
여기 강토의 한복판에 높이 서있다!

시의 꽃다발

최영화

거니노라
나의 대학시절이 흘렀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두볼을 적시며 꿈같이 만나뵈은
잊지 못할 백송리의 숲속을

거니노라 그날의 영광이
지금도 력력히 어려있는곳
젊음에 넘치셨던 수령님 영상이 선하여
수령님 앉으셨던 긴 나무의자도
마음 뜨거이 만져보고
나의 현시가 수령님의 감사를 받아안고
내 목메여 흐느꼈던 그 감격도 회억하며...

숲속에 정다운 물소리
푸르게 우거져 설레이는 나무들
새들의 지저귀임과 산기슭에 핀 꽃들
어느것이고 옛정을 속삭이며
머리 흰 어제날의 대학생들을 반겨주누나

낮익은 숲속의 밤나무도
근 반세기의 년륜을 새겨오전만
우리 수령님 저 소박한 연단에서
전쟁의 승리와 래일에 대하여 연설하신
력사의 그날을 못잊어
오늘도 그날의 모습으로 설레이여라

추억깊이 쓸어보노라
내 그 영광의 날에 수령님앞에서
그이 탄생일을 축하하여 읊어드린
시의 꽃다발- 나의 현시가
여기 펼쳐진 책모양의 큰 화강석대돌에

한자한자 꽃잎처럼 피여있는 현시비를
내 더운 가슴을 대고 쓸어보노라

나의 조국을 찾아주시고 .
인민을 새 세상의 주인으로 빛내주시고
자주의 내 나라를 세워주신 수령님
전쟁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백두의 위대한 령장께 삼가 드린
그날의 나의 시의 꽃다발!

내 마음속에 언제나
이 시 꽃다발의 꽃송이들이
아름답게 피여있어
나의 시에 넋을 심어주고
나의 삶에 향기를 풍겨주고
나의 마음에 수령의 노래 넘치게 하나니

오늘도 래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풍이 부나
나는 이 시의 꽃다발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노래하리라, 그날처럼 우리 수령님을
살리라, 그날의 그 마음 그 목소리로
우리 장군님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리라

내 여기 현시비앞에서
다시금 마음 가다듬노니
그날의 나의 시의 꽃다발을
더 향기롭고 새로운 시 꽃송이들로
더 아름답게 엮고 또 엮어
우리의 장군님께 삼가 드리리라
나의 한생의 시의 꽃다발로!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

최길상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위에 우리 시대와 인민을 하나의 숭고한 정신, 하나의 숨결로 뜨겁게 맥박치게 하는 구호가 세차게 나뭇기고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바로 이 구호속에 우리 당과 인민의 땀수 없는 혼연일체의 관계가 함축되어있으며 바로 이 구호속에 순간을 살아도 당과 수령의 의지대로 살고 어떤 바람이 휘몰아쳐와도 당을 영원히 받들고 옹호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이 집약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는 문학작품은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만 강행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선도하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문학은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야 시대정신을 구현할수 있고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당의 존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힘을 떨치는 자랑스러운 기발이다. 바로 이 구호에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이 뜨겁게 체현되어있다. 력사에 빛나는 시대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정신

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 정신, 이 의지는 시대의 숨결이 되고 맥박이 되여 위대한 힘을 낳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대중동원의 위력한 수단이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려일으키는데서 혁명적구호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구호들을 제시하는데서 과시된다.

일찌기 대중령도에서 혁명적구호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혁명적구호들은 제때에 제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불려일으키시였으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으로 제시하신 혁명적구호들은 전당, 전군, 전민을 불려일으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투쟁의 기치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온 원천으로 되였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불굴의 의지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경제, 군사적 보루를 철옹성같이 다지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이것으로 하여 구호는 발표되자마자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충동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가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으로

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 이 구호에 중중첩첩한

난관을 뚫고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기상이 맥박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의 종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속에 있으며 사상주제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속에 있다.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도 현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데서만이 원만히 구현될수 있다.

오늘처럼 정세가 어려운 때에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시련을 뚫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우리당의 드센 담력과 배짱을 안고 온 나라가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 바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 체현되어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을 투철히 구현하여야 한다.

구호에는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만민한 투지와 든든한 배심을 지니시고 그 어떤 천지풍파도 뚫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은 최상의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형성함으로써 전당, 전군, 전민이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으로 싸워나갈때 뚫지 못할 난관이나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공격전을 벌려 올해를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진격의 해, 혁명적대고조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주체의 조국, **김일성**조선을 끝없이 룡성변영하는 강성대국으로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신념과 의지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우리 문학은 구호에 맥박치고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형상으로 빛나게 구현함으로써만이 그이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또한 당중앙위원회 구호가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영광떨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드팀없는 신조

이다.

조국과 혁명의 증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치시며 우라 조국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위업을 완성하여나가는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문제로부터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강조국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구호에는 특히 성장의 봉화따라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경절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다.

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또한 사상의 힘, 단결의 힘으로 혁명의 앞길을 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사상과 의지의 힘, 단결의 힘으로 전진하는 혁명대오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인민을 믿고 인민들과 혼연일체가 되면 백번 승리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필승의 혁명철학이다.

혁명의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의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령도예술의 근본특징이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는 충신, 효자로 키워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세워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당, 정권기관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과의 사업과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

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기상, 애국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이 구호는 우리 혁명의 백승의 보검이며 우리 인민의 참다운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역사적 진군을 다그치는 보람찬 시기에 이 위대한 혁명적 구호를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공지로 행복으로 되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양양을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받들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써냄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는 작가, 예술인들은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담력과 혁명적량만을 안겨주는 시대의 명작, 명곡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명작은 현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이다.

국경절 50돐에 즈음하여 나온 당중앙위원회 구호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가 집대성되어 있다. 구호의 사상은 작품창작에 구현하는 여기에 명작창작의 근본비결이 있다.

문학은 시대와 인간, 생활을 반영한다.

구호에서 제시된 사상을 문학작품창작에 구현하는것은

결국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우리의 벽찬 시대의 인간과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그 어떤 난관과 천하대적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든든한 배심과 자신만만한 투지, 이것이 오늘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에 넘치고 심장에 불타는 신념이다.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 아무리 험난한 폭풍이 몰아쳐오고 정세가 아무리 열백번 변한다 해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자는것이 바로 구호의 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오늘의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드팀없는 신조이다.

이 열렬한 지향, 이 강철같은 의지야말로 오늘의 승리뿐아니라 혁명의 밝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원천이며 우리 시대의 기본정신, 우리 문학의 시대정신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혁명적인 지향과 념원,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형상적으로 옹게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충효심은 실천투쟁속에서 빛난다.

위대한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싸워나가는 전사의 신념은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는 실천투쟁으로 발휘되고 고수되어야 한다.

만세는 안불러도 한몸바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할줄 아는 사람이 참다운 신념을 지닌 진짜배기 충신이다.

말은 적게 해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건결히 투쟁할줄 아는 사람들, 실천으로 보답할줄 아는 사람들이 당과 혁명에 진실로 충실한 사람들이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혁명시인 김혁동지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인 문학작품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창작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우리 작가들의 충실성과 혁명성을 검열받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작가들은 창작하다가 붓을 쥐고 순직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오늘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작가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작가들은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작품을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높은 창작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녀인이 들려준 이야기

(송개마을에서)

최성진

동그스름한 얼굴이 해별에 타서 가뭏가뭏한 젊
은 녀인이 《무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
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상냥한 미소로 반겨주었
다.

그런 미소는 누구에게나 친근감과 즐거움을 주
기마련이다. 나는 자기 소개를 했다.

소문난 고장이여서 글쓰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
오기마련이겠는데 그 녀인은 작가를 처음 만나보
는 사람처럼 놀라며 반색했다. 천성이 그렇게 상
냥하면서 순진한것 같았다.

녀인은 시원한 샘물이 있다고 하면서 우물로
안내했다. 그러한 녀인을 보니 사적지의 해설강
사가 아니라 마치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
해주는 살뜰한 안주인파도 같았다.

가까이에는 꽤 깊어보이는 우물이 있었다.

녀인이 떠주는 랭수를 맘껏 마시고 세수까지
하고나니 먼길을 걸어온 피곤같은것은 어느결에
말끔히 가시여지고 심신이 거뽏해왔다.

개천에서부터 줄곧 걸어오다가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이 가까이에 있어 찾아들어온 나였다.

《이제 영웅이 있을 때부터 사용해오는 우물이
겠지요?》

《예, 그땐 나무방틀을 해놓은것뿐이었는데 위
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
신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세멘트미
장도 하고 우개공사도 했습니다. 여름철에 오시
는 손님들은 누구나 이 우물의 물맛이 좋다고들
말한답니다.》

녀인은 드레박을 기둥에 걸어놓았다.

영웅의 고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언제나
걸려있는 드레박이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은 맑
고 깨끗한 샘물을 아낌없이 뽏어올리고있었다.

영웅의 고결한 녀이 샘물이 되어 솟아나는것이
나 아닌가! 이 물을 마시며 영웅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자래웠으리라. 조국의 무한한 푸른 하늘
이 비껴있는 샘물을 들여다보니 생각이 깊어졌
다.

《강사동문 여기 태생 인가요?》

그 녀인의 말속에 비껴있는 이고장에 대한 남
다른 애정을 느끼며 나는 물었다.

녀인은 인차 대답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었다.

시원스려우면서도 귀여움을 자아내는 눈, 그
눈이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녀인이었다.

《리수복영웅이 저의 큰아버지랍니다.》 녀인이
말했다.

《아하, 영웅의 조카란말이요?!》

나는 무척 반가웠다. 마침 좋은 취재대상을 만
났다는 직업상의 욕심때문만이 아니었다. 오래
떨어져있던 혈육을 만난듯한 기분이었다.

우리 세대는 리수복영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자랐다고 할수 있다. 영웅의 시를 외우며 애국심
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그가 불뽏는 적의 화점을
향해 한몸 육탄이 되어 달려나가는 모습, 그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전선으로 나가면서 다진
맹세... 그 모든것은 우리 세대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것으로 새겨져있다. 열여덟살 청춘을 조
국위해 바친 영웅의 이야기를 인민학교 교과서에
서 배운 우리 세대인것이다. 바로 열여덟살의 젊
은 영웅을 삼십나이의 녀인이 큰아버지라고 부르
는데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이상
한 일도 아니었다. 세월의 범칙타이였다.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영웅은 그 나이로 영생하는것이
다.

《처녀는 아니겠는데요. 남편이 여기 있는가
요?》

녀인은 약간 수집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나이는 서른 한살, 아름은 리순복이라고 했다.

조카의 이름이 큰아버지의 이름과 비슷했다.
마지막 이름자는 영웅큰아버지와 같은 《복》자가
아닌가. 영웅의 녀을 이으려는 영웅집안의 의지
가 엿보이는 이름이었다.

리순복은 갓 시집을 갔다. 남편은 군관이였다.

그가 리수복영웅의 조카라고 해서 처녀때 술한

끝끝한 총각들이 대상으로 나섰다고 한다. 순복은 그 모든 미끈한 사내들을 다 마다하고 1211 고지에서 복무하는 군관과 결혼식을 했다. 큰아버지가 생명을 바친곳이었다.

그 남편이 김일성 정치대학에 올라와 공부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리순복은 남편이 공부하는 기간 고향에 있으면서 해설강사로 일하는 것이었다.

이고장을 찾아오는 인민군군인들과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에게 영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것이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생김새며 오달진 체격은 사진으로만 늘 보아오는 리수복영웅과 어쩌면 비슷해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리순복은 영웅의 고향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영웅들이 발휘한 영웅주의와 애국주의의 고상한 모범과 그들이 세운 공훈은 조국해방전쟁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여질것입니다.》

영웅의 고향집은 수림이 울창한 송개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아담한 농가였다.

영웅의 집은 원래 가난했다. 영웅의 아버지는 8년이나 머슴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서발막대 휘둘러도 무엇하나 거칠것 없는 가난한 집에서 영웅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 집안이지만 영웅은 남달리 배움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그를 위해 온 집안이 학비를 마련하여 그 하나만을 없는 살림에도 공부시켰다.

해방이 되자 마음껏 배워 희망을 꽃피울 길이 열리였다. 그는 고급중학교에 다니였다. 고향을 무척 사랑하고 친지들을 사랑할줄 아는 다감하고 열정적인 청년이 되였다. 희망을 나래쳤다. 청년 리수복은 해방의 봄빛을 새 삶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이었다. 고향과 친지들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안고 리수복은 불뿔는 화점을 향해 서슴없이 나아갔다. 청춘의 희망도 귀중하고 생명도 귀중했지만 그 보나 더 귀중한것은 조국이었기때문이었다. 다시는 조국을 빼앗기고 노예가 될수 없었다.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혔어도 영웅의 넋은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다. 영원한 고향의 아들이 되였다.

리순복은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였답니다. 이 근방에 현지도차로 나오시였다가는 영웅 리수복의 고향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는가고 하시면서 꼭 꼭 들리시였답니다.》

위인들의 자취가 새겨져 영웅의 고향은 뜻깊은 사적지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송개마을을 찾아 주신것은 주체36(1947)년 2월이였다. 첫 지방주권기간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이고장을 지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송개마을의 선거장에 들리시여 선거장을 깨끗하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번째로 오신것은 주체47(1958)년 9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을앞 큰길에 차를 세우시고 논판에 들어서시여 벼이삭의 알수할 세여보시며 이곳 농민들의 생활형편과 농사형편에 대해서 넘려해주시였다. 그러시다가 영웅의 고향집에 들리시였다.

그때 집에는 영웅의 어머니와 그의 어린 딸손자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쩔바를 몰라하는 어머니에게 장한 아들을 키워 나라에 바친 영웅의 어머니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며 살림살이 형편까지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영웅의 조카애에게는 이담에 커서 삼촌처럼 훌륭한 인민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방안에는 영웅이 남긴 시가 걸려있었다. 전사한 아들을 잊지 못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려있는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웅의 시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이것을 교과서에 내어 후대들을 교양해야겠다고 하시였다.

영웅의 고향집을 떠나가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나서는 영웅의 어머니에게 평양에 올라오면 우리 집에 들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7년도에 남산고급중학교 학생들을 이끄시고 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리수복영웅의 학창시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떠나서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도 찬란한 래일

의 희망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 보람찬 나날들이었다고 하시면서 리수복영웅처럼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체득했을 때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이고장을 지나실 때면 잊지 않고 영웅의 고향집을 찾아주시였다.

위인들의 심중에 그렇듯 잊지 못할 고장으로 새겨져있는 송개마을이였다.

오늘도 영웅의 고향집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이 나라 모든 청춘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신 영웅의 시가 걸려있다.

나는 그 시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땔수 없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지금은 노래로 불리워지는 영웅의 시! 그것은 적의 화점을 향해 한몸 폭탄이 되어 달려나아가는 순간에 영웅이 심장으로 올린 메아리이다. 애국의 피로써 이 땅에 새겨놓은 노래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세대와 새대를 이어 부르는...

나는 그 심장의 여운을 새기며 밖으로 나왔다.

한낮의 송개산 숲속에서는 매미가 울어댔다.

아름다운 고장이였다. 앞산에는 과일나무들이 우거지고 전야에는 오피가 자랐다. 송개마을엔 소총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마을 한가운데는 양어장도 있다. 멀리 마을앞으로는 금천강이 지나갔다.

오랜 력사의 강-대동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영웅이 온 냇을 바쳐 사랑해온 땅이였다.

영웅은 자연을 무척 사랑했다고 했다. 그래서 꽃이며 과일나무 심는 일을 즐겨했다고 했다.

송개마을사람들은 영웅의 념원을 잊지 않고 고향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건설했다. 산마다 과일동산으로 만들고 앞벌을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켰다.

애국심은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꾼 땅, 자기의 피와 땀이 스민 땅을 사람들은 더 귀중히 여기며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것이다.

어느해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송개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고개밑에 차를 세우시고 영웅의 고향마을을 한동안 바라보시며 참으로 경치가 좋은곳이라고, 자신께서 화가라면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웅의 고향을 피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변모시켜주시였다. 송개마을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의 고향으로, 누구나 한번 와서 보면 살고 싶어지는 고장으로 되였다. 위인의 사랑은 끝이 없어 리수복영웅이 다니던 모교를 영웅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해주셨고 모교에는 영웅의 동상이 세워졌다.

현재 이 땅에는 로년기에 이른 영웅의 형과 동생 셋이 생존해있다.

그 땅이 소중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영웅의 후예들은 모두 군복을 입었다. 11명이나 되는 사나이들이 영웅의 피가 스민 1211고지에서 복무한다. 처녀들은 안영애군의소 간호원들이다.

그러니 영웅의 가정은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전초선에 서있는것이다. 피줄은 억세게 이어져있다. 이제 얼마 안있어 리순복녀성도 남편따라 1211고지로 가게 된다.

헤여질 때 그 녀자는 말했다.

《1211고지에 취재나오시면 들리십시오.》

나는 패히 그러마고 약속했다.

나는 정말 영웅고지에 찾아가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위해 총을 잡고 전호에서 사는 그의 형제들을 다 만나보고싶었다.

그들, 수많은 리수복이들이 아름다운 희망과 고귀한 청춘을 다 바쳐 지켜선 이 땅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조국이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자.

명언해설

《인간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라는 사상을 밝혀주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이다.

그것은 혁명이 다름아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며 혁명을 하는 목적도 사람들을 위한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은 인간애에 바탕을 둔 사회변혁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반드시 인간애를 가장 중요한

정신도덕적풍모로, 필수적인 사상감정으로 지녀야하며 이러한 고상한 인간적풍모와 뜨거운 사상감정이 없으면 혁명가로 될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인간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열렬한 사랑으로 만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랑의 정치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라는것을 가슴에 새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복무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해나가야 한다.

전승의 《봄노래》

심봉원

낮에도 밤에도 설레이는
룡포리의 소나무 푸른 가지우에
불바람 사납던 전화의 그날
수령님 없어주신 봄정기 넘치는가

물기둥 치솟는 대동강 물결도
도선관으로 건느시고
폭격에 끊어진 림진강 철교도
흔들리는 야전차로 넘으시던 그 걸음으로
마식령 굽이굽이 포연을 헤치시며
룡포리에 찾아오신 수령님

노을이 불타는 소나무밭에서
전사들과 마주앉으시여
야전식사도 나누시고
화선오락회도 열어주시며
그들의 소박한 노래소리도
허물없이 들어주시던 그밤

포화 울부짖는 이 강산에
승리의 새날을 불러오시는가
한밤의 고요를 흔들며
수령님 조용히 부르신 《봄노래》여

포연에 거칠어진
전사들의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상처입은 강산을 어루만지며
끝없이 울려가던 그 노래

밤하늘의 별들도 내리며
귀기울이는 조국산천에
그윽한 진달래꽃향기
풍년새의 은방울 노래소리
아지랑이 피는 봄하늘을 펼치는가

아, 《봄노래》 《봄노래》
그것은 불속에서도 포화속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철석같이 믿는
드팀없는 조선의 신념
철의 의지였다

룡포리의 푸른 소나무밭에서
수령님 부르신 그 《봄노래》는
천리전선에서
미제를 때려엎는
멸적의 우리정으로 메아리쳤거니

세월은 흘렀어도
력사의 증견자로
룡포리의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끝없이 설레이며 전하고있다

전승의 봄
영원한 조선의 봄은
판가리결전의 그날에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
여기서 펼치셨다고

그리움의 바다

류희숙

7월은 어떻게 왔는가. 머나먼 자강땅의 장강마을에 오니 푸른 숲도 못잇을 그 사연을 안고 조용히 설레이고 창공을 날아에는 새들도 그 이야기를 담아 노래하는듯...

이해의 7월은 정녕 류다르게 찾아왔다. 록음질은 산발을 병풍삼아 그앞으로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길게 들어앉은 55동 마을. 눈부시게 회고정갈한 벽체며 현대적미감이 나게 조선식기와를 엮어 운치를 둔곤 새집뜨락에는 금빛으로 익어가는 살구가 파란 잎새들사이로 말끔히 얼굴을 내밀고 햇빛쪼임한다.

말그대로 신흥마을이 이고장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1월 북방의 첩첩 백설준령을 넘고넘어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었던것이다.

영광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집에 모시었던 몸매작은 금선녀성은 마디마디 걱정애 넘쳐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날은 정말 꿈을 꾸는듯싶었어요. 날새들도 땀땀 추위속에 깃을 펴지 못하던 그날 장군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실줄 그 누가 알았겠나요. 꿈속에서도 것처럼 뵈고싶던 장군님을 뵈온 우리 마을사람들은 소문도 없이 흑한의 추위를 뚫고 외진 이 고장까지 찾아주신 그 고마움에 서로 부둥켜안고 어쩔바를 몰라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의 외경애 어울리게 전기난방이며 전기부뚜막에 살림살이가 그쁘히 갖추어진 부엌이며 방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며 너무도 만족하시여 손수 방바닥도 짚어보시고 그러시다가는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며 이고장 사람들을 축하해주시였다.

이윽하여 밖으로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강너머로 시원히 펼쳐진 드넓은 포전을 따라 눈길을 주기도하시고 발전소호수의 은반우에서 스케트타기에 신이난 아이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기도 하시였다.

한참동안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강도인민들의 생활을 두고 것처럼 걱정이 많으시였는데 오늘의 이 행복한 모습을 수령님께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 거듭거듭 뇌이시는것이였다.

목이 메여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는 녀인의 눈가에 이슬이 고여 방울져내리고 도가도간 이어지던 말소리조차 흐느낌소리로 변하고말았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나의 눈굽도 축축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일시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파도쳐왔고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토록 넓고도 깊은 심증이 헤아려져 머리가 숙어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셨으면 북방의 외진 산고장에까지 오시여 수령님을 그리워하시고 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것처럼 절절하셨겠는가.

정녕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리움과 충효심은 하늘땅바다에도 비기지 못하며 력사가 아직 모르는 전무후무한것이다.

일년을 하루같이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일을 시작하시고 그 그리움속에 밤늦도록 일하시며 그러다 잠간 쪽잠에 들면 꿈속에서도 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 우리의 장군님.

그리움이 얼마나 크시으면 우리 장군님 일을 보시다가 문득 수화기를 들어 수령님을 찾아달라고 교환수를 부르셨겠는가.

기쁜 일이 생기여도 수령님부터 생각하시고 걱정이 하나 생겨도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새 로선을 세우고 새 정책을 작성하시여도 수령님을 그리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한해가 시작되는 올해의 정월초하루날 0시에도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부터 찾으시여 인사를 드리고 그길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스며있는 최전연초소를 찾으시였다. 그리고 전선고지의 그 흰 눈을 차우에 그냥 그대로 얹으신채 자강도에 대한 6천여리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지 않았던가.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공장파 마을, 사적기대앞에서 장군님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추억이였고 사무쳐오는 그리움이였다.

사회주의강행군의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열고 자력갱생의 불을 지피신 력사적인 6천리길은 그의 한없는 그리움으로 이어진 길이였고 수령님의 유혼을 끝까지 꽃피우시려는 억척같은 맹세와 결심이 다져진 절대의 신념과 의지의 길이였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노라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슬픔에 몸부림치는 온 나라 인민을 일떠세우시고 불철주야로 공장과 농촌,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밝혀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차창밖을 스쳐지나는 마을을 보시면 거기에 새겨진 수령님의 발자취를 마음속에 더듬어보시었고 그 길에 깃든 수령님의 로고를 잊지 못하시며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잠겨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생각하시였다.

초소길을 걸으시면 조국방선에 남기신 수령님의 심혈과 건군업적을 생각하시고 들길에 나서시면 이 땅의 포전길마다에 스며있는 수령님의 사랑과 농촌건설업적을 잊지 못하시며 그것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의지를 다지시는 우리 장군님.

실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삶의 매 순간순간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량없는 그리움속에 이어가시고 옮기시는 걸음걸음을 수령님에 대한 충효심으로 이어가신다.

그 그리움속에 수령님 다녀가신 이 나라의 고지와 초소들, 도시와 마을, 공장의 구내길과 농장의 포전길 이랑 하나하나들 다 밟으시며 그 자욱자욱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그리움의 샘줄기를 열어주오게하시지 않는가.

하여 이 나라의 오솔길도 두렁길도 길은 길마다

별은 별마다 그리움이 출렁이는 내물이 되고 강하가 되어 온 나라는 말그대로 그리움의 바다를 이루었다...

그리움에 잠겨 말이 없던 장강의 그 너인은 가만히 내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겨울의 강추위를 가슴에 다 안고가시였으니 봄도 일찍 오고 계절도 훨씬 앞당겨졌다고, 마을뒤산의 진달래가 보름이나 빨리 망울을 터치고 집앞에 새로 심은 3년생 살구나무 아지에도 첫열매들이 달렸다고.

《아마 장군님께서 안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깊고도 뜨거운 마음을 산천도 계절도 알았는가봐요.》

그것은 결코 자연이 이루어놓은 계절적현상만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하도 커서 자강땅의 빙설이 철을 앞당겨 녹아내리고 이른봄 씨앗이 움트고 차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으며 향기로운 열매가 무르익었다.

그 그리움은 저앞의 포전에서 울려오는 프락프르의 동음에도 실려있고 성강의 봉화높이 내닫는 철의 도시의 노을에도 불라고있다.

그 그리움은 또한 최전연초소들에 휘날리는 최

고사령관기에도 비껴있고 외진 농촌마을의 등판우에서 펴력이는 한쪽의 작은 붉은기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위대한 태양의 성지, 주체의 최고성지를 일떠세워 인류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충효와 도덕의리의 최고경지를 개척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 열화의 충정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

하여 이 땅에 끝없이 밝아오는 모든 낮과 밤들이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장군님께서 안으신 그 그리움의 바다에 실려 이 땅엔 영원한 수령님의 세월이 흐르고있으며 주체년호로 이어진 수령영생의 새 력사가 펼쳐졌거니.

이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걷는 이 나라의 그 어느 길도 그 어느 마을도 결코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거기엔 새겨져있다. 우리 장군님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남기신 무수한 자욱자욱들이 그리고 거기엔 펼쳐져있다. 수령님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위대한 충효의 세계,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폭들이.

그렇다.

우리의 장군님께서 안고계시는 그리움의 바다에 실려 어버이수령님께서 50년대에 지펴주신 천리의 봉화가 성강땅에서 대고조의 불길로 또다시 오르고 이 땅은 자력갱생의 노래높이 사회주의 행군의 최후승리의 봄을 마련했거니.

바로 그 그리움의 바다와 함께 어버이수령님 위업은 백프로로 계승되고 영광찬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의 존엄과 위상은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그 그리움의 바다에 뜻을 달고 세계의 수억만 인류망심이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을 찾아 조선으로, 평양으로 물결쳐온다.

그리움의 계절 7월!

정녕 7월은 우리 민족의 웅이졌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을 태양민족의 아버지로 대대손손 영원히 높이 모셔갈 충효의 맹세가 불타는 달이며 영생기원의 서사시를 새기는 달이다.

그리움으로 시작되고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우리 7월.

그 7월은 결코 흐르는 세월이 가져온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고계시는 한없는 그리움의 바다에 실려 이 땅에 봄이 오고 백화만발한 7월이 왔거늘, 그앞에 저 하늘땅이 어찌 설레이지 않으랴.

그 그리움의 바다와 더불어,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는 흐르고 흐르리라.

무궁토록 영원히...

만민의 사랑속에 영원하시라

-김일성대원수님께 드리는 노래-

미하일 베드로브

당신을 노래와 같으신분이라 한다면
그것은 적중치 않나이다
노래는 아름다와도 끝이 있거니
끝없이 거룩하신 당신을
어찌 노래에만 비기겠나이까

당신을 희망과 같으신분이라 한다면
그것도 적중치 않나이다
희망은 무지개처럼 찬란하여도
누구나 이루지 못하면 꿈처럼 되고말거니
한없이 밝은 예지로
세기의 장막을 헤치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당신을
어찌 희망에만 비기겠나이까

당신을 신성한 꽃과 같으신분이라 한다면
그것도 적중치 않나이다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로
만물을 현혹시키기는 하여도
찬바람 찬서리를 이겨내지 못하거니
불패하시고 필승하시는
당신을 어찌 꽃에만 비기겠나이까

당신을 깨끗한 샘물과 같으신분이라 한다면
그것도 적중치 않나이다
샘물은 끝없이 정갈하게 솟아나지만
언제나 차갑게 굽을 따라서만 흐르거니

경애하는 수령이시여
무한히 뜨거우시고
끝없이 현명하신 당신을
어찌 샘물에만 비기겠나이까

노래는
밝은 태양아래서야
기쁨과 즐거움에 차넘칠수 있고
사람들의 희망은
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고
모든 꽃도
은혜로운 태양의 애무속에서
피어나 향기풍기고
수정같은 샘물은
뜨거운 태양의 숨결을 받아서야
지심속깊이에서 솟아나거니
당신은 진정
위대한 태양이시여라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앞길 밝혀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 꽃피워주시는분
우리모두를 견줄데 없는 장수로 키워주시는
김일성대원수님
당신은 영원히 불타는 태양
찬란히 빛나는 만민의 태양
우리의 태양이시여라

(필자는 로씨야시인임)

11 월 29 일

(총련)남시우

날이여!
더없이 귀중한
11 월 29 일이여!

남의 나라에
자기 대학을 가진것은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하시며

조선대학교를
잘 지키고
잘 보존해야 한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대표단을 불러주시며
대학의 강령을 안겨주신 날

행복에 목메이는 손목을 잡으시고
그처럼 기뻐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수령님

급비생, 장학생은 몇명이나 되는가
물가고에 생활은 어렵지 않은가
흐리신 안색으로 물으시던 수령님

아
대학의 창립을 선포해주시고
오늘 이때까지 자래워주신

우리 수령님
어느 한때 어느 하루
마음 놓으신적 계시었던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 한이 있어도
교육원조비는 보내주어야 한다니며
심려하시는 그 은정속에서

대학은 뗏목이 제 얼굴을 펴고
배움의 요람으로

과학의 전당으로 자라나지 않았던가!

그러시면서도
그 모든 자랑이란 자랑
다 우리에게 안겨주시여라!

조선대학교는
고생끝에 얻은 락이라 하시여라
민족의 자랑이라 말씀하시여라!

오, 날이여,
유일해외대학의 위신 떨치며
승고한 사명을 새겨넣은 날이여 !

일년 열두달
삼백륙십오일이
모두 이날인것만 같아

우리는 엄숙히 묻는것이여라
11월 29일
이날을 잊은적 없었던가들!

언제나 기쁨속에 맞으리라

김영락

시련이 겹쌓일 때마다
강철의 성새로 당을 지켜온
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높뛰는 성강의 숨결을 듣고싶으시여
문득 소문도 없이 오신
우리의 장군님

먼길 오신 장군님앞에
어려움과 힘겨움은 단신으로 다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 드린 기쁨이 무엇이었던가 .
방물방울 떨어지던 자책의 눈물이여
안타까움에 젖고젖던 송구한 마음이여

쇠물을 끓이자!
전기रो와 함께 달고달던 성강의 맹세여
다시 올 땐 사진도 찍자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남겨주신 장군님
몸이 그대로 한방울의 쇠물이 되어서라도
장군님 안고계신 그 짐을 덜어드리자

쇠물로 온 나라를 덮자
쇠물의 봉화를 높이 들고
강철의 천리마를 창공높이 떠올리자
이것은 장군님 바라시는 믿음
이것을 장군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사

언제나 흐르리라 성강의 쇠물은
장군님 믿음을 아는 우리가 있는 한
강철의 산악으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받들며
성강은 언제나 순결한 쇠물처럼
환희의 노래만을 이 땅에 울리리라
성강은 언제나 장군님을 기쁨속에 맞으리라

눈보라 6천리

리영백

눈보라 6천리

눈보라 6천리

장군님 다녀가신 그 자욱자욱
걸으며 새겨안은 내 마음에도
대소한의 눈보라 울부짖는 6천리

그 어느 령길에 잠시 서도 들려와라
눈보라는 태질하며 길을 메워도
차를 밀며 가시던 그 발자국소리
내 가슴에 울려오는 봄우뢰소리

아, 백두의 거센 눈보라 호흡하시며
가슴에 지니신 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오로지 인민의 행복 위해
강행군 진두에 몸소 서신 장군님

눈깊은 골마다 다 찾으시여
제 힘을 떨치는 중소형발전소도 보아주시고
농가집 전기온돌도 손수 짚어보시던
숭고한 모습

바로 이 길이라고

우리 당이 밝힌 자력갱생의 길이 옳다고
만면에 환하게 담으시던 그 미소
최후승리의 봄빛되어 넘쳐흘렀나니

그 봄빛을 안고
길가의 막돌들도 번영의 디딤돌이 된듯
얼음밑에 강물도 행복의 불이 되어
사나운 눈보라도 뜨거워진 6천리여

너는 눈보라 헤쳐 장군님 열어주신
사회주의봄의 영원한 진격로!
너는 강성대국의 위용 만방에 빛내며
끝없이 내려쳐오를 조국의 6천만리!

봄빛넘친 이 땅에 꽃이 만발할수록
눈보라 6천리는
인민의 가슴속에 남아 녹지 않으리
조국의 력사우에 새 전설로 길이 전해가리

겨울밤의 불빛

눈보라 지동치는 강계역두의 밤
전선줄 전주대도 못참아
워- 위잉- 호랑이울음을 터치는데
온밤 꺼질줄 모르는 한점의 불빛

삼라만상은 눈무지에 묻히고
겨울밤은 밀창없이 깊어가건만
세찬 눈보라를 맞받아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숙영차의 불빛

당중앙의 불빛이
강행군의 최전선에 옮겨왔는가
이밤도 우리의 래일을 가꾸시며
잠 못드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낮에 만났던 그 일군들을 또 부르시여
중소형발전소 새 도안도 보아주시며

먼 바다가제강소에 전화를 거시여 .
걸린 고리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장군님 밝혀가시는 저 불빛아래
사나운 눈보라도 머리 숙이는듯
동터오는 새날의 노을이

성에불린 차창가에 비껴흐르나니

아, 밤모르는 인민행렬차우에 떠실린
나의 조국은
장군님의 심중에서 타오른 저 불빛을 안고
새 세기의 밝은 아침에 들어서고있구나

하나의 눈송이

눈이 내리네
강계길 걸으시는
장군님 어깨우에 내리던 눈송이
내 마음에 뜨겁게 내려쌓이네

한송이 두송이 내리고내려
못잇을 자옥을 새기여주네
강행군 진두에 몸소 서시여
난국을 타개하시는 장군님의 그 자옥

수령님 찬눈을 맞으시며
락원의 봄 꽃피우신 강선길 이어
장군님 찬눈을 맞으시며
최후승리의 봄을 펼쳐주시었나니

아, 인민위한 그 길에 끝없이 내리네
수령님 맞으신 강선의 눈송이
장군님 맞으신 강제의 눈송이
내 마음에 하나되어 영원한 봄을 주네

선반공의 말

말하지 못한 그의 가슴에
천백마디 뜨거운 말이 끓고있구나
묵묵히 그날을 생각하면 돌리는
전반의 힘찬 동음에서 나는 듣는다

말없이 소재와 바이트를 갈아몰리고
말없이 뚫어질듯 지켜보며
불꽃처럼 타는 그의 눈빛에서
그날의 뜨거운 속식임을 나는 듣는다

그 얼마나 뵈고싶던 장군님이신가
그 얼마나 아뢰고싶던 심정도 많았는가
그러나 생산계획을 못한탓에
기다리는 마음조차 죄스럽던 나날이건만

장군님께선 오시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차별하지 않는다시며
령넘어 가시던 길 되돌아오시여
환히 웃으시며 기대앞까지 찾아주시였다

그런데 글썽 눈물이 앞서
인사말 한마디 제대로 울리지 못했으니
아, 자식된 도리를 지키지 못한 그 아픔
잠자리에 누워도 잠들수 없는 자책감이여

그의 입은 더욱 무거워진듯
말없이 일손에 번개를 날리며
묵묵히 죄를 깎아도

천백마디 말을 속삭이는 불타는 눈빛이어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앞에 뗏뗏이 나설수 없음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가는 그 마음

온 넋을 선반기에 쏟아붓고있거니

날마다 달마다 계획을 넘어
그의 제품이 쏟아지는 소리에서
나는 듣는다 아버지장군님 우러러
실천으로 아뢰이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말을

사회주의보검의 섬광이 흐른다

산에 산이 가리워

아침해빛도 늦게 흘러드는곳
골안에 골이 깊어
저녁땅거미도 일찍 깃드는곳
여기 자강땅에 밝게 흐르는
불빛 하나도 무심히 보지 말라

랑림산줄기 이름모를 바위도

창끝처럼 치솟아 엄엄하고
장자강의 거센 물결도
쏟알같이 내달려 기세충천한
여기 자강땅 웅심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끓고있는지 아느냐

장군님 다녀가신 눈보라 6천리를

나는 걸으며 보았노라
강줄기마다 세운 발전소 물빛으로
불야성 이론 마을과 일터들에서
사람마다 밝게 웃는 그 얼굴들에서
사회주의보검의 섬광이 번뜩이는것을...

조선을 영영 어둠속에 잠그려고

밀려드는 제국주의광풍을 맞받아
산악같이 일떠선 철의 신념
인민이 주인된 밝은 세상 지키려고
장군님을 받들어
만난을 이겨나가는 견인불발의 의지

산높고 골이 깊고 어려움은 많아도

어찌 그늘 한점 깃들수 있으랴 .
제 힘을 믿고나선 그 심장들이
중소형발전소의 언제가 되고 발전기 되어
심심산촌 어데나 환히 켜놓은 불빛 불빛
태양의 성좌마냥 빛을 뿌리나니

아, 자력갱생의 불빛으로

광명에 찬 자강땅이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 높이 드신
사회주의보검의 섬광이 되어 흐른다
력사의 불의와 어둠을 불사르며
최후승리의 앞길에 빛발쳐 번뜩인다



총서작품창작을 계속 왕성하게 내밀도록 이끌어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참된 충신, 효자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권에 해당하는 《혁명의 려명》, 《닷은 울랐다》,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등 15편의 장편소설들을 높은 사상에 술적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창조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모든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높은 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품모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 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자 지체없이 작가들을 그의 련속으로 되는 해방후편 작품을 창작하는 새로운 전투에도 또다시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이 조치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영상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한 또하나의 위대한 발기로 될뿐아니라 우리 주체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의 기치를 더욱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참으로 현명한 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해방후편 작품창작을 맡기하시면서 그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시면서 해방후편 총서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특색있게 창조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를 형상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권과 다른 특징이 있다.

해방후 우리 나라는 사회발전단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우리 혁명앞에 제기된 투쟁과업도 크게 달라졌다.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과는 달리 해방후 우리 혁명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해방후에는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총서의 해방후편 창작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개척하는데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 혁명업적을 밝히는데 집중하여야 하며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령역을 유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대한 혁명활동내용을 포괄적으로 펼쳐보여야 한다.

또한 총서의 해방후편 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사이의 관계도 잘 형상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늘 당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전투의 앞장에 서기도 하시고 몸소 군중공작을 진행하기도 하시지만 해방후에는 주로 현지도의 길고긴 로정을 걸으시면서 인민들과 접촉하신다. 그러므로 총서의 해방후편에서는 연구자들과의

관계와 현지도과정 등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력사적사실에 충실히 의거하는 문제 역시 항일혁명투쟁시기편과는 좀 다르게 제기된다.

총서의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서는 체험자와 연고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취재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하여 예술적허구를 적지 않게 썼으나 해방후편창작에서는 해방후의 력사와 사변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있으므로 예술적허구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방후편 총서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명철한 대답을 주신데 이어 총서의 해방후편창작은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이 기간에 작가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예술적기량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직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새로운 총서작품창작에 들어선 작가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그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 전투를 벌리도록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작가들은 총서의 해방후편 첫 작품들로 해방직후 복잡한 정세속에서 민족간부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여 건당, 건국, 건군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보여주는 장편소설과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보여주는 장편소설을 창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의 총서를 창작한 경험도 있고 그 기간에 작가들의 창작적기량도 일정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나 생활무대와 시대적정황이 다른것만큼 창작과정에서는 역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롭게 시작한 해방후편의 총서창작에서 여러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두 장편소설의 창작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친히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이 작품들을 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방후 지식인전취와

민족간부해결 문제를 취급한 이 소설에서 력사적 사실과 예술적허구의 호상관계를 잘 처리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사실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품위있게 창조하는데 복무하도록 선택리용하며 력사적인물들을 고증된 사적자료에 맞추어 형상하면서도 현대성의 원칙을 지켜 형상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형상적으로 더 잘 부각하고 오랜 지식인들의 각이한 운명선을 더 깊이있게 파고들며 로동계급출신의 새 지식인들이 육성되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 《50년여름》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을 시대적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는 력사적인물들의 형상을 사실대로 교양성있게 잘 처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은정깊은 사랑, 고결한 인품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작품전반에서 전쟁도발자로서의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폭로단죄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전투장면을 지내 많이 설정하지 말고 해방을 맞은 남조선인민들의 감격과 민주개혁실시를 생활적으로 잘 보여줄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 장편소설은 성과적으로 완성되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총서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완성된데 이어 해방후편의 첫 총서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것은 주체문학발전에서 큰 경사로, 자랑으로 되며 우리 주체문학이 수령형상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성과로 된다.

그후에도 우리 작가들은 장편소설 《조선의 봄》, 《조선의 힘》, 《승리》, 《영생》과 같은 총서《불멸의 력사》중 해방후편에 속하는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체득시키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다시한번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남기고싶은 한마디외 1편

박경심

이 호수에 넘치는것은 물이 아닙니다
이날위해 구슬땀 아낌없이 바친
병사들의 노래입니다
금싸락처럼 귀중히 그 병사들을
안아주고싶으시던
이 못이 못다담은 장군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군대가 하는 일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나무랄데 없는 본보기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군대는
그 정신도 본보기
그 일숨씨도 본보기

세상엔 없습니다

이처럼 신비를 모르는 군대
건설과 창조의 보람을 아는 군대
승리를 위함이라면 총폭탄영웅이 되고
자폭영웅이 되는 군대

여기에 넘치는것은 물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조국땅위에 끝없이 울리고픈
내 노래의 씨앗들을 가슴 가득 거두며
다만 한마디만은 이 물결위에 남기고싶습니다

조국을 사랑한다면
인민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라고
우리 군대 우리 병사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어머님의 발자욱소리

7 월의 청제비들
품은 사연 아뢰일듯
초가지붕아래 소리없이 날아드는
칠꿀, 어머님의 고향집

떠나시던 그날의 어머님 열어놓으신듯
아직도 열려있는 사립문가에 서니
귀전에 들려오는 발자욱소리
이 프락을 마지막으로 나서시던
어머님의 그 발자욱소리인가

아득히 아득히
그 발자욱소리
어디로 멀어졌던가
타향에서 타향으로
그렇게 이어가시며 걷고 걸으신 길
천리였으랴 만리였으랴

머나먼 그 길의 단 한자욱도
자신을 위해서는 걷지 않으셨기에
못오시였구나 이 고향집에
천사람 만사람
하루같이 온 나라가 다 찾아와도
단 한분 우리 어머님만은

태양을 안아올리신 어머님이시여서
태양을 받들어 한생을 사신 어머님이시여서
생의 시작도 4 월
생의 마감도 7 월에 두셨는가

그처럼 조국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깡그리 심장을 불태우셨던가

뜨거움에 젖는 이 마음에
어려오누나 소사하의 작은 집
그 집에서 강반석어머님
두고온 고국산천 그리시며
사무치는 그리움만은
해빛에 실어 구름에 실어
고향집을 찾고 또 찾으셨으려니

아 발자욱소리
돌아와 이 집에 다시 잊지 못하셨어도
천리만리 조국을 찾는 그 한길
투쟁의 한길로만 이어진 그 발자욱소리
들려오누나 내 마음 가까이
언제나
그 언제나

가장 열렬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의 정점위에
영원히 있어두신 그 한생으로
사랑과 행복이 그 무엇인지
이 가슴에 깨우쳐주는 발자욱소리

아 어머님 강반석어머님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참된 인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아 어머님의 발자욱소리



우리 민족의 풍습을 귀중히 여기시어

주체70(1981)년 12월 22일이였다.

그날저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몇몇 일군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고 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모두가 미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덤덤히 서있는데 그이께서는 오늘이 동지날이여서 오래간만에 동지죽을 쑤었기에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였다. 그제야 비로소 그이께서 부르신의도를 알게 된 일군들은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배려에 목이 메였다. 동지날이라고 하면 년중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며 이날에 팔죽을 쑤어 먹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적풍습이였다.

한해 농사를 지으며 알알이 플라두었던 잘 영근팔이나 록두를 걸러서 별식으로 끓인 죽을 이웃들과도 나누고 온 식솔이 단란하게 둘러앉아 먹는것은 아름다운 풍습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가난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던 《죽》이라는 말을 회상하기조차 싫어서인지 오늘에 와서는 그런 풍습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한 일군에게 제 나이만큼 오그랑이를 들어야 한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단란한 분위기였다.

식사를 마쳤을때 그이께서는 이렇게 모두 한가마에 끓인 음식을 나누어 먹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도 알고 자기 향토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공산주의자가 될수 없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고 미풍량속을 살려나가는것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인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 민속으로 전해내려오는 명절이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신 일이 있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조선사람은 한가위에는 산소에 가는 풍습이 있고 수리날에는 온 동네가 모여 즐기는 풍습이 있는데 이런 풍습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유래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원래 우리 인민은 보름을 주기로 해마다 스물네번의 명절을 즐기였다. 그리하여 달마다 두번씩 돌아오는 명절에는 여러가지 놀이도 있었는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로동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기 위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절》이라는 말은 근대에 와서 생겨난것이고 그전에는 《월령》, 《속절》이라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속은 말그대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하였으며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로동의 보람과 미래에 대한 리상을 춤과 노래에 담아 즐기것은 근면하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표현한것이며 조상의 산소를 돌아보고 제사를 지내는것은 레절이 밝고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한것입니다. 이런것을 다 나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착취계급들이 민속을 저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악용하였기때문에 오늘에 와서 보면 민속에 종교적외피가 씌워지고 허례허식이 덧붙여졌는데 이런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살리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감정,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을 존중하고 그것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이 창조한 가치있는 우수한 모든것을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워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세계만방에 떨치시려는 숭고한 뜻이 뜨겁게 어려있다.

안고가노라

리창식

물안개를 휘감고
절벽가에 억세계
억세계 뿌리내린 소나무
폭포수의 웅웅한 기상에 어울려
력사의 그날을 오늘도 전하는듯

마주서는 가슴에
안겨주는 메아리
가슴 별게 한껏 안아보노라
쏟아지는 폭포수
장쾌한 물소리
김형직선생님의 숨결이 뿜이는듯
이름도 뜻깊은 지원폭포

통소에 넘치는 푸르른 정기
끝가득 올라가는 폭포수의 메아리
력사에 간직한 애국의 그 뜻
세월을 넘어넘어 전하고 전하려
아름드리 장송은 저리도 푸르른가

한번 더 소중히 살펴보노라
높은 뜻 새겨안은 이 물소리, 이 나무
걸음 앞서 이 마음 가고가노라
뻗어간 오솔길 그 자욱자욱을 살펴보며

이 길따라 선생님 이어가신 길
산넘어 몇천리인가

구름넘어 몇만리인가
아름다운 이 산천에 독립의 봄 주시려
력사의 새벽길 남먼저 헤치시며
자욱자욱 이어가신 애국의 뜻
오늘도 전하는 지원폭포

해방위한 성전에 한몸을 던져도
떨어져 장쾌한 이 폭포와 같고저
지원을 뜻을 지켜 한몸이 부서져도
메아리를 남기는 이 폭포와 같고저
김형직선생님 남기신 그 맹세
영원한 메아리로 울리는 지원폭포

안고가노라
안고가노라
폭포터에 간직된 선생님의 넋
래일을 위해 사는 그 뜻이 력력한
금문자로 높이 걸린 지원의 글발

아 세월은 흘러도
영원한 폭포의 이 흐름
변함없는 청송의 푸르름
그 뜻
그 절개 잃지 않으리니
안고가노라
영원한 내 삶의 나날에

나에게는 새날이 있다

정동찬

새날은
오는 소리도 없이
그 무슨 힘의 느낌을 안고 밝아오는지
푸름푸름 빛갈을 띠더니
온 천하에 건듯
막을 든다

세상에는
밝아오는 새날이 두려워
오히려 낮을 가리우는 불우한 사람들 많아

내 나라 지경밖에 넘쳐넘어 널려살 때
내 사는 탄전의 새날은
얼마나 청신한 화폭속에 시작되는가

저기 버들방천 숲속에 찢꼬리 날듯
언듯 자리를 옮겨앉는 처녀
즐겁게 흔들어주는 양어못 종소리
이맘때
흥겨운 종소리에 박자맞추어
흰김 서리는 저탄장 기슭에서 울려오는

로농적위대의 힘찬 행군가소리

제 삶을 가꿀줄 알고
제 삶을 지킬줄 아는 사람들
인간의 참모습이 움직이는
내 조국의 새날이어

어떤 날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감사가 내린줄
미처 모르는 새날
맑은 이슬 머금고
집집의 창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있었더란다

이런 새날의 부름과
기다려줌이
나에게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것이나
이토록 소중한 새날을
내 어이 자고깨면 스스럼없이 맞는다고 하라

과일나무 아지 휘도록 열리는
수확에 대한 기대속에 더더욱 그리워지는 새날
이 새날의 공간속에
나를 살게 해준
피어린 력사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노라면
차마 감지 못한 선렬들의 타는 눈길
내 집 창문에 닿고
그대들의 더운 입김
내 집 창가에 후덥다

력사는 분명
나에게 물었노라
인류와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인간의 붉은 피로 적셔진
수백만년 력사중의 한토막
이 하루에 사는
나의 책임을

이 하루에
내 갈 길을 모르지 않고
내 할바를 모르지 않노라고
좋은 생각

넓지 않은 량심으로
동지들속에 어울려사는 새날이
나에게 있노라고 대답하노라

만약 이 새날의 화원에 칼을 대는 원쑤가 있고
만약 이 새날의 나의 가정과 조국의 화목에
불질을 하는 침략세력이 있다면
내 선뜻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전호가에 나서는
그런 새날일수도 있으리

꿈속처럼
오는 소리도 없이
이 땅 끝에서 끝까지 열리는
이 새날에
삶의 좌표를 알고 나서는
아, 나의 행복이어

동시대인들아
창을 열라
온 천하를 건듯 들어올리는
새날의 무한한 힘은
오직 태양의 힘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아니여라
어느 특정한 한사람에 한한것 아니여라
이 땅에 사는 온 인민에게
이 태양의 힘을
웃음과 노래와 성실한 로동으로 주시는
새날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인사드리자

또하루
푸름히-
새날의 막이 열릴 때
양어못종을 울리는 저 처녀와 같이
행군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 로농적위대원들과
같이

위대한 태양 이끄시는 력사의 흐름에
한몸 다 바치는
나의 새날
살수록 그립고
살수록 아름다워지는
나에게는 이런 새날이 있다

양도어부

최봉무

동해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양도라는 그리 크지 않은 섬이 있다. 양도는 길주섬, 명천섬, 강굴섬이라고 부르는 세개의 섬이 의중계 둘러앉아 이루어졌는데 그 둘레는 10 리나 된다. 전쟁때까지만 해도 이 양도를 길주군 동해면 동오리라고 불렀다. 리소재지는 룡지쪽으로 치우친 그중 기온이 따뜻하고 키낮은 소나무들이 그림에서처럼 아름답게 서있는 길주섬에 자리잡고있었다.

세섬의 등성이라고 말할수 있는 길주섬의 언덕우에는 석비례를 다져만든 작은 마당을 안고 동쪽을 향해 빨간 이영의 기와집 한채가 앉아있다. 이것이 동오리수산합작사(일명 양도수산합작사라고도 불렀다.)사무실이다. 사무실 지붕우에 높이 세운 기발대에는 늘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해풍에 나뭇기였다.

섬사람들은 주체 36(1947)년 수산합작사를 조직할 때에도 그해에 있는 대의원선거도 이 집마당에 모여 하였고 력사적인 공화국선포소식도 이 마당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매달 어획고총화도 이곳에서 하였으며 물에서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영화도 여기서 마당이 배좁게 모여앉아 구경하였다. 외진 이 섬마을에 합작사가 무어지고 인민위원회가 선 다음부터는 섬사람들의 생활의 전부가 이 공화국기발아래 집중되어있었다.

양도사람들은 새벽잠에서 깨어 뜰에 나서면 먼저 합작사지붕우의 공화국기발부터 바라보군하였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사는 보람이 갈마들고 마냥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공화국기발을 올리던 날 모두 이 마당에 모여 기쁨과 환희에 북받쳐 구경하였는데 특히 김인순이나 최월송이 같은축들은 무권리에 짓밟히고 고역에 시달리며 상가집개만도 못하게 취급당하던 지난날이 자꾸 떠올라 눈물을 많이도 흘렸었다.

해방전 양도어부들은 거의 모두가 사포선주 유선철의 배를 탔다. 청진에 본소를 둔 일본놈정어리공장에 매달려 기업을 운영한 유선철의 섬사람들에 대한 착취는 가혹했다. 사자밥을 등에지고 고역에 시달리는 어부들과 그 식솔들에게 차례지는것이란 하루 세끼 누런 대두박덩어리와 고등어 대가리가 고작이었다.

수산합작사 관리위원장 김인순이나 양도토배기

어부인 최월송이 역시 그때 유선철의 배를 타고 고생이란 고생, 죽음의 고비란 고비를 다 함께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어느해인가 서울가서 공부하다가 정어리잡이구경을 왔다는 유선철의 둘째아들녀석(그의 이름은 유민호였다.)이 몹시 쇠약한 몸으로 후들거리는 두다리를 벌디디고 그물을 당기는 김인순이 맥을 못춘다고 발로 뽐나 질려 날바다속에 굴러떨어뜨린적이 있었다. 그때 최월송이 목숨을 내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그를 구원하였다. 그일로 하여 이들 둘은 친형제보도 더 밟게 지냈다. 두사람은 항상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로 생각했고 그 연고로 가족들도 한식솔같이 살아왔다.

어느날 동이 푸름푸름 틀무렵, 물과 멀리 떨어진 양도앞 앞섬근처에 거물같은 큰배가 떴었다. 군대를 실어나르는 함선같았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한 최월송이 김인순이네 집으로 달려가 문을 팡팡 두드리 깨웠다. 그리고 잠에 취한 그의 팔을 무작정 끌고 길주섬 언덕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뒤로 어른, 아이 할것없이 온 동네가 따랐다. 그때 북쪽에서 난데없는 비행기 두대가 날아오더니 호박같이 둥글둥글한것(기뢰)을 물에 떨어구었다. 잠시후 굉장한 폭음과 삼단같은 불기둥이 일고 그때로부터 한시간가량 지난 다음 배의 뒤꽂무니가 물속에 들어가고 이튿날 아침에는 앞머리마저 잠겨버렸다. 이것이 양도사람들이 본 일제가 망하는 광경이었다.

최월송은 애들처럼 엉엉 울면서 김인순의 가슴팍을 마구 두드리었다.

《야! 일본놈이 망했다. 유선철이가 녹아났어. 너도나도 우리 세상에서 본때있게 살아보자꾸나!》

둘은 술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붙어안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빙글빙글 돌아갔다.

인민정권이 서면서 김인순이와 최월송은 똑같이 당당한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으나 직무는 달라졌다. 이름자나 쓸줄 알고 세상물정에 밝은 김인순은 수산합작사 관리위원장(그 당시 동오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합작사 관리위원장이 겸했다.)으로 뽑히고 세포위원장사업까지 하게 되었다. 까막눈에 일밖에 모르는 최월송은 여전히 어부로

그냥 남아있었다. 최월송은 자기가 나라를 위해 할일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와 똑같은 어부를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준 인민주권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할뿐이었다.

합작사광고판에는 언제봐도 《최월송》이라는 이름이 크게 붙어있었다. 하지만 최월송이 나쁜 버릇 하나만은 고치지 못하였다. 그것은 술버릇이었다. 그것때문에 말을 듣는 때가 많았다.

언제인가 최월송은 명천섬으로 넘어가는 나루터의 언덕말에 틀고앉아있는 선술집에 들리어 짧은 패들을 휘둥해가지고 좀 과하게 마시고는 다음날 한나절이나 꾸벅꾸벅은 일이 있었다. 그때 김인순이 최월송을 합작사모임에 내놓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최월송이 이 사람! 왜놈때 속이 타서 술을 마시던 낡은 버릇을 아직 못버렸다. 응! 모두가 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맺자고 펄펄 뛰는 때에… 정신을 차리라구, 정신을…》라고 호되게 닦아세우고 게시판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렸다.

해방후 처음으로 섬사람들앞에서 《망신》을 당한 최월송은 며칠밤 잠을 자지 못했다. 덜렁덜렁하고 인정이 무르고 뒤가 없어 사람좋다는 호평을 받는 최월송이지만 이것만은 삭이지 못하였다. 그 모양을 보고 안해가 바른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이 그렇게 잘못이라면 조용히 만나 얘기해줄수도 있잖나?…》라고 소래기를 지르며 애꿎게 꾸짖질을 했다.

최월송은 아무리 마음을 능쳐놓고 생각해도 지난일은 다 잊어버리고 섬사람들의 사소한 일까지 조합모임에 빠짐없이 내놓고 《처분》하는 김인순의 속을 통 알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불만이 더 커지고 불이 부어올랐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수야 있나? 책상을 타고 앉으면 앉았지…)

며칠전에는 명천섬에 사는 박정근이가 물에 승인없이 나갔다 온 사실이 제기되었다. 김인순은 밤늦게까지 어유등을 켜놓고 왜정때 일공로동을 해먹던 버릇대로 빈둥거리서야 뒤겠는가고, 더우기 몇천섬 성인학교를 책임진 사람이 제멋대로 나다니니 사람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돌아가지 않았는가고 다불러세웠다. 사람이 숫져보이는 박정근은 죽었수다 하고 한마디 대꾸도 없었다.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박정근이 다리를 떨더니 풀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이 대대로 한적한 섬에서 화목하게 생활해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샀다. 회의가 끝나고 헤어져갈 때 박정근이 최월송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일이 빠졌수다. 모두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고 문맹퇴치를 하자고 끊는데 백주에 장에 나가다니… 볼길 맞아두 싸지요.》

최월송은 그의 말에 마음속으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관리위원장이 성격이 급해서 괜히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나.》이렇게 위안까지 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최월송은 전번에 김인순이 합작사모임에서 자기를 사정없이 대하던 일과 이번 일을 혼자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어쩐지 왜정때는 정말 살을 베어줄듯 살뜰하고 불같이 뜨겁던 김인순이 자기뿐아니라 섬사람들속에서 점점 《관리》행세를 하며 랭담하게 변해가는것 같았다. 더우기 내심적이면서도 대범하던 그 성미는 온데간데 없고 어부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나 하고 욕설이나 퍼붓고 바다사람답지 못하게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인간으로 생각되는 때가 많았다. 그것으로 하여 최월송은 분하고 더욱더 뺨머리가 뒤틀렸다.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었다. 최월송은 노을비낀 바다가 조가비가 허영게 깔린 모래톱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선창을 돌아보던 관리위원장 김인순이와 만났다. 최월송은 좋은 기회라고 《바다사람》답게 그에게 불만을 터놓았다.

《자네 사람이 달라진것 같아. 어떤 때는 꼭 유순철의 감독놈같이 뵈단말일세. 사람이 잘아지구, 인정사정이 없어지구… 전번에 박정근이가 물에 한번 승인없이 나갔다오면 왔지 이 좋은 제도에서 그다지 기승을 부릴 필요야 있나? 꼭 찍어 말하면 왜놈세상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끼리말이야.》

최월송은 자기의 말투가 류달리 투박하고 목침같이 꺾어지다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기가 대바르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더욱 코를 세우고 다가들었다. 그러나 김인순은 침착하였다.

《월송이 자네두 합작사주인답게 처신을 잘해야 되겠어. 해방이 됐다고 모두 코빼지 않은 송아지마냥 흥청거리며 제멋대로 살아서야 되겠나?》

자네두 합작사지붕에 공화국기발을 띄울 때 눈물을 흘렸지. 그때처럼 마음을 다잡구 주인구실을 해야지.》

《내가 주인구실을 못하다니?…》

《목에 땀수건을 걸치구 선술집에나 드나들어서야 무슨 주인구실이야. 어획고나 올리면 다 되는 줄 아나?! … 이 섬에 선술집을 세운것두 박정근이와 자네가 아닌가.》

《뭐뭐... 내가?》

《그렇지 않구. 술장사군인 강과부를 섬에 끌어 들인 박정근이 풍에 덩달아서 그 너자의 이사집을 배로 실어온 사람이 자네가 아니구 누군가. 다 같구 같지.》

《그럼 그 선술집을 왜 당장 없애치우지 못해? 응!-》

《아직은 안돼. 관리위원장이 뭐가 돼서... 내 그때 합작사만 조직되지 않았어두 가만두지 않았을건데...》

김인순은 최월송을 등지고 바다쪽으로 돌아서서 말하였다.

《관리위원장이야 권한이 있지 않나.》

《나는 쇠쇠한 일이라두 마음대로 혼자 처리할 권리가 없어. 인민정권이 있고 합작사가 있는 조건에서 ... 인민정권이나 합작사만이 모든것을 옮겨 처리한단말일세.》

《응- 그래서 박정근이두 나두 죄수처럼 내세웠군. 알겠네, 알겠어. 사람이 오늘은 살아도 과거를 돌아볼줄 알아야 하네.》

격한김에 길가에 침뱉듯 이런 말을 내뱉었으나 최월송은 사내답지 못하게 덕을 입힌 지난 일을 상기시키는것 같아 머리가 아팠하였다.

《...》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뭇인가 생각하면서 서있던 김인순이 아무말없이 선술집앞으로 해서 합작사 사무실로 올리걸었다. 뒤집을 지고 언덕반이로 올리건는 뒤모습을 보면서 최월송은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는 혼빠진 사람처럼 잠시 멍청하니 서있었다.

석달후에 전쟁이 일어났다. 해군에 나가면 한몫할수 있다고 우겨대면서 마을 젊은이들을 따라 도에까지 갔던 최월송은 나이도 많은데다 유순철의 감독놈한테 노대로 얻어맞아 부러졌던 왼쪽다리에 대해 너무 솔직히 말한탓으로 그만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되돌아오고말았다. 그 일로 해서 고민하던 그는 한동안 풀이 죽어 고개도 들지 않고 수직수직 일만 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이 외진 섬은 파도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뿐 아직 전쟁이라는 기분을 느낄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이었다. 바다가 바위등에 앉아서 담배질을 하며 날뽀기를 기다리던 최월송은 수평선 한끝이 휘뽀히 들리기 시작하자 사돌선에 올라 검푸른 바다로 노저어나갔다. 문어소재를 건지려 가는 길이었다. 컴컴한 바다물에 노

대를 깊숙이 박고 스펙스적 저어나가는 그의 마음은 자못 흥에 실렸다. 이런 때면 기분이 잡치던 그 어떤 잡념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날도 조반전에 배머리가 푹 잠기도록 무드기 싣고 돌아올 욕심으로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불렀다.

어허- 어허야- 노저어라

도래굽이 문어동네

어서 가서 타고앉자

어허- 어허야- 노저어라

창경쓰고 작살 들고

배전넘게 건져보세

어느덧 배는 《문어동네》라고 불리우는 강굴섬과 명천섬사이 돌이끼 푸른 도래굽이에 이르렀다. 섬사람들은 이곳 물밑에 기묘한 바위와 해초가 많아서 문어, 해삼, 생복, 섭 등이 우글우글 서식한다고 그렇게 불렀다. 노래를 멈추고 수면위에 한뼘이나 되게 창경을 잠근 최월송은 해초가 무성한 바다밑을 훑으며 늘어놓은 삼바줄을 당겨 문어소재를 건져내기 시작하였다. 얼마쯤 줄을 당겨 올리던 그는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풍에 절은 최월송의 철색갈의 불편살이 푸들 푸들 떨렸다. 갑자기 터져오르는 울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는 거친 숨소리가 두툼한 입술사이로 새어나왔다. 긴 삼바줄에 주련이단 문어소재가 절반이상이나 끊어져나가고 몇틀 남지 않은것마저 삼검불같이 되고말았던것이다. 너무도 뜻밖이고 너무도 별난 일이었다. 멀리에 치우거나 상어떼가 지나가도 이 지경을 만들어놓을수는 없겠는데 참말 이상스러웠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이가 없을뿐이었다. 배밑창에 털썩 주저앉은 최월송의 검고 부리부리한 눈에 눈물이 그렇하니 고이었다. 합작사를 무을때 남들은 매생이를 가지고 들어온다, 어구를 가지고 들어온다 기분을 돈구는데 그는 알몸뚱이로 들어가는것이 궁색하여 가산을 털어 판 돈으로 사포장에 건너가 사다가 바치고 마음의 위안을 받은 문어소재들이었다.

최월송은 자식을 잃은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눈앞이 캄캄하고 궁냥이 트지 않았다. 그러나 하는수 없었다. 한동안 앉아서 주먹으로 애꿎은 배전만 치던 그는 어깨가 축처져 사돌선을 돌려세웠다. 노대를 잡았으나 맥이 빠져 노를 바로 저을수 없었다. 노대는 배전

에서 삐걱거릴뿐 배는 바다물에 붙어 전진하지 못하였다.

사돌선은 해가 수평선에 붙은 떠오를 림박에야 길주섬 모래톱에 들어설수 있었다. 최월송은 얼른 배를 선창에 갖다대지 못했다. 뜻밖에도 관리위원장 김인순이 면에서 온 낯선 두사람을 데리고 선창에 나와있었던것이다. 김인순이로서는 모범로동자 최월송의 일숨씨를 보여주자는 심산같았다. 그런데 일은 참 난처하게 되지 않았는가. 관리위원장과 같이 온 한사람은 면당위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면내무서에서 온 사람이였다. 해방이 돼서도 웃기판에 한번 출입해보지 못한 최월송이로서는 두사람 다 초면이였다.

김인순은 숯덩이처럼 얼굴이 검کم해지고 기분이 잡쳐진 최월송을 보고 정색해졌다.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더라도 물위에만 뜨면 언제이던듯이 노상 호합진 웃음밖에 모르던 최월송의 성미를 알고있는 관리위원장인지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류달리 굵게 킁킁 갑자르며 선창에 배를 비끄러맨 최월송은 몇틀 안되는 문어소괘와 창경을 들고나와 모래불에 내동댕이치고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김인순이 가까이 다가와 죽은 말 들여다보듯 한심하게 된 소괘를 어처구니없이 들여다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넌들 알게 뭐요. 멀기가 들이닥쳤는지, 상어떼가 후려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우다.》

최월송이 속상해서 하는 푸념이지만 김인순은 상관없이 얼굴이 검푸르려졌다. 풍어는커녕 조합재산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았으니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은 울컥하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조용히 대하였다.

《꼼꼼히 생각해보오. 누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던가.》

그 순간에 최월송의 뇌리에서 어질고 순박한 섬사람들을 불신한다는 생각이 불쑥 살아나 뱀머리가 뒤틀렸다.

《뭐요?! ... 손을 대긴 누가 대겠소. 관리위원장은 한뼘 죄잡그는 법을 모르고 살아오는 자기 섬사람들을 그렇게 보오? 소괘가 천냥인들 어떻게...》

얼마쯤 떨어져서있는 두 손님은 이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고 저들끼리 무슨 말을 주고받고있었다. 목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최월송은 가까이 서있는 손님들때문에 어

찌는수없이 입을 꼭 다물었다. 김인순이 역시 최월송이 생각했던바와는 달리 몹시 음성을 낮추었다.

《참 이상스러운 일이구만? ...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소. 무책임하단말이요. 변상하오!》

최월송은 변상하라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인순의 입에서 튀어나온것이 가슴을 저미는것같이 아팠다. 그는 자신을 더 자제하지 못하고 용수철 튕겨나듯 별떠덕 일어섰다.

《변상하라구?!... 내 돈으로 사서 들여놓은것인데두...》

금방 이 말이 입밖으로 튀어나가는것을 겨우 삼키었다.

《변상하지 않구. 일단 합작사에 들여놓고 등록한건 조합재산이지 최월송이 개인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김인순의 인상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같이 온 두사람의 눈길은 큰 랑패를 본 최월송에게로 쏠리였다.

《...》

최월송은 어이없고 너무 분통해서 주먹을 틀어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뇌리에는 문어소괘를 밤새껏 안해를 설복하여 가산을 털던 일, 사포장에 나가 팔지 않겠다는 소괘를 씹씹하여 사서 사돌선에 무드기 싣고 《관리위원장 인순이 좋아할거야.》라고 기쁨에 넘쳐서 배길에 굵튼것만 같던 일이 떠올라 눈앞이 뿌잇해왔다.

《좋수다. 내 바질 벗어서라두 변상하지.》

막상 이렇게 내뱉고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았다. 그는 뺨 돌아서 창경과 작살을 둘러메고 구부정해서 선술집앞으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선술집 처마끝에 데롱데롱 매달렸던 술등이 작살끝에 부딪쳐 《쟁가당!-》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에 문을 걸어차고 나온 강과부가 당장 죽어가는 소리를 내지르며 아부재기를 쳤다.

《애고고. 이런 상변이 있소. 당장 변상해. 변상!-》

《또 변상이우.》

최월송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명스럽게 한마디하고 지나갔다.

다음날 최월송은 모래톱에 퍼더버리고 앉아 살틀에 드리워놓은 그물을 손질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누령이》가 나타나 허리춤을 빙빙 감돌며 반갑다고 킁킁거렸다. 집에서 누가 나온것 같았다. 돌아보니 낚바리를 싣 점심보자기를 들고 안해가 영 기색이 좋지 않아 등뒤에 서있었다.

《사무실에 들어가보시구려. 관리위원장아주버

니가 사람을 보내왔군요..》

《무슨 일로 한창 일할 대낮에 찾아?》 최월송이 따진 그물코를 맞잡아 매며 뇌까리듯 중얼거렸다.

《면내무서에서 찾는 모양입니다.》

《내무서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무서에서 찾아? 내무서에서?》

최월송은 깜짝 놀라 다잡던 일손을 놓으며 정색해서 눈을 치떴다.

《보나마나지요. 그놈의 술버릇이 아니면 문어소매때문이겠지요.》

안해의 그 말에 최월송이 대번에 우뚝하였다. 당장 그 무슨 기동부리라도 뿔을찔처럼 기상이 험악해지고 이따금 볼수 있는 피박한 성격이 드러났다.

《가겠소. 내가 뭘 잘못했소거니 내무서에서 호출한단말이요.》

성이 똑같이 오른 최월송이 욕하는 성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썩 일어나 노대를 쥐고 선창에 매놓은 사돌선이 있는곳으로 황황히 걸어갔다. 안해는 점심보자기를 든채 따라가며 관리위원장 아주버니가 합작사에 들렀다가라고 했다고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러자 그는 말뚝처럼 우뚝 서더니 따라서는 안해에게 내심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뭐?! - 합작사에 들렀다가라고? 인젠 나라의 법을 빌어서 콩밥을 먹이려고 해? 그런 사람한테 뭣하러 들러. 내 갔다와서 아예 인연을 끊던가 섬을 뜨던가 매련을 보구말겠소. 그런것두 난 사람들이 관리위원장이 어쩔소 해두 두둔해졌소. 그러구는 조용히 찾아가 이런건 너무하다, 이런건 어떻게 하자고 얘기두 해주구... 관리위원장자리에 앉고 리위원장까지 되니 이 최월송이보다 조합재산이 더 중하겠지. 그 사람 인젠 배렸어. 제 벼슬자리밖에 모르는 너구리가 댔단말이요. 너구리... 그간 문어소매가 뭐라구. 그래 날 내무서에 송사질해서 시원한게 뭐요? 난 김인순이 없는 날 생각해본적이 없어!》

최월송이 제풀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하지만 안해는 언제봐도 침착한 그 낫색 그대로였다.

《거야 가봐야 알게 아니예요. 무슨 일로 찾는지... 내 봄에도 관리위원장아주버니가 당신 사람되라구 늘 이르는것 같습니다.》

《흥, 듣기 싫소. 아무리 까막눈이기로서니 나이마흔을 건사하게 된놈이 사람이 못됐으면 짐승이 됐겠소. 배놈이 술을 좀 마셨으면 마셨지 어쨌단

말이요. 문맹퇴치두 그렇지. 그래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했소. 세상에 애비에미 다 죽고 이집저집 기웃거리며 밥빌려 다니던놈이 어떻게 공부해. 전 그걸 몰라서 그러나. 그 몸쓸 왜놈의 세상때문에...》

한참이나 제풀에 열을 올려 창연하게 토설하던 최월송의 눈에서 주먹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걸 보니 안해도 가슴이 저렸다.

《공부하라는거야 관리위원장아주버니가 해숙애빌 생각해서 그러는게 아니나요.》

《그래서 내 두덜거리면서도 갓 마흔에 네편네궁둥이 붙잡고 성인학교에 가는거 아닌가.》

최월송이 푸들푸들 떨리는 아래입술을 감쌀며 이렇게 서글프게 한마디 뺄고는 돌아섰다. 안해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배에 내려선 최월송은 노대를 선창에 대고 끄하고 힘을 주었다. 사돌선은 거침없이 푸른 물결위로 미끄러져나갔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안해는 그제서야 자기가 점심보자기를 들고있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머리로 흔들어 보이면서 안타깝게 손짓하였다. 그러나 배는 점점 작아지더니 하나의 점으로 보였다.

최월송은 이틀만에 물에서 돌아왔다. 그날밤 그는 누릿한 토벽에 매단 어유등을 마주하고 앉아 밤깊도록 담배만 빼금빼금 빨아 삼키었다. 그는 몹시 흥분하고있었다. 졸음을 실어오는 가물거리는 어유등불빛도 그를 인차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 도군사동원부를 찾아갔을때 잠을 못자던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때는 오로지 새조국을 위하여 미제침략자들과 한몸 바쳐 싸울 흥분이였다면 지금은 그것과는 달랐다. 어서 자라고 재촉하던 안해도 이제는 로콜이 든 사람처럼 안아가도 모르게 입을 하 벌리고 굳잠이 들어 버렸다.

벌써 자정이 넘었다. 생각할수록 허전하고 아니꼬움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안해의 말에 의하면 그날 오후에 관리위원장 김인순이 최월송이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곧장 면에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와서 말없이 한동안 담배질을 하다가 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새 두번이나 들렀다갔다.

어슬녁에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꿈무니에 곡주를 한병 차고 다시 찾아왔으나 최월송은 《뭘하러 찾아왔다. 법을 다루는 내무원도 김인순이보다 나아.》하고 끝내 만나주지 않겠다고 헛기침만 하며 등을 돌려대고 앉았다.

그러자 김인순이 《정 이렇게 애를 먹이겠는가. 그럴라면 이 섬에서 썩 사라져!》하고 대청을 구르며 성을 냈다. 그러다가 술병을 그냥 평가치고 돌아섰다.

그제서야 최월송이 문득 면소비조합상점에 들렀다가 쌍둥이처럼 자라는 해숙이와 동갑인 정화의 귀여운 모습이 떠올라 사온 꽃신이 피륙 생각나서 당반에서 그것을 집어들고 따라나서며 김인순이에게 이걸 가져다 딸애에게 신겨보라고 소리쳤다. 김인순이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월송이 《차, 저사람이, 가져가라는데두… 애들한테야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김인순이는 또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둡속으로 사라졌다.

《헛참…》

최월송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는 이따금 옛정이 지내 두터운 까닭에 이렇게 노여움이 크다는 느낌을 받고있었다. 그럴수록 자기도 모르게 더 심보가 삐뚤어지고 엇드레질을 한다는것도 문득문득 감촉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이번처럼 선명하게 느껴본적은 없었다.

최월송의 머리에는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엉켜 돌아갔다. 그가운데서도 면내무서에 나가서 받은 인상은 매우 컸다. 자기를 친절히 맞아들이고 잃어진 문어소왜상태와 명천섬과 강굴섬 사이 《문어동네》해저에 대하여 차근차근 료해한후 반동놈들이 작간할수 있으니 경각성을 높이라고 무딘 눈을 띄워주면서 떡국집에 나가 점심식사까지 대접해서 돌려보낸 내무서일꾼들의 소행이 정말 고마웠다. 그랬어도 김인순에 대한 고까움은 어쩐지 풀리지 않았다.

최월송은 온밤 담배를 갈아불이면서 끙끙 모지름을 썼다. 지나온 추억들이 자꾸 되살아오르며 심장을 아프게 앓아내리었다.

관리위원장네 집에 정화의 꽃신을 가져다주고 돌아와 저녁술을 농자바람으로 군잠이 든 안해는 칼칼한 매연에 개끼여 기침을 토했다. 그러다가 남편의 행실이 무언가 못마땅한지 미간을 찡그리며 돌아누웠다. 그 모습을 보고 최월송은 사발만한 《왕골뱅이》(재털이로 썼다.)에 담배불을 비벼졌다.

생각은 자는 안해에게로 가닿았다. 몽당치마를 걸치고 맨발벗은 처녀로 미역을 따던 그를 김인순이 중매로 안해로 맞아들이고 생활을 꾸린지도 10년이 지났다. 그간 최월송은 안해를 끔찍이도 사랑해왔었다. 이들사이에 달덩이같은 딸애가 태

여났고 그애 이름도 김인순이 《바다 해》자를 붙여주었다. 그애가 벌써 10살이 되었고 지금은 물에 사는 외할머니네집에 가서 학교를 다니었다. 그래서 1년남짓한 기간은 《신혼생활》을 하고있었으므로 안해는 출창 도래굴이에 붙어살았다. 여간 극성스럽지 않았다. 글썽 전달에도 대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미역, 다시마, 해삼, 썬, 생복등을 혼자서 두툼이나 따서 소문을 냈다.

최월송이 애용하는 《왕골뱅이》도 안해가 미역을 따다가 건져낸것이였다. 모름지기 30~40년은 묵은것 같았다. 나팔통처럼 생긴 야구리에 진주빛색같이 깔린 《왕골뱅이》가 갈노전이 알른거리 는 방한가운데 놓이니 섬집기분을 한껏 돋구었다.

언제인가 박정근이 영화구경하러 합작사에 넘어왔다가 돌아가던 길에 퇴마루에 앉아 쉬여간적이 있었다. 최월송이 내놓은 《부용》(썩래기담배)을 장지가락처럼 크게 말아 태우다가 《왕골뱅이》를 눈여겨보던 박정근이 그것을 집어들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꽤나 마음에 들어했다. 최월송은 못본체하고 담배만 풀풀 태웠다. 마음후한 최월송의 입에서 뭇 그렇게 웅색하게구나, 어서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만 기다리던 박정근이였다. 그는 더 참지 못하였다.

《형님, 이거 참 묘하게 생겼수다. 구미가 동하는데요.》

그말에 최월송이 눈이 둥그래졌다. 통이 크나 어떤면에서 보면 고지식하기가 애들같은데 있는 최월송이 능글스러운 박정근의 말에 어쩔바를 몰라하며 재털이를 자기 무릎앞에 끄당겨놓았다.

《하하하… 뭇 그렇게 떠시오. 형님답지 않수다. 내 아무리 도덕없는 놈이기로서니 아주머니 <진상품>을 들구가겠소.》

박정근이 이렇게 사람 좋게 중얼거리고는 한마디 더 하였다.

《형님, 나때문에 너무 속을 쓰지 마우다. 내 미련한놈갈애도 형님 속을 다 아웨다. 전번에도 나때문에 형님이 관리위원장한테 사포선주 유순칠이 같다고 들여뒀다던데… 고맙기는 하나 그러다가 관리위원장 눈에 나겠수다. 관리위원장이야 형님이나 나하구야 처지가 다르지 않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최월송이 이 말에 박정근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 속내가 참말 어른스러웠다. 사람이 저쯤 속량이 넓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자기가 너무 웅졸하게 여겨졌던지 《왕골뱅이》를 그앞에 쑥 밀어놓았다.

박정근이 씨래기를 한대 말아들고 《아아 그만두 오다. 세상 부러운것이 없이 풍청거리던 유순칠이 같은놈두 왕골뱅이재털이를 큰 보물처럼 여기던데… 형님 내 오늘은 그냥 돌아갑시다.》라고 웃으며 일어섰다. 그때는 그런가부다 하고 넘겨버렸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발언이 이상스러웠다. 누구도 들여다볼수 없던 유순칠이네 집에 그런 《보물》이 있었다는것을 이고장 토배기도 아닌 박정근이가 알리가 없겠는데… 참 모를 일이었다.

최월송이 이런 생각을 굴리는데 안해가 뭐라고 잡꼬대를 하다가 제깍에 놀라 눈을 뜨더니 얼굴을 쩡그리었다.

《아직두 담배질이요?》

《잠이 와야지… 아무래도 내 술을 좀 삼가해야겠어. 아까 인순이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했지. 그런데 그놈의 술집이 딱 길목에 있어놔서 참…》

남편한테서 자기 회심의 말을 처음 듣게 되는 안해는 미간에 밝은 빛을 띄우며 일어나앉았다.

《당신 진짜 삼가하라구요. 그러다가 큰 화를 입겠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듯 안해가 영치밀이로 다가와 최월송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그 강과부가 몸이 좀 달라진대요.》

그 말에 최월송이 깜짝 놀라며 눈이 둥그래졌다.

《뭐?!-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 뽀뽀한 소리들이 돌아가요.》

《무슨 끔찍한 소리… 당신 어디가서 절대로 그런 말 마오. 내 보기에는 파부가 되여 술장사는 해먹어도 마음만은 고운 여자갈애. 괜히 수작질하기 좋아하는것들이 뜬소리를 주어들구…》

최월송이 손을 내저으며 오금을 박았다.

《당신하구 박정근이밖에 그 술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누가?…》

《뭐 내가?》

최월송이 불에 덴 사람처럼 펄쩍 뛰다가 어치구니 없었던지 입만 하 벌리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얼굴빛이 서리박힌 언땅처럼 심각히 굳어졌다. 장사질을 하느라고 남쪽으로 몇번 왔다갔다하다가 판너자와 정분이 나서 해방이 되면서 아예 가버렸다는 남편에게 쌍욕을 퍼붓곤하던 강과부의 곱살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쨌든 불쾌한 일이었다. 안해에게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관리위원장의 말마따나 박정근이 풍에 강과부를 섬에 끌어들이는데 맞장구를 친것

이 후회되기도 하였다.

《헛참…》

최월송이도 안해도 아름답지 못한 기분에 싸여 잠시 말이 없었다.

바로 이때 문밖에서 씨근덕거리는 숨소리가 나더니 《최아주버니!-》하고 찾는 너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귀익은 강과부의 목소리였다.

최월송이 문을 열고보니 강과부가 잔뜩 만취한 박정근이를 마루청에 킁 하고 앉혀놓는것이였다. 그리고 할딱거리며 《글쎄이 량반이 노상 드러누워갈 생각을 안해요. 좀 재워 아침에 넘겨보내요. 남들이 보면 뭐라겠어요.》라고 한마디 던지고 어둑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최월송이 내외는 미처 말한마디 못하고 그저 강과부의 뒤를 바라보았다.

박정근이 무어라고 혼자소리로 투덜거리며 방안으로 기여들어왔다. 최월송이 내외가 옷방에 올려다 포대기를 펴고 그의 팔을 거들여 그우에 눕혔다. 그러자 그는 약간 정신이 들었던지 최월송이를 알아보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아! - 이거 내가 형님집에 왔수다레. 그 강과부년이 인정두 없지… 꼭 관리위원장갈터란 말이유. 풀썰기같은 년…》라고 쭈알거렸다.

《무슨 쓸개빠진 소리.》

최월송이 껍 소리를 지르고 돌아앉았다. 기분이 상쾌하지 못했던지라 모든것이 귀찮았다. 그래도 박정근이 혀아래소리로 《인민정권이 서니 좋구나. 이렇게 마음대로 마시구… 관리위원장이 괜찮지. 형님을 내무서에 보내구두 세포회의에서 월송이를 당에 받아들이자고 제기했다는데…》라고 웅얼거리더니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하고 노래까지 불렀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최월송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해가 들을가봐선지 미달이사이문을 홀탄아버렸다. 하지만 관리위원장이 최월송이를 당에 들이자고 제기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뜨끈하였다.

《참, 사람두…》

최월송은 속이 답답해서 옷방문을 열자고 하다가 옷을 벗기고 눕힌 박정근이 감기라도 걸릴것같아 그만두고 머리가 시원하게 바람이라도 좀 쏘이자고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별무리 총총한 밤하늘에 달이 밝았다. 그는 합작사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멀리 동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별들이 도골도골한 재빛하늘을 배경으로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이 보였다. 그밑의 합작사사무실 피창에 불빛이 희미하였다. 관리위원

장이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월어획고를 알이 굵은 누런 나무수관을 내놓고 텅기고있는것 같았다.

어쩐지 그를 찾아가 제잘못을 털어놓고 이야기 하고싶은 생각이 문득 갈마들었다. 허나 밤도 깊고 또 돌이 마주앉으면 뻔한 일을 가지고 네 옮겨니 내 옮겨니 괜히 엇드레질을 하며 시간만 보낼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하여간 이밤은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번거로웠다.

멀리 원산앞바다쪽에서 《쿵!- 쿵! -》 함포소리 같은것이 이따금 울려왔다.

하루...이틀... 이렇게 며칠을 넘기다가 요즘은 전선형세가 변하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이 내리고 관리위원장 김인순이 정신없이 돌아치는 바람에 이야기할 짬도 없었다.

그제 저녁에 면에 나간 관리위원장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후퇴하겠다고 남모르게 주섬주섬 짐을 싸는 집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방후 다섯해동안이나 안착되고 정을 붙인 섬을 뜨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전쟁이라 해도 최월송의 일과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의 사돌선은 매일 풍어였다. 어둑새벽에 집을 나서 도래곶이에서 미역냄새를 맡으며 장쾌한 해돋이를 맞는것이 락으로 습관된 그는 아무리 곤해도 닻이 세화를 치는 무렵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었다. 조반전에 한도래를 훑으려고 나서니 컴컴한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하고 선술집 술등만이 그 무슨 신호등처럼 벌거우리하였다.

최월송은 창경과 작살을 둘러메고 술등을 눈대중하여 선창으로 뻗은 언덕길을 스택스적 내리걸다가 무심결에 합작사사무실쪽을 돌아보았다. 사무실 피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엿저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던 관리위원장이 밤중에 돌아올수는 없겠는데 참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김인순이 아니고서는 날이 썰무렵까지 저렇게 불을 켜놓고 있을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리위원장이 밤바다를 노닐하여 매생이로 건너온것이 틀림없었다.

최월송은 전선형세때문인지 별스레 관리위위원장을 만나고싶었다. 그는 주춤 섰다가 돌파서 합작사사무실로 올라갔다. 관리위원장 토방앞에서 두어번 마른기침을 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니나다를까 김인순이 여유등을 낮추고 책상에 마주앉아 수관알을 텅기며 무슨 장부를 작성하다가 깜짝 놀라며 최월송을 쳐다보았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엇저녁에두 불이 켜져있지 않던데 언제 돌아왔나?》

《좀전에 ...》

《뭐라구?! 아무리 급한 일이 있기로서니 캄캄한 밤바다를 건느다 어쩔려구... 사람두 참.》

최월송은 큰일이라도 날번했던듯이 이마살을 찡그리며 질책하였다. 투박한 그의 말에는 애정이 어려워 뜨거웠다. 하늘도 바다도 온통 먹물을 풀어놓은듯 한빛이 되어 사방을 가늠하기 힘든 밤에 귀신몰래 고기밥이 될지도 모를 30 리나 되는 바다를 건너왔으니 최월송인들 겁이 나고 소름이 끼치지 않을수 없었다.

《고맙네. 그러지 않아도 내 날이 밝으면 자네를 찾으려던 참이었네.》

《무슨 일루?》

최월송은 관리위원장의 책상앞에 걸상을 당겨 놓고 마주 앉았다. 김인순이 철필을 잉크단지에 꽂아놓고 심각해서 최월송을 쳐다보았다.

《뭘니뭘니해도 어려울 때 먼저 찾게 되는게 최월송인가보네.》

《무슨 일인데?...》

《미국놈들이 고원까지 들어왔다네.》

《뭘어?!-》 최월송은 저도 모르는새에 용수철 튕겨나듯 벌떡 일어나며 긴장해졌다.

《우선 물에 친척이 있는 로인들과 아이들부터 소개시키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네. 오늘부터 사람과 간단한 짐을 나룰수 있는 범선준비를 월송이 자네가 맡아주어야 하겠네. 그리구 한쪽으로 조합재산도 다 맞추어 장부들에 기록하고 매물해놓아야겠는데 자넨 전번에 잃어버린 문어소왜들을 현금으로라도 변상해놓아야겠어. 전쟁판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겠나. 나라앞에 빚지고 죽을수도 있지 않나.》

룽말갈기도 한 김인순의 이 말은 갑자기 최월송의 가슴을 무딘 작살끝으로 쿡 찌르는것 같아왔다.

《...!...》

최월송은 놀란듯 묵묵부답으로 잠시 입을 다물고 서있었다. 이 짧은 순간에 별의별 오만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이런 때에 와서까지 조합재산이요 뭘요 하는 관리위원장이 통 체정신같지 않았다. 방금 소개준비를 맡아해달라고 할 때 느꼈던 믿음이 졸지에 가랑잎처럼 흩어져버리는것 같았다.

《왜 말이 없어. 갑자기 병어리가 났나?》

《지금은 뭘 내다 팔아도 값나가는게 있어야지.》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상하겠네.》

김인순은 그의 기분은 알은체도 하지 않았다. 최월송이 후끈 달아서 땀지를 꺼내서 담배를 말아 붙이면서도 이전처럼 우물거리지 못하였다. 한것은 내무서에 나가 들은 이야기도 그래, 강과 부문제도 그래 이러저러하게 제잘못을 느끼고 있기때문이었다. 어유등불빛이 희끄무레한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조금 있다가 김인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면에서 명천섬 박정근이 문어소매를 어느 장사군한테 넘기는걸 봤다는 사람이 있습네. 내무서에 신고도 되구, 정신을 차리라구. 우리 섬에라고 왜 나쁜놈들이 없다고 보겠나.》

《뭐라구?...》

그때까지 떠받으러 오는 황소처럼 찌뿌둥해서 지름뜨고 서있던 최월송이 눈을 화잔등처럼 크게 떴다. 처음에는 이렇게 놀랐지만 다음순간 그 어질고 숫진 사람이 그런짓을 할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갈마들며 관리위원장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유순칠네 집안에 왕골뱅이재털이가 있었다던 의심만은 지어지지 않았다.

최월송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마살을 찡그리고 잠시 생각하던 최월송이 조용히 김인순을 쳐다보았다.

《튼소문을 듣고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겠나. 난 박정근이가 무식한 사람두 아닌데 그런짓을 할 못난이가 아니라고 보네. 그 사람은 늘 우리가 관리위원장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훈계하였네... 내가 좀 이상하게 본건은 그가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유순칠놈의 방안에 있는 재털이까지 알려란말일세.》

김인순은 묵묵히 귀담아 듣고있다가 마지막말에 고개를 버쩍 들었다.

최월송은 박정근이가 《왕골뱅이》를 탐내던 그 날저녁에 있는 이야기를 죄다 하였다. 그러자 관리위원장 김인순이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며 안타깝게 소리쳤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나. 응, 박정근이는 박정근이구 유순칠이야 피땀한 원썩가 아닌가. 자넨 그게 흠이야. 조합이나 인민정권 앞에서는 감추는 일이 따로 없고 죄다 솔직해야 돼. 그걸 송사질이나 고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단말이야. 며칠후에 단서를 더 확인해가지고 내무서 서장이 직접 건너오겠는데 그때 자네 입으로 다 말하게 알겠나?》

《...》

면통을 찢리운 최월송은 아무말 못하고 썩살이

든 손바닥만 마주 비볐다. 그가 고개를 떨구고 고통스러워하자 그것이 가슴이 아팠던지 김인순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기 와서 보게. 이게 혹시 그 문어소매가 아닌가.》하고 말머리를 돌리면서 어유등을 들고 문서철들을 넣어두는 겹스레한 나무서류함옆으로 가서 구석을 비쳐보았다. 최월송이 그를 따라가 보았다. 거기에는 몇틀되는 문어소매가 놓여있었다.

엉거주춤해서 들여다보던 최월송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중 하나를 들어 낚시허리를 손바닥으로 문대보더니 《맞어, 이거야, 맞단말이야.》하고 탄성을 질렀다. 최월송은 보기와는 달리 아주 꼼꼼한데가 있었다. 얇은 줄칼로 표시가 나게 허리를 어여놓았던것이다. 김인순이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제판에 얼굴이 꺼매있던 최월송이 김인순의 손을 덥석 잡으로 간청하듯 물었다.

《관리위원장, 이걸 어에서 가져왔나? 응.》

《어디서 가져오긴 사포장에서 샀지. 면소비조합상점에 다니는 5 촌숙한데 돈을 돌려 샀네.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준엄한 시기에 나라앞에 미결을 남겨서야 되겠나. 오늘은 내 마음도 편안하구만. 우리 두 집의 주머니를 털면 될걸세. 그새 문어소매때문에 그 못된 심술이 뒤틀린것 같은데 인젠 그런 생각일랑 썩 지워버리라구. 정이 받으면 오해가 많아지고... 그럴수도 있어.》

류달리 부드러워지는 김인순의 말은 정이 넘쳐 흘렀다. 그 진속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최월송은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자네야말로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가, 고마운 우리 제도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을 안고 살고있구만. 난 그런것두 모르구... 줄장부였어.)

이런 생각이 머리속에 꿈틀거렸으나 최월송은 두툼한 입술을 우물거렸다. 그의 눈길에는 자책과 우정이 짙게 교여올랐다.

김인순은 낮은 목소리로 한마다 더하였다.

《어제 면당위원장한테 자네 입당보증은 내가 서겠다고 했네.》

최월송은 뜨거운것이 왈칵 쏟아질것 같아 고개를 돌리었다.

《이 사람 인순이! 고맙네, 고마와...》

우묵한 두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었다. 이런 친구를 빼놓게만 생각한 지난 일이 끝없이 후회되었다.

몹시 흥분한 최월송은 자중하지 못하고 성급히 입을 열었다.

《내 아침 식전바다길에 박정근이 그 사람을 줌

만나야겠네.》

《그만두라구. 법기관에서 어련히 조사하고있는 데 선불질하면 안돼.》

김인순은 면으로 나가기 며칠전에 강굴섬과 명천섬을 돌아보면서 앓고있다는 박정근이네 집에 들렀다가 선술집에 갔됐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때 강과부는 관리위원장이 어떻게 자기집에 발길을 여간만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있는것을 다 털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술상을 차리려고 하자 김인순은 혼자 사는 살림을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고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그를 말리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인 만큼 당분간 문을 닫아주어야 하겠다고 알아들을 수 있게 타일려주었다.

강과부는 제때에 일깨워주어 고맙다고 허리가 부러지게 인사를 하였다. 그가 어찌나 곱살긋게 의견을 받아들이는지 김인순은 놀랍게도 자기가 일전에 생각했던 녀자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인순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는 《관리위원장 아주버니, 너무 걱정마세요. 제가 아무리 돈에 눈이 어두웠기로서니 합작사일에 지장을 주게 영업을 하겠어요.》라고 너인스럽게 위안하였다. 김인순은 최월송이에게 그 말아 너무 놀라와 그를 다시한번 쳐다보았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리고 강과부에게서 하루일을 마치고는 이들을 넘길세라 한대포씩 하고야 집으로 가던 월송아주버니도 벌써 달포째나 발길을 끊었다는 말을 들으니 관리위원장으로서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겠다고 한마디 덧붙이었다.

강과부의 말이 나오자 최월송은 갑자기 낯색이 흐려졌다. 방금까지 속을 다 털어놓던 최월송은 입을 꼭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싶지 않았다.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사는 젊은 녀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고 헛소문이라도 남편없이 태기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불쾌한 일일뿐아니라 오히려 관리위원장에게도 골치거리가 될수 있는 일이기때문에 모르쇠하는것이 상책이었다. 입빠르게 그 《비밀》을 루설한다면 아직 섬에 있어본적이 없는 풍기문란건이 생기고 섬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이나 어지럽히며 복잡하게 만들것 같아서 이것만은 가슴속 한구석에 묻어버리자고 생각하였다.

《...》

어느덧 동창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최월송은 지내 시간을 보내는것 같아서 새벽처럼 늦어지겠다고 결상에서 움쭉 일어나 합작사

사무실을 나왔다. 거뿔거뿔한 바다가 수평선에서 하늘같이 들리면서 감색갈의 노을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동해바다 새벽의 서막이었다.

최월송은 조반전에 《문어동네》를 한바퀴 돌면서 사돌선이 무겁게 만선을 하고 돌아와 아침을 먹은 다음 관리위원장이 보낸 젊은이 두사람을 데리고 종일 범선을 손질하였다. 돛을 킁고 사람이 앉을 자리도 만들고 짐실을 갑판밑 선창에까지 물이 스배여 들어오지 않도록 수리하자니 퍼그나 시간이 걸렸다.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질가보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손을 다그쳤으나 웅근 하루하고도 만나절이 걸려서야 작업을 끝냈다.

다음날부터 합작사에서 조직한대로 라서기장의 지휘밑에 최월송이 키를 잡고 강굴섬에서 시작하여 명천섬, 강굴섬 순서로 소개사업을 하였다. 하루에 두축씩 실어나르니 사흘이 걸렸다. 김인순의 딸 정화를 포함한 사무실사람들의 부모들과 애들은 마지막 배편으로 섬을 뺐다. 모두 물에 친척이 있는 늙은이들과 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섬을 뜨면서 너나없이 눈물을 흘렸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것도 아닌데 옷소매로 눈굽을 찍으며 클쩍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당하는 최월송은 코마루가 쟁하고 눈시울이 화끈 달아올랐다.

배가 돛폭이 팽팽하게 바람을 안고 섬에서 점점 멀어져가자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을수 없었다. 모두가 눈물을 삼키며 아득히 바라보이는 수산합작사 사무실 지붕우의 하늘가에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에 눈길을 주고있었다.

최월송은 가슴이 빠근하였다. 늙은이와 아이들마저 눈물을 머금고 승엄하게 바라보는 공화국기발, 람홍색기폭의 귀중함이 뭐라고 이름할수 없이 가슴이 아프게 안겨왔다. ...

사흘동안에 몹시 피로했던 최월송은 어느때없이 늦잠을 잤다. 관리위원장 김인순이 준 과업을 만족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뻗뻗하고 속이 후련하기는 이 몇달동안에 처음인것 같았다. 김인순이 얼굴에 노상 웃음을 담고 기뻐하며 다음날 새벽천렵은 그만다구 대신 몇시간 폭 쉬고나와 또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저녁에 안해는 수고하는 남편에게 대접하려고 콩을 담그어놓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두부를 앳았다. 그때까지 남편이 잠에 들어있는걸 본 그는 관리위원장내 내외생각이 나 그중 물매가 좋은것을 골라 몇모 잘되게 웅배기에 담아가지고

김인순이네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던 안해가 좀 지나서 쓰러질듯 부엌문을 걸어차고 들어오며 《여보, 해순이 아버지!-》하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최월송은 늘어지게 기지개를 하며 누운채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안해는 미처 숨을 돌지 못하여 다음말을 잊지 못하다가 떠듬거리며 정화네 집이 온통 판장판이 되었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최월송은 그 말에 와닥닥 놀라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가장집물만 온통 구들에...》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강과부가 관리위원장을 부르면서 웬놈들한테 질질 끌려가더라는 것이었다.

순간에 사색이 된 최월송이 부리나케 옷을 주어 입으면서 방문을 열고 나섰다. 그가 마당에 내려서는데 울바자밖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박정근이 서있었다. 최월송이 어딘가 모르چه 가슴이 섬쩍하였다.

《?!... 앓아누웠던 자네가 어떻게?...》

최월송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 아침에 찾아온 그가 심상치 않았다.

《형님, 그새 나때문에 원심을 많이 쓰셨는데 안됐수다. 쥐구멍에도 별들 때가 있다구 내게도 신세값을 날이 있지요. 함께 좋은 구경이나 갑시다.》

박정근은 이렇게 말하며 넋지시 웃음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최월송은 짐작할수 없었다. 하지만 박정근이를 보니 저도 모르چه 문어소매에 대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당장 따지고들고픈 생각이 울컥하였으나 관리위원장의 당부도 있고 해서 가까스로 참았다.

《마침 잘 왔네. 불일이 있거든 집에 들어가 좀 기다리라구.》

최월송은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관리위원장네 집쪽으로 황황히 걸음을 옮기었다. 그러자 박정근이 최월송의 팔을 잡아끼며 합작사사무실로 올라가자고 끝었다. 최월송에게는 경황이 없었을뿐 아니라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관리위원장네 집에 가야 아무도 없수다. 모두 사무실에 올라갔다는데요.》

박정근이 너스레를 떨며 막무가내로 최월송을 사무실로 끄는바람에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박정근은 끈질겼다. 방금 안해가 한 이야기가 입밖으로 튀어나오려 했으나 까닭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수도 없고 그런데다 관리위원

장이 사무실에 올라갔다니 한숨 놓이는것 같기도 하여 어정쩡한김에 합작사사무실로 올라갔다.

합작사 사무실마당에 들어서던 최월송은 별스럽게도 때없이 소름이 오싹 끼치고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휩싸는감을 느꼈다. 때없이 태평하게 드나들던 합작사사무실은 여느때와 같이 문들이 꼭 닫겨져있는것도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발목에 무쇠덩어리를 달아매놓은것처럼 무릎이 올라가지 않고 다가가기가 두려웠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는 합작사가 생겨 처음이었다.

박정근은 한사코 그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관리위원장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최월송은 그만 《아!》하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아연질색하였다. 방안에는 주인은 없고 언제 한번 본적 없는 괴이한 차림새의 사나이 둘이 앉아있고 문 양옆에 철갑모를 쓰고 카빙총을 목에 건 두 사병이 다리를 버티고 서있었다. 그리고 문어소매를 쌓아놓은 어둑시레한 한쪽구석에는 입에 수건을 틀어막히 운채 팔을 묶이운 강과부가 무릎을 꿇고 한쪽으로 쓰러져있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최월송은 두 사병에게 온몸을 묶이우면서 소리를 쳤다.

《날 모르겠어? 몇해만이요.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구만.》

관리위원장의 책상에 앉았던 사나이가 일어나 퇴창문을 열어제꼈다. 삽시에 방안이 환해졌다.

최월송은 험상궂게 이그러진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알은체하였지만 최월송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러자 옆에 섰던 박정근이 최월송의 어깨를 툭 치며 《형님, 모르겠소. 거... 서울가서 공부하던 유순칠선주님의 둘째아들 있잖소. 유민호선생... 엇저녁에 〈국방군〉 선발대로 들어왔수다.》하고 튕겨주었다. 그제서야 왜정시기 유순칠의 둘째아들 유민호가 사각모자를 쓰고 쫓령거리며 섬에 한두번 나타난것을 본 기억이 어렵듯이 살아났다. 그 순간 최월송이 얼굴이 숯덩이처럼 새까매졌다.

그는 옆에 서있는 박정근이에게로 얼굴을 뻗돌렸다. 박정근이 태연히 웃고있었다.

《네놈이?!》

최월송은 터져오르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썩썩거리다가 안간힘을 써서 박정근의 면상을 떠받았다. 박정근은 얼굴을 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에 나가넘어졌다. 최월송이 분을 참지 못하고 성난 황소처럼 막무가내로 덤벼들자 두 사병이 그를 붙어잡았다.

《야, 이놈아! 누구앞이라고 감히. 꼴통이 박살 나고싶어.》

유민호의 앞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던 검은색 가죽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벌떡 일어서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소래기를 질렀다.

컴컴한 구석에서 박정근이 무릎을 꿇고 일어서더니 아무일 없었던듯이 권총을 든 사나이의 팔을 잡아내리우며 《여보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세. 해방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근로자〉란 말이야. 수격수격 일박에 모르구. 배부리는 일에서는 귀신이거든. 함께 일할만한 사람일세.》라고 자제력있게 최월송이를 소개하였다.

그 말에 최월송은 이발을 으드득 갈았다. 박정근이 간밤에 들어온 이 피퇴군선발대원들을 끌고 관리위원장제 집을 습격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박정근이… 해파리같은 이 반동놈의 새끼, 관리위원장은 어디 있어? 어디?!… 그리고 이 녀자는 무엇때문에 묶었느냐. 엉?》

최월송은 톱마루가 들썩하게 소리쳤다. 머리에 행처를 알수 없는 김인순에 대한 걱정이 짝갔다.

박정근은 최월송의 말은 들은듯만듯 태연하게 제말만 계속하였다.

《고정하자구요. 내 아까 형님한테 신세갚을 때가 왔다고 하지 않았소. 내 형님 사람됨을 보증할수 있수다. 이 두사람은 일정시기 서울서 나와 함께 공부한 동창생들이우다. 우린 〈함북동창회〉를 못하고 공부했지요. 참 좋은 시절이었지… 막역지우들이우다. 형님두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관리위원장 김인순이처럼 책상을 타고앉아 탕탕 큰소리치며 살아봅시다. 우리 손으로 이 합작사지붕우에서 공화국의 기발을 내리우구…》

박정근은 손가락으로 머리우의 천정을 가리키며 웃음을 지었다. 최월송은 억이 막혀 더 소리치지도 못하였다.

(세상에 이런 생벼락도 있는가. 공화국기발을 내리우다니…)

최월송은 눈을 감고 온몸을 푸들푸들 떨었다. 불을 삼킨듯 목안이 말라붙고 심장이 줄어드는것 같았다.

《참 잘됐수다. 우리 이번엔 옛 추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거… 〈왕골뱅이〉도 선물합시다. 춘추높으신 유순칠선주님이 그걸 보면 향수에 잠겨서 눈물을 지을거우다.》

박정근은 이렇게 지껄이며 제깁에 눈시울을 습벽하였다.

《우리?!》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은 최월송은 심장이 멎는듯 헉헉할뿐이었다. 가슴이 터지는것 같이 아팠다. 늘쌍 혼연하게 수고하는 관리위원장 김인순이를 잘 돕자고, 취중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맺자고,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라고 노래까지 부르던 박정근이… 사람이 이렇게 안팎이 달리 살수 있는가. 이 극악한 친일파, 반동을 두둔해온것이 그리고 눈을 멀쩡하게 뜨고 속히운것이 원통하였다. 눈뜬 소경처럼 이런놈을 가려보지 못한 자기가 어처구니 없었고 민망스럽고 혐오스럽고 증어스러웠다. 별안간에 들이닥친 오늘의 재난이 모두 자기탓인듯싶었다.

(이게 무슨 치욕인가?!)

그렇수록 최월송은 더욱더 가슴이 저려나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며 모지름을 썼다. 두팔마저 묶이여 속시원하게 통탄하며 가슴을 칠수도 없고 이 철전지원들과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 되도록 죽기내기로 결판을 낼수도 없었다. 너무도 원통한 나머지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지내 흥분하지 마시오. 우리 아버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화내땅을 떠났소. 그걸 생각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씨종자를 말리우고싶소. 그렇다고 당신같은 근로자들을 탓하겠소. 세상이 뒤집혔다고 당신들이야 달라진게 뭐가 있어. 그때나 지금이야 어부야 어부지. 나는 아버지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방임해두고싶지 않소. 이제 화내땅에 유순칠수산주식회사 사포지사를 내오고 박정근군이나 당신같은 사람들을 주인으로 내세우자는거요. 정말 팬찮은 사람들이요!》

최월송은 달콤한 제꿈에 사로잡혀 이렇게 주어대는 유민호를 쏘아보았다. 찬찬히 보니 유순칠의 모상이 신통하게 안겨왔다. 피퇴군장교복장을 한 젊은 유민호의 얼굴은 코안경을 걸고 회중시계줄을 드리운 비단조끼에 세루양복차림으로 선창에 나서서 반들반들한 개화장을 내두르던 유순칠의 젊었을때 그 얼굴 그대로였다.

그런 유민호를 보는 순간 최월송은 얼마나 격했던지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 같더니 꼭 막혔던 숨길이 탁 터지며 목이 열렸다.

《개수작질 말아. 유순칠 이놈? (최월송이 그놈을 유순칠이라고 불렀다.) 내 어부를 해두 공화국의 공민이다. 어부가 어쩔단말이나! 내게는 공화국공민증이 있어. 너희들은 생각도 못하는 공민증이야… 그리고 인민정권이 있구, 우리 수산합작사가 있구…》

이렇게 웨친 최월송은 사람대접을 받으며 부러

운것 없이 산 해방후 5 년생활이 안겨와 눈물이 짙 쏟아졌다. 그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그의 뇌리에는 다시금 합작사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관리위원장에 대한 위구와 불안감이 북받쳐 올랐다.

최월송이 관리위원장을 당장 내놓으라고 호령하자 박정근은 낮빛이 새파래지면서 《그만큼 찾아 뵈해. 바보같은 녀석!》하고 뇌까리며 안타깝게 몸을 뒤척는 강파부에게 다가가 입에 틀어막은 수건을 나누켰다.

《풀췌기같은년, 네가 말해봐라.》

강파부가 숨을 토틒 못하고 킁킁하다가 《이...이놈들이 위원장아주버니와 서...서기장을...》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삼키며 눈물을 쏟았다.

순간 최월송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유민호가 지체하는것이 불안했던지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무장한 두 사병이 최월송을 카빙총등허리로 쳐서 떠밀어내고 뒤따라 축 늘어진 강파부를 물건짝 다루듯 질질 끌고나갔다.

최월송은 놈들이 간밤에 쥐도새도 모르게 관리위원장내외와 서기장을 바다가에 끌거나 살해한것을 알수 없었다. 강파부가 그 목격자였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녀자는 관리위원장이 습격받은것을 최월송이와 섬사람들에게 알리려다 놈들에게 붙잡혔던것이다.

밖에 나서니 사병 몇이 고래고래 소래기를 지르며 마을사람들을 몰고 합작사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속에는 최월송의 안해도 있었다. 웃가지들도 제대로 입지 못한채 끌려나온 그들은 너무도 갑작스레 들이닥친 일에 당혹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퐁퐁 뭉이운 최월송, 그 옆에 선 피뢰군장교와 잠바입은 사나이, 번지르고 선 두 사병... 그 뒤에 쓰러져있는 강파부... 뜻밖의 살벌한 광경에 부닥친 사람들은 질겁하여 그자리에 굳어졌다.

《?...》

해방후 행복과 기쁨만이 꽃피던 합작사사무실마당에 섬을 통채로 가라앉힐듯한 무거운 침묵이 실렸다.

유민호놈은 무슨 음흉한 생각을 굴리는지 한동안 합작사사무실지붕우에 세차게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노려보았다. 사람들의 눈길은 그놈에게로 쏠렸다. 어지간히 동안이 지나 마음을 다잡은 최월송은 흥분을 누르고 정신을 차렸다.

박정근은 사람들앞에서 《국방군》선발대가 여러분네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작사에 얹

매여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했는가고 일장 너두리를 늘어놓았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당하는 최월송은 강렬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뭉이운 팔을 푸들푸들 떨었다. 눈앞에서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듯했다.

모여선 섬사람들의 눈에서도 증오의 불길이 황황 일었다. 그런속에서도 《아니, 강파부가 어떻게?!》, 《글췌말이우다.》, 《저 녀자야?!...》는 말소리가 오갔다.

사람들의 거동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느낀 유민호는 최월송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붕우의 람홍색공화국기발을 가리키며 뇌까리었다.

《이 미옥한놈아, 네 손으로 저 기발을 내리우라. 너희들이 말하는 <나라의 주인>의 손으로 말이다. 양도사람들이 공화국이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제눈으로 보게말이다.》

《...》

또다시 납덩이같은 침묵이 흘렀다.

바위처럼 선 최월송은 당장 벼락이 쏟아진대도 꺾쩍할 자세가 아니었다.

애당초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박정근이 초조감을 이기지 못해 안절부절하다가 기발대밑으로 다가가 기발대줄을 잡아당기려 하였다. 그의 뒤를 따르던 유민호는 《가만!》하고 박정근의 팔을 잡아 와락 돌려세웠다. 그리고 독기어린 시선으로 최월송에게 어서 올라가 공화국기발을 내리우라고 톡짓하였다.

최월송은 《흥...》하고 코바람을 소리나게 내불었다. 원래 과묵한 표정이 더욱 심해졌고 두툼한 입술이 굵게 우물거렸다.

눈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초조해하던 박정근이 유민호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물에서 내무서원들과 무장자위대가 건너올수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 같았다.

유민호는 제정신을 차리는듯싶었으나 서두르지 않았다.

《자, 네손으로 저 기발을 내리우라. 어서!》

그리고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시간이 없다! 우리는 복상해야 한다.》

가죽잠바가 거칠고 악의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어 유민호가 안전장치를 떨구는 소리를 내었다.

그래도 최월송은 끄떡없이 서있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얼굴에 공포의 기색이라고는 꾀물만큼

도 없다. 새벽마다 사돌선우에서 노대를 잡고 헤뜨는 동녘하늘을 바라보던 그 눈길, 다시 보지 못할 그날들이라고 생각되었는지 짙은 눈섭이 움설 실그러졌다.

속이 뒤집힌 박정근이 뒤뜰안으로 돌아가 사다리를 가져다놓고 지붕위로 오르려고 헤뭇버쳤다. 이번에도 유민호는 그를 또 제지시켰다. 그리고는 모여선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조로 《누구든지 나와 저 기발을 내리우라. 그렇지 않을때는 모두 전멸이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머리로 날아에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뿐 군중속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사람들은 묵묵히 해풍에 날리는 공화국기발을 올려다보았다. 한사람같이 숨은 표정들이었다.

박정근이 실성한놈처럼 씩씩거리다가 허둥지둥 사다리로 다가갔다. 그것을 보는 최월송의 눈에서 시퍼런 섬광이 번뜩하였다.

《이 비열한놈아, 그 더러운 손으로는 공화국기발을 만질수 없어.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풀어주마!》

최월송은 포승을 풀라고 버락같이 호통쳤다. 사람들의 눈길이 돌변하는 최월송에게로 쏠렸다. 사병 한놈이 포승을 풀어주자 그는 기발을 향하여 바로 선다음 풀어헤친 저고리 옷단추를 단정히 채웠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처마에 잇대여놓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위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여보!》

너인의 다급한 부름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안해의 목소리였다. 피곳 돌아보는 최월송의 눈빛에 지금껏 볼수 없던 미소가 비끼었다. 그것은 안해에게 보내는 마지막 애무같았다.

《해순이 아버지, 실성하지 않았어요?!》

안해의 애절한 목소리가 울렸으나 최월송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위에 올라섰다.

한숨 돌리고난 그는 사다리를 당겨 지붕위에 올려놓고 기발을 묵묵히 쳐다보았다. 두해전 이마당에 모여 섬이 떠나갈듯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공화국기발을 올리던 일이 다시금 활동사진처럼 안겨왔다.

섬사람들은 물론 유민호네 패거리들도 긴장해서 올려다보았다.

최월송은 솔뚜껑같은 두손에 침을 탁탁 뱉어 마주 비비더니 굵게 기발대의 랑쪽에 박아놓은 대못을 밟으며 우로 올랐다.

사위는 숨소리조차 없이 고요하였다. 다만 바

다에서 날아든 흰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근심스레 날아오갔다. 펄럭이는 기발밑에까지 올라간 최월송이 허리춤에서 손칼을 꺼내더니 드리운 줄을 한발이나 되게 놔두고 그 아래는 몽청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드리운 줄을 기발대에 정성껏 동여매었다.

처음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던 놈들은 밑에서 줄을 당겨 내리우지 못하게 된것을 알자 아연해지고말았다. 먼저 박정근이가 숨넘어가는 소리를 쳤다.

최월송은 들은척도 않고 기발대를 든든히 붙잡고 섰다. 그러자 박정근이 뒤뜰에 돌아가 무슨통을 가져오더니 그속의 액체를 합작사사무실에 마구 뿌리고 성냥을 그어댔다. 크지 않은 목조건물은 삼시에 불길에 휩싸였다.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주인들의 손으로 뭐기발을 내리우겠다구. 이 최월송이 재가루가 되어도 안돼!》

최월송의 웨침소리와 함께 유민호의 총구에서 불꽃이 일었다.

《탕!-》

최월송은 몸을 흠칫하며 어깨를 약간 우로 솟구었다. 떨구었다. 끼룩거리던 갈매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최월송은 기발대를 꼭 틀어잡은채 굳어 불은듯 움직이지 않았다. 시꺼먼 연기타래속에서 불길이 뱀의 혀끝처럼 날름거리며 사정없이 타올랐으나 온몸이 그대로 든든한 기발대가 된 양도의 어부!- 이 거인의 머리우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람홍색공화국기발이 더욱더 힘차게 휘날리었다.

그는 혼미해지는 속에도 멀리 물쪽에 눈길을 주었다. 찬란한 금빛해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사포앞바다에서 한척의 배가 떠오르고있었다. 배우에는 공화국기발이 가뭇하게 보였다. 그것이 눈에 띄는 순간 앞이 탁 흐려졌다.

《동무들! 빨리 오시오. 공화국기발을... 부탁...》

그는 의식을 잃고말았다.

정전후 최월송은 전 관리위원장 김인순이 이미 보증하여 제기한 무건을 앞에 놓고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고 섬사람들의 한결같은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장으로 선거되어 일하다가 주체61(1972)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양도사람들은 명절때마다 수산협동조합 사무실지붕위에 나뭇기는 람홍색기발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느끼고 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오늘 의 현실속에서 그들을 추억하곤 한다.

7 월의 하늘아래

주광일

온통 거리는
꽃물결 덮이고
하늘도 땅도
노래소리에
둥둥 떠나가는듯

이날을 맞아
대동강 푸른 물결도
이랑이랑 춤을 추는가
선거장은 선거장마다
어깨 들썩이는 춤바다!

씻은듯 흘러간
맑은 7 월의 하늘아래
장하게도 떨쳐나섰구나
손에손에 꽃뭉음을 들고
가슴엔 공민증을 품고...

이날에 우리
하고싶은 말 얼마나 많고
가슴 무너지게 쏟아지는 추억의 파도는
또 얼마나 큰것인가

눈물과 고뇌와 시련을 박차고
장군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를 향해 거세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이여
오늘은 그 억센 기개와 신념을

다시 한번 심장속에서 높이 꺼내들라
터치라
숫구치는 격정의 분수를
푸르싱싱한 한여름의 대지우에-
우리의 소원과 희망을 안고 찾아온
뜨거운 7 월의 하늘아래
마음껏 쏟아부으라!

오늘에 터치는 걱정은
장군님 계시여 불변하는
그 신념이 가져온것 아니더냐
오늘에 바치는 한표한표는
운명을 함께 해온 어머니조국에
우리의 심장을 다 주는것이 아니더냐

오 불타는 사랑 없인
공민증을 손에 들수 없고
지켜갈 각오 없인
이 하늘아래 가슴펴고 들어설수 없는
성스러운 조국애의 마당이여

아름답구나
그래서 가슴벅차구나
우리의 빛나는 태양이
행복과 미래를 길이 이끌고
력사의 새 장을 번쩍 펼쳐드는
7 월의 하늘아래
푸른 삼천리가 설레이고있어라

가시는 전선길 따라

리영철

푸른 하늘에
원수벌 눈부시게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를 바라볼때면
나에겐 떠오르더라
경애하는 장군님 걸으신 그 모든 전선길들이

은모래불 펼쳐진 동해의 기슭
해안포중대를 지나...
길아닌 길로 이어져있는
월비산의 그 백마흔아홉굽이를 돌아...

떠오르더라
격과솟는 풍랑에 물새도 깃을 꺾는
검푸른 초도의 그 배길과
봄명절 그날에 오르지였던
그 지혜산마루가

어이 잊을수 있으랴
습하고 좁은 전호길을 밟으시며
장군님 오르셨던 전선고지들
거기서 작전도를 펼쳐가시던
승리의 그 나날들을

아,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안고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시며
우리의 장군님 헤쳐가신 길이어

리수로야 어떻게 적을수 있으랴

가사

병사들의 솜옷에도 마음을 쓰시며
병사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며
중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종횡무진 달리시며 가시는 그 길

어떻게 계산할수 있으랴
조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시며
그 길에서 꽃피우신 서해명승 구월산
그 길우에 아름답게 솟아 빛나는
칠보산과 정방산...

진정
장군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내 조국이 솟아 빛나고
인민의 행복이 지키여지고
백전백승 우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소리높이 울리고있거니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간다
결사옹위 총검으로 그 길을 받들고
총폭탄 심장마다 그 길을 안고

아, 우리의 마음속에 열려져있는
장군님의 전선길!
그 길을 따라
오리라 이 땅에 승리의 붉은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날은

한목소리

최인덕

풍년벌 가꾸는 처녀의 웃음이
어이하여 그리도 밝고 밝은지
설레이는 이삭들이 말하여주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있어
이 세상 부러운것 더는 없다고 아, 더는 없다고

검은금 캐내는 탄부의 눈빛이
어이하여 그리도 별처럼 빛나는지
끝없는 발파소리가 말하여주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이 있어
이 세상 못해낼 일 더는 없다고 아, 더는 없다고

이 세상 사람들 높뛰는 심장이
어이하여 그리도 불처럼 뜨거운지
솟아난 기념비들이 말하여주리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기쁨
이보다 값높은 삶 더는 없다고 아, 더는 없다고

군관신분증

전인광

1907년 8월, 력사에 《정미사변》으로 전해지는 일제에 의한 조선군대해산이 단행된 며칠후, 당시 일본의 한 일간신문은 그날에 있는 특이한 사건 하나를 전하고있다.

《상오 11시, 〈황궁시위대〉(당시 조선군대명칭) 8천명이 본군(일본군)에 포위되어 군모와 계급장을 벗기우고 해산을 종용당하던 그 시각,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고있던 1련대 1대대장 박승환참령이 해산명령에 분개하여 부하들앞에서 자결했다. 이는 대대장병들의 감정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격분한 장병들이 총을 잡고 남대문으로 진출, 일본군에 대항해나서자 사태는 급격히 악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있던 현지 사령관은 룡사 18기 수석졸업생으로 전도가 촉망되던 야스께 미노루중위를 사건현장으로 급파했다.

반항의 싹은 밀급까지 도려내야 한다는 평소 신조대로 야스께중위는 무자비한 사살과 사건진압명령, 70명 사살, 120명의 부상자 속출,

그런데 일본군을 상대한 조선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투가 수습단계에 들어갈무렵, 뜻밖의 정황이 발생했다.

본군에 한팔이 잘린 시위대 한 병사가 마치 불덩어리처럼 기염을 토하며 아군장병과 격돌, 남대문 세거리로 뛰쳐나와 본군용사 10여명을 사살하고 당시 현지서 전투를 지휘하던 야스께중위를 칼로 일격,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했던것이다.

현지 본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외팔의 조선군사〉를 체포하여 응징할것을 결정. 대거 추적중이라고...》

그러나 그후 신문자료들에는 그 《외팔의 조선군사》에 대한 추적결과가 일체 언급된것이 없다.

군대란 그 나라 국가의 존망과 민족생존의 근본초석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봉건왕조의 개인사역병에 불과하던 조선군대가 그마저 일제의 잔악한 마수에 의해 해산되면서 조선민족은 명실공히 국권과 민족의 생존권모두를 상실당하고 식민지노예로 굴러떨어지는 력사이래 최악의 치욕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하다면 군대해산에 이처럼 결사적으로 항거했

던 그 불굴의 사나이의 운명은 그후 어떻게 되었단말인가.

한팔을 잃은 조선군사에 의해 중상을 당한 야스께 미노루중위는 사건직후 할복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수치감에 몸을 떨었다.

룡사의 수석졸업생으로 촉망되는 장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현해탄을 건너왔던 그 모든것이 줄지에 물거품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조선군대 해산에 기여한 공로로《천황》이 하사하는 군도까지 받았지만 그는 결국 다리를 절단한 병신이 되고말았다.

야스께는 원체 규슈의 서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출신이었다.

《명치유신》을 주도한 사쓰마무사들의 본고장이 가고시마의 무사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사무라이의 존속을 주장하며 서남반란을 주도하다 죽은 《정한론》의 주장자 사이고 다카모리의 광신적인 숭배자였다. 룡사를 졸업한 그가 조선으로 나오게 되데도 사이고 다카모리의 영향이 컸다. 그때만해도 일본건국과 문화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 바다건너 목전의 도고한 자존심의 나라 조선을 식민지로 합병해버리는 력사적성업에 심혼을 바치겠다는 야심만만한 의욕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사무라이 후예의 그 기라성같던 의기는 한 조선병사로 하여 일조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할수 없이 제대된 야스께는 본토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무사도는 전장에서 죽는것이다》고 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가르치심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패배자가 되어 고향으로 귀한한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었다.

조선에 떨어져 조선사람들을 기어이 정복하고 노예로 만드는 대업에 뼈가루를 묻겠다고 이를 갈았다.

《합방》후 《총독부》에 사무관으로 들어갔던 그는 인차《동양척식회사》의 리사가 되어 일제의 대륙침략을 후원하는 군수공업의 조달자로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한시도 그는 정미년의 그날 자기를 장검으로 일격하던 그 《외팔이사나이》, 황황

타는 불길이 피빛으로 쏟아져나오던 그 사나이의 눈빛, 분노와 증오가 돌처럼 굳어졌던 그 눈빛을 잊은적 없었다.

조선땅을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어 순종 않는 노예의 목에 칼을 박지 않고는 잠을 잘수 없었다.

이런 복수심에 충동되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군했다. 그러나 어디서도 그를 찾을수가 없었다. 그를 찾는 중요한 표적이 바로 팔 하나가 없는 것이었다. 혹여 의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야스께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어언 20 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검질긴 추적의 열도 점차 진해가던 어느해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소금조달때문에 군부의 독촉을 받고 룡천제염소를 야스께는 제염분소장 박지렬과 포구에 정박한 소금배들을 돌아보고있었다.

수리중인 짐배들이 너무 많아 며칠내로 썩은 배널들을 당장 갈아내고 소금부두에 갖다대라고 불같이 호령하던 야스께는 자그마한 목선의 이들을 타고앉아 짬이 난 배널사이로 썰기를 박아넣고 있는 사나이를 무심히 지나치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뇌리를 치는 어떤 예감때문이었다.

팔굽에서부터 흔들흔들하는 왼쪽소매자락이 분명 외팔이였던것이다.

마름질한 썰기에 뒤통, 힘을 주어 망치질을 하던 사나이라도 본능적인 어떤 육감에 잡힌듯 일손을 놓고 미동도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에 두 사람은 눈길이 부딪쳤다.

얼음이 닿는것 같은 전율이 야스께의 잔등을 스쳐갔다. 그냥 못본척 돌아섰다. 모래불에 절룩거리는 의족발을 내짚으며 걸어갔다.

(틀림없는 그놈이다.) 저도 모르게 오작 진저리가 쳐졌다.

그제서야 야스께는 자기가 그토록 그를 찾은것이 실상은 이 땅 어디에겐 그 사나이를 두고는 발편잠을 잘수 없다는 자기 내심에 잠재된 공포감에서 오는것이였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으음.》

야스께는 배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 비슷한 소리를 삼키며 늘 들고다니는 작은 군도를 짝 움켜쥐었다.

박지렬이 하는 말이 그가 이 포구에 나타난것은 10 여년전이라고 했다. 팔이 잘린것도 어느 철도공사장에서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야스께는 코웃음쳤다.

《거짓말이다. 그놈은 분명 의병에 참가했다. 뒤늦게 산에서 내려왔다. 그놈이 바로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조선군사놈이다.》

야스께는 그날밤 줄개들을 불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나이 자신은 야스께를 알아보지 못했다. 20 여년 세월탓도 있겠지만 다리를 절룩거리며 포구를 찾아온 그 지든한 몸뚱이의 《동척회사》리사란자가《정미사변》때 자기 칼에 맞은 그 일본군중위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는 그자가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다만 뿔어지게 응시하는 칼끝같은 왜놈의 눈빛에 부딪치는 순간 어디선가 지독한 악인연으로 마주섰던자라는 섬찍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갔을 뿐이였다.

그 실수가 그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온 계기가 되였다.

다음날 사나이는 예나 다름없이 염전으로 건너가 배전이 기올도록 소금을 한배 가득 싣고 포구로 떠났다. 그런데 가덕섬을 벗어난 그가 순풍따라 포구쪽으로 배머리를 돌리던 때였다.

사나이는 문득 가덕섬 도래곶이와 그 건너편 돌섬뒤에서 자기배에 접근해오는 세척의 배를 보았다. 처음엔 섬 아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염부군들의 배인가 했다. 그런데 가까와오는 가운데 배머리에 칼을 짚고 우뚝 선 왜놈의 상통이 석연히 알리는 순간 사나이는 혁-하고 긴숨을 들이그었다.

바로 어제저녁 포구에서 만났던 그 왜놈이였던 것이다.

두손으로 칼을 짚고 꼼짝않고 자기를 주시하는 그 살기띤 자세.

아! 그제야 그는 서울 남대문거리에서 자기 칼에 쓰러지던 왕년의 그 일본군장교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둘러보니 칼과 몽둥이를 든 왜놈들이 사방에서 조여들고있었다. 때는 이미 늦었다. 사나이는 비호같이 한팔로 용충출을 잡고 선미로 뛰어내려 어느새 뒤로 기여오른 왜놈을 발로 차넘겼다.

그러나 다음순간 다른놈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어깨를 꿰고들었다. 그는 쓰러졌다.

사나이를 체포한놈들은 그를 긴 배널판에 묶어 자빠뜨렸다. 악착한 놈들은 야스께의 지시대로 그가 움쩍 못하게 팔굽과 손바닥, 다리에 돌아가

며 군도를 박았다.

그다음에야 왜놈들을 헤치고 나타난 야스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칼끝으로 구레나룻이 텅수룩한 사나이의 턱을 쳐들었다.

《나를 알만한가?》

사나이는 말없이 놈을 쏘아볼뿐이었다.

《네놈을 찾아 이 땅 삼천리를 다 훑어다녔다. 너같은 반항 〈조센진〉은 끝까지 씨를 말리고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의 대일본을 이 조선땅까지 넓히자는것이다. 이놈아! 이제 조선은 없어. 오늘도 래일도 없단말이다. 이걸 알고 죽어라. 으하하하.》

온몸을 들썩이며 너털웃음짓던 야스께는 꼬나든 칼로 사나이의 가슴을 겨누었다.

사나이는 피터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는 이 원썩와의 대적에서 졌던것이다. 산도 강도 하늘도 바다도 그를 둘러싼 모든것이 제 나라, 제 땅이건만 그를 도와줄 힘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원래 강원도 산골의 포수였다. 안변의 황룡산과 도남령을 넘나들며 창으로 그가 잡은 맹수만도 몇십두름이 될것이다. 오랑캐, 양놈들이 사처에서 나라를 먹자고 덤벼든다는 소식에 분개하여 한양으로 올라와 군사가 되었건만 무관을 천시하고 음풍영월 주색잡기로 세월을 탕진하는 조선봉건통치배들의 쇠국과 사대, 매국의 진탕속에 결국 2 천만 조선민족은 망국노가 되고말았으니 아, 총 한자루 들지 못한 이 나라 백성은 그 언제 국권을 회복한단말인가.

《원통하구나. 총을 잡고 산야를 누비던 그때저 왜놈들을 한놈이라도 더 죽이고 왜 그 전장에 피뿌리고 나도 죽지 못했던가.》

통한의 부르짖음이 사나이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잠시후 구멍을 뚫어놓은 무거운 소금배는 배널판에 칼로 박혀 운명한 사나이를 실은채 서서히 바다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날밤 통천앞바다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밤새껏 태풍이 일었다. 마을의 염부군들이 다음날 아침 바다로 나가다가 그 사나이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의병이었던 그의 전력을 알고있는 마을사람들은 무참히 란자당한 그의 시신을 보고 무엇인가를 가늠했다. 그들은 소리없이 그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바다옆의 나지막한 둔덕에 정성껏 묻어주고 그

위치를 알지 못하게 평토를 해버렸다.

그 사나이에게도 이름이 있었을것이었다. 하지만 후일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의병을 하다 죽은 《외팔이사나이》로 기억할 뿐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총을 묻고 산에서 내려온 사나이가 비록 병신이긴 하지만 과묵하고 현결찬 기상이라 그에 끌린 어느 염부군이 과년한 딸을 주어 그 역시 늙장가나마 들었었다. 허나 그 너자는 아들 하나 낳은뒤 산후독으로 인츰 죽고말았다.

첫째라고 부르는 그 아들은 그때 다섯살이었다. 아버지가 죽은것도 모르고 그날도 그 아이는 포구의 움막에서 바다나간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있었다.

여월대로 여원 불쌍한 그 아이를 그날 저녁 덕삼이라는 한 염부군이 저고리에 싸안고 저희집으로 데려갔다.

세월이 흘렀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는 덕삼을 따라 해물이 출렁이는 염전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용드레질로 바다물을 퍼올리고 하얗게 익어가는 소금밭을 고무래로 퍼며 어린 몸에서 퍼져가는 짜고 강인한 염독속에서 그는 성장해갔다.

신록이 푸르러가는 개버들사이로 저만치 빨래터가 보인다.

분이는 기쁨에 뛰는 가슴을 누르며 종종 걸음쳤다. 첫째와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출수 없는 웃음이 입가에 샘솟는 분이이다.

(오래 기다렸음 어찌지.)

그런데 물가에 이르러 저만큼 나앉은 너럭바위를 살피니 아무도 없다.

맥이 아운하게 풀렸다.

왜 상기도 안왔을가.

그런데 철썩철썩 바위아래 자갈밭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

눈을 크게 뜨며 허리를 일구던 분이는 버들짚으로 얼핏 드러나는 속저고리만 입은 첫째의 탁실한 잔등을 보았다.

아이참. 입으로 주먹을 가져가는 분이의 얼굴에 정찬 미소가 피여났다.

했으나 이내 뽀로통해서 눈을 흘겼다.

첫째는 이녀의 인기척은 못느끼고 빨래에 여념이 없다는 시늉이다.

분이는 갑자기 부르러서 치마폭을 감싸쥐며 다가앉아 빨래감을 빼앗아냈다.

《어, 분이, 이제 왔어?》

첫째는 그제야 사뭇 얼렁뚱 놀란 표정이다. 분이는 눈을 흘겼다.

《알면서도 모른척...》

《그랬나?》

《아이참, 오늘은 왜 그래.》

분이는 이외로 데설곳은 첫째가 알곳어 물을 뿌렸다.

《에쿠》

첫째는 기겁해서 텅겨일어서다 어망결에 《분이!》하고 놀란 소리를 쳤다.

그옆은 한길이 넘는 깊은 물속이었던것이다.

《어마나.》

분이는 냉큼 일어나 허우적거리는 첫째의 손을 붙잡았다.

《거보라구, 괜히.》

첫째는 겨우 균형을 잡고 분이를 바라보며 벌썩 웃는다. 분이도 손등을 입에 가져가며 따라웃었다.

그들은 물가에 나란히 앉았다.

《왜 늦었더?》

《호, 주인이 어떤 늑다리왜놈을 데리고왔어. <동척회사> 무슨 리사라나. 그래서 술시증을 드느라구.》

분이는 그 늑다리와 박지렬이 자기를 방안으로 불러들여 추근거리던 이야기를 하려다가 공연한 말로 첫째의 기분을 더 흐리고싶지 않아 입술을 자근거리며 참았다.

《근데 왜 불렀어.》

《어, 그건 저...》

첫째는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아무래도 제입으로 말하기는 멋적다.

손으로 흘려가는 물을 철썩거리며 갑자기 다 허끝이 뻗뻗해서 이었다.

《덕삼아바이랑 곧 잔치를 하재. 뭐 꼭 있어야 되는가면서 분이 종살이도 끝나가는데 인차 데려내오자고 하더군.

난 대답을 못했어. 다 어려운 살림인데 글썽 아바이랑 몇몇이 돈을 뭉구 준비를 했다잖아.》

분이는 눈을 꼭 감았다.

꿈같은 이야기, 가슴조차 후두두 떨렸다.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풀려난다는것이, 자기도 남같은 사람값에 들어 첫째와 이 빨래터에서 년년이 그려보던 그 소박한 꿈을 현실로 가져볼수 있

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분이가 첫째를 알게 된것은 빗값으로 여기 제염분소장 박지렬의 집에 종으로 끌려온지 몇해 안돼서다.

그날도 새벽마다 내모는 주인너편네 등쌀에 밀려 날 밝기전부터 빨래버치를 안고 강변에 나왔었다. 바늘끝처럼 찌르고드는 추위에 너무 손이 시려 빨갛게 짓물린 언손을 품안에 넣고 녹이다 홀연 주인놈의 마고자조끼를 얼음구멍속에 빠뜨렸다. 눈앞이 아득한 분이가 얼음구멍주위를 뱅뱅 돌며 흐느껴우는데 지나가던 한 소년염부군이 사연을 듣더니 천방지축 밑으로 뛰여내려가 여울목의 얼음을 까고 건져다주었다.

분이는 그제 너무 고마와 더 목놓아 울었다. 그가 첫째였다.

그후부터 분이는 밤낮 소금투성이가 되어 돌아가는 첫째의 미역춤같은 옷을 자주 빨아주게 되었다.

《첫째가 네 이름이니?》

어느날 시내가 너럭바위에 나란히 앉은 분이가 이렇게 묻자 첫째는 머리를 끄덕했다.

《응.》

《피, 그런 이름도 있담.》

향긋한 썩일피는 냄새가 풍겨오고 영글은 모기떼가 귀밑에서 앵앵거렸다.

그들은 내물이 합쳐지는 밤바다우로 흔들거리며 떠오르는 허연 쪼각달을 바라보았다.

《저 달봐. 족사발갈지?》

그날도 골썩한 보리죽 한공기로 저녁을 넘기고 만 분이이다.

《배갈애, 소금배.》

턱을 고이고 하염없이 그 쪼각달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앞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표상들이 떠오른다.

창창바다 한바다에

배를 띄우니

짠물, 눈물 절인 몸에 한이 만리라

만리라아

어그야 그야-

배를 몰고 바다로 나오면 아버지는 늘 이런 노래를 불렀다.

가슴속을 굶으며 나오는것 같던 그 처량한 노래소리, 한팔로 억세게 노를 저을 때마다 추마냥 흔들거리며 바다바람에 허위허위 날리던 팔없는

한쪽 소매자락, 솟돌에 갈린 낫날처럼 늘 그 어떤 섬찍한 빛이 번쩍이던 그 동생 얼굴.

《덕삼아바이랑 하는 말이 아버지는 조선군사였대. 후엔 의병이였구. 조선군대 해산때 아버지에게 다 죽을번했던 야스께란 일본놈이 우리 아버지를 여기서 찾아냈다는거야. 몰아버진 그놈손에 몸에 칼이 박혀 죽었대. 그놈을... 그 원썬놈을 내 기어코 복수할테야.》

종주먹을 쥐며 울먹이는 소년은 목이 꺾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분이도 불행한 소년의 운명이 너무 가여워 어깨를 떨며 함께 울었다.

그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다.

엄지없는 새끼새들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훈훈한 인간의 온정을 나눠주면서 가까와졌다.

마음속에 시름과 피로움이 가득 쌓였다가도 분이는 첫째의 억실억실한 얼굴과 시원스런 눈만 보면 봄별에 눈독듯 풀리고 삶의 기운과 희망에 충만되는것이였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분이는 머리태가 칠칠히 등넘어 간 처녀가 되었다. 그 모진 세파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사랑은 봄풀싹처럼 유난하게 푸르렀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첫째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긴 살눈섭을 살쫓이 내려깔고 앉은 분이의 자태가 어쩌면 그리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것일까. 비록 세파에 치이긴 했어도 어쩔수 없는 젊음이 내비친 해맑은 두볼이며 가름한 턱이 달빛이 비친 내물속에 그대로 일렁인다.

분이가 언제 저렇게 아름다왔나싶으면서 가슴이 쓰렸다.

《분이! 며칠만 더 참아.》

첫째는 분이의 손목을 꼭 쥐며 부르짖었다. 볼길같이 뜨거운 첫째의 입김이 분이의 이마에 확 끼쳐왔다.

첫째의 두눈빛에 차넘치는 사랑의 열기에 분이는 그만 현운증같은것을 느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있는지 그들은 모르고있었다.

다음날 저녁이였다.

박지렬의 집에는 살진 군턱이 흔들거리는 늙은 왜놈 하나와 경부보 하나가 다시 찾아왔다.

놈들은 들어서자 바람으로 술판을 벌려놓고 무엇인가 쑥덕공론을 벌리더니 곧 분이를 불렀다. 부엌칸에서 식모를 돕고있던 분이는 물손을 씻으

며 뜰안으로 들어갔다.

《오, 분이 왔냐?》

늙은 왜놈과 대청우에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던 박지렬이 기름이 지르르한 목침같은 상통에 벌스레 웃음부터 발랐다. 분이는 심상찮은 예감에 전신이 서늘해졌다.

《부른건 다름아니라 에 지금이 〈국민총동원령〉이 내린 비상시국이 아니냐.

이번에 〈너자정신대근무령〉이 또 시달렸는데 거기 네가 뽑혔구나.》

《예?!》

분이는 한순간 가슴을 내질린듯 멍해 섰다가 비칠했다. 눈앞이 아득했던것이다. 《정신대》로 징발됐다는 한마디에 뿌리없는 나무처럼 비칠거리는 처녀를 굽어보는 세놈의 상통에는 음흉스런 웃음이 스쳐갔다.

《헌데 너야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사람인정에 어찌 그렇게야 할수 있겠나.

해서 여기 야스께리사님과 경찰서에 통사정을 했구나. 그래서 겨우 면제는 시켰다. 헌데 어렵...》

박지렬은 속이 가려운듯 가로 치째진 큰입을 벌려 건기침을 돋구었다.

《그대신 여기 야스께리사님의 집에가서 한 5년만 더 일을 해주어야겠다. 어떻나? 분이야.》

《야스께?》

분이는 불에 덴듯 놀라며 가운데 앉은 왜놈을 쳐다보았다. 첫째가 이야기하던 그 야스께 미노루, 첫째 아버지를 바다에서 생죽음시킨 그 왜놈이다.

야스께는 꼼짝않고 분이를 주시하고있었다. 침착하면서도 차거운 살기가 풍기는 뱀눈같은 두눈 빛...

앞섰이 터진 얼룩얼룩한 《유까다》자락이 무릎 아래로 흘러내려 보기에다 섬찍한 의족이 그대로 드러난 야스께는 반백의 구레나룻이 부르르한 상통을 실룩이며 노상 들고다니는 짙막한 《넛뽕도》로 한쪽 손바닥을 탁탁 쳤다.

이제 다시 종살이 5년...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순간 분이의 머리에는 이것이 놈들이 자기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꾸민 계책이라는 생각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몇번인가 제염소에 오면서부터 자기를 음흉맞은 눈으로 주시하던 야스께가 박지렬놈과 짜고 이런 흉계를 꾸밌을것이다. 분이는 심장의 피가

온통 뇌리에 쏘려 타번지는것 같은 격심함 분노에 한순간 의식마저 혼미해졌다.

《그래 어쩔테냐?》

박지렬이 초조해서 다그쳤다.

분이는 오연히 머리를 들었다.

《아니요. 난 안가겠어요.》

《어허!》

뜻밖인듯 박지렬은 흠칫 놀라며 허둥지둥 한손을 들어 샷대질을 했다.

《너 이년, 그럼 저… 〈정신대〉로 갈테냐?》

《전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 뭐라고.》

박지렬은 지랄치듯 뛰쳐 일어나며 발을 굴렀다.

《네 이년! 이제와서 무슨 생소리냐. 그래 이 박지렬이 모르게 네년이 그런 꿑꿑일 해? 그래 그놈이 어느놈이냐?》

종살이를 마치면 첫째와 성례를 치르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박지렬은 그만 분이 꼭두까지 치솟아 침방울을 튕기며 야스께에서 주어섬겼다.

《거, 거짓말입니다. 저년이 이자리에서 금시 지어낸 생소리올시다.》

《칙쇼.》

그러자 야스께의 옆에 앉아있던 경부놈이 이를 갈며 일어섰다.

《식민지종년주제에 무슨 잔치소까. 네년이나 거짓말이다. 네년이 우리 말을 안듣고 건딜상소소까? 래일이나 당장 떠나소소까.》

붉으락푸르락하던 경부놈은 줄개들을 시켜 분이를 당장 창고에 가둬넣으라고 했다. 줄개들이 달려들어 몸부림치는 분이를 끌어냈다.

《안돼. 못간다, 이놈들아-》

분이는 너무도 절통하여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창고안에 쓰러졌던 분이는 뼈격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다.

간데라를 쳐든 야스께가 역한 술내를 훅 풍기며 문을 등지고 서있었다.

파란 간데라불이 뻗혀처럼 날름거릴 때마다 광안에 비친 놈의 그림자가 무시무시한 음영을 던진다.

《너는 내 말대로 하는길밖에 없어.》

이러며 의족다리를 뼈격거리며 다가오는 야스께의 꼭 다문 입귀에 정복자의 도고한 오만이 음충맞은 웃음으로 비꼰다.

《오지 말아요!》

분이는 소스라치며 고함쳤다.

처녀의 그 샘물같은 눈빛, 희고 긴 목, 그린듯한 어깨가 침을 꿀떡 삼키게 했다.

《새파랗게 변하니 너는 더욱 미인이다.》

절망적으로 뒤걸음치던 분이는 얼결에 담벽에 박아놓은 낫을 뽑아들었다.

《으응?!》

야스께는 주춤했다.

계슴츠레하게 떴던 놈의 두눈에 차거운 빛이 칼날처럼 일어섰다. 놈은 비로소 정신을 차린듯 싶었다. 일년에 한두번 휴양삼아 찾아오는 이 룡천포구가 번마다 이처럼 쓴맛을 줄줄은 몰랐다. 10 여년전 죽는 순간에도 눈을 홉뜨며 불같이 웨치던 그 외팔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한데 오늘은 순종을 미덕으로 알아야 할 식민지의 가냘픈 제집마저... 자기를 쏘아보는 처녀의 증오에 타는 눈길은 야스께의 속에 이글거리던 정욕의 불길을 확 일구어놓았다.

검도훈련으로 몸을 다져온 이 사무라이는 선을 갓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힘이 황소같았다.

《칙쇼...》

놈은 이를 갈며 칼집으로 낫을 든 분이의 팔을 쳐버리고 적삼을 움켜쥐었다. 광포한 승냥이처럼 날뛰어 처녀의 옷을 내리찢었다.

《이 〈쵸센뻬〉! 너같은 노예년은 일본남아의 부름을 받은것만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아 악!》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저항했으나 놈의 힘을 당할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창고문이 광 하고 열리며 쇠장대를 든 한 청년이 비호같이 뛰어들었다. 첫째였다. 천방지축 뛰어온 박지렬의 식모에게서 자초지종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던것이다.

분이의 참상을 한눈에 훑어본 첫째의 눈에 불이 펄펄 일었다.

《이 짐승같은놈아!》

분노의 노성을 토하며 야스께를 발로 차 쓰러뜨린 첫째는 황황히 분이에게 달려갔다.

《첫째!》

분이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첫째의 가슴에 쓰러졌다.

《네놈은 누구냐?》

악을 쓰며 다시 일어난 야스께는 선불맞은 짐승처럼 이를 갈며 첫째를 노려보았다.

첫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푸른 섬광이 번뜩거렸다. 저도 모르게 이를 뿌드득 갈며 쇠장대를 들고 다가들었다.

야스께는 오싹 오금이 달라붙는 느낌에 숨을 헉 들이그으며 뒤걸음질쳤으나 담벽에 막혀버리고 말았다.

《야스께 이놈아!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라! 13년전 네놈에게 무참히 죽은 외팔이사공의 아들이다.》

첫째는 기업을 토하며 쇠장대로 야스께놈의 몸뚱이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원썬놈아, 아버지 복수다. 분이 뭍이다.》

야스께는 창고안이 떠나갈듯 비명을 지르며 육덕 좋은 몸을 뒤틀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뒤에서 후려치는 강한 타격에 첫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박지렬과 경보부가 어느틈에 하인들을 끌고 달려들었던 것이다.

《칙쇼, 이놈이나 오늘 죽어봐라!》

터진 이마에서 줄줄 흐르는 피를 한손으로 훔치며 가까스로 일어난 야스께는 악에 받쳐 넋돈을 뽑아들었다.

《안된다. 이놈아!》

그 서슬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분이 한달음에 달려와 첫째의 몸에 매달렸으나 경부놈이 옆구리를 구두발로 냅다 찼다. 분이는 악 소리를 치며 땅우에 나가딩굴었다.

야스께는 쓰러진 첫째의 두손을 발로 짓밟고 칼날을 꼬누었다.

《그 외팔이놈에게 이런 아들놈이 있는줄 몰랐구나. 잘 만났다. 네놈도 오늘 끝장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발을 사러물며 첫째의 손등에 칼날을 박았다. 으흠, 첫째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놈은 더욱 살기가 뻗었다.

손등을 켜 준도날이 봉당에 박힐 때마다 선지피가 내뿜쳤다. 놈은 아예 첫째를 죽일 잡도리였다.

그러는것을 박지렬이 매달려 간신히 말렸다. 사실을 어차피 염전로동자들이 알게 될텐데 그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아니다. 저놈을 그냥 살려뒀선 안돼.》

야스께는 털이 부스스한 불편을 푸들푸들 떨었다. 놈은 속으로 악착한 흥계를 꾸미며 분이를 가리켰다.

《나까무라! 이놈은 여기 두고 저년을 끌어다 래일 당장 <정신대>로 보내라. 우리 병사들이 저

년의 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짓밟게 해버려.》

경부놈과 박지렬이 분이의 팔을 잡고 끌어내갔다.

《첫째!》

분이는 결사적으로 팔을 잡은 나까무라의 손을 깨물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얼결에 팔을 놓았다.

《안된다. 이놈들아, 그이를 내나라.》

피를 토하는듯한 소리를 지르며 창고안으로 내달랐다. 그러나 경부놈이 다시 앞을 막았다. 무서운 독기가 화살처럼 내뿜친 분이의 눈길에 질겁한 놈은 총알같이 달려드는 분이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후려쳤다. 실낱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분이는 땅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분이는 복으로 달리는 완행렬차의 유개화차에 실려있었다.

까맣게 탄가루를 뒤집어 쓴 화차안에는 중국화복전선으로 끌려가는 애 어린 처녀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넋이 나간듯 악몽에 잠겨있던 분이는 레루이음 째를 넘는 덜커덕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첫째에 대한 걱정이 산같이 떠올랐다. 봉당에 내뿜친 첫째의 손등에 박히던 칼날이 눈앞에 사무쳐와 분이는 몸서리쳤다.

이제 가면 다시는 첫째를 만날것 같지 못했다. 차리리 죽으면 죽었지 그 극악한 왜놈들에게 끌려가 짐승같은 치욕을 당할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천근의 무게로 가슴속에 비집고들었다. 차라리 첫째를 가슴에 고이 품은 혼으로 죽고싶었다.

렬차가 국경을 넘어 어느 간이역을 떠나기 시작할때 분이는 지친 몸을 끌고 가까스로 유개차의 창문을 밀어젖혔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고향의 밤바다우에 떠있던 그 죽사발갈던 쪼각달이 찬 공기속에 그를 따라온다.

《첫째!》

분이는 목놓아 부르며 눈을 감았다...

의식을 잃었던 분이 정신을 차린것은 어느농가집 방안이였다.

《윈, 쫓쫓, 짧은 가시내가 이 무슨 액변인고.》

간신히 눈을 뜬 분이는 두 늙은 내외가 자기 머리맡에 앉아있는것을 발견했다. 자기가 살았다는것을 느끼자 분이는 그만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그 집은 농사짓는 늙은 조선인내외가 사는 외딴집이였다. 수수밭을 가꾸러 나갔다 분이를 받

견하고 업고 들어온 로인은 연신 허를 찔렀다.

《죽을 각오를 했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기어기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

절망에 잠겼던 분이에게 로인의 그 말은 큰힘이 되었다. 결코 죽을수 없었다. 그 악착한 왜놈들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죽어서는 안되었다. 살아서 첫째도 기어기 만나야 했다.

로인내외의 극진한 간호로 몸을 추세운 분이는 로인의 딸아들 주선으로 도시로 들어가 어느한 제사공장에 들어갔다.

패망에 직면한 일제놈들의 채찍밑에서 고역을 당하면서도 그의 뇌리에는 첫째가 떠난것이 없었다. 첫째가 잘못되었으리라고는 생각도 않았다. 어딘가에서 자기들의 사랑을 키우던 염전마을, 그 시내가 버들숲을 생각하고있으리라 믿었다.

해방은 꿈처럼 왔다.

2 천만의 가슴에 지지리도 엉키고 서렸던 식민지한을 씻어내리는 해방의 눈석이... 그 해방의 봄시위물을 타고 것처럼 기승을 부리며 정복자의 오만을 누리던 왜놈들이 만신창이 되어 섬나라로 쫓겨갔다. 아이들은 건일이, 옥이라는 부모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 되찾고 수십년을 울고불며 작별만을 실어가던 역혼으로 상봉과 환회를 가득 실은 열차들이 들어오고...

염전마을도 온통 해방기운에 부풀어있었다.

죽었다던 분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자 맨 먼저 허둥지둥 달려온것은 덕삼아바이였다.

《네가 살았구나.》

거울진 손으로 연송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저는 줄곧 줄줄 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자 염전사람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박지렐놈을 요정냈다고 한다. 그러나 것처럼 악독하게 조선사람들을 살륙하며 못살게 굴던 야스께놈은 끝내 도망쳤다는것이였다.

덕삼아바이는 치를 떨었다.

《그 짐승같은놈이 글썽 여기 제놈 별장에 있던 조선하녀들을 모조리 찢러죽이고 <다시 온다. 기다려라> 는 종이장을 때문에 박아놓고 도망쳤다는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게 순순히 쫓겨만갈놈들이 아니다.》

분이는 야스께놈을 놓친것이 너무 분해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아바이! 첫째소식은요?》

분이는 무엇보다 첫째소식이 급해 물었다.

《글썽. 그날밤 놈들이 어디론가 끌어갔다는데

그후론 종무소식이구나. 그 야스께놈을 꼭 잡았어야 하는건데...》

아바이는 맥없이 무릎을 쳤다.

분이는 그만 맥이 탁 풀렸다.

불안과 희망, 걱정과 기대가 엇바뀌며 처녀의 속을 태웠다. 그러나 어디엔가 꼭 살아있다고 분이는 믿었다.

그 무엇인가 쉽게 포기할수 없는 삶의 열렬함이 자기들을 굳건히 련결시켜주고있다고 분이는 생각했다.

기다림... 안타까운 기다림속에 한해두해 세월은 흘러다.

《징용》갔던 사람들도 올 사람은 다 돌아왔다. 그들속에도 첫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첫째! 어디 있어?》

수산합작사의 하루일이 끝난 저녁이면 처녀는 합숙창가에 서서 구만리로 뻗어간 밤하늘에 총총히 돋은 별들을 바라보며 한없는 그리움속에 간절히 속삭이군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이를 옆에서 보기가 딱한듯 아무래도 첫째는 잘못된 사람이니 마음을 달리 먹으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자기의 순결한 마음이 모욕이나 당한듯 눈물이 그렇게서 그 사람들을 비껴가군했다.

해방된 새 조국의 날과 달은 벅차게 흘렀다.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법령발포... 공화국이 창건되였다.

평양에서는 수십만시위군중의 참가하에 공화국 창건 기념시위가 진행되였다.

꽃바구니에서 비둘기떼가 구름처럼 날아오르고 망치와 낫의 모형을 들고 꽃수레를 탄 로동자, 농민들이 감격의 눈물속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광장을 지나갔다.

그 며칠후에는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공민증이 수여되였다.

공민증을 수여받던날 분이는 너무 가슴벅차올라 합숙방안에서 공민증을 품에 꼭 안고 울고 또 울었다.

《첫째! 이제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분기계획총화모임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서던 분이는 《애! 분이야!》하고 찾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회관쪽에서 덕삼아바이가 황황히 달려오고있었다. 늘 해풍에 절어 꺼멓던 얼굴은 검붉게 상혈되어있었다.

《왔다!》

아바이는 먼발치서부터 염전마을이 떠나가게 소리질렀다.

《오다니요?! 누가요?》

분이는 전류마냥 가슴속으로 지나가는 그 어떤 예감에 심장이 쿵 뛰었다.

《첫째가 왔다. 저길 좀 보렴.》

아바이가 가리키는 그곳, 회관 한옆에 군용짚차 한대가 서있었다.

차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성큼 뛰어내렸다. 이 쪽으로 뛰어온다. 눈처럼 흰 정복을 입었다.

(그이다.)

하는 직감이 심장을 쿵 때리는 순간 분이는 가슴이 둔한 그 무엇에 내질린듯 숨이 꼭 막혀왔다. 눈앞이 휘 돌았다.

《첫째...》

다섯해동안 매일같이 마음속 깊은곳에 간직하고 부르고 또 부르던 그 이름은 정작 입안에서 잦아들고말았다. 그는 발이 어디 놓이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내달렸다...

《분이!》

아득한 창공에서 들려오는듯싶은 목소리에 분이는 정신을 차렸다. 파아란 하늘 그 한복판에 커다랗게 확대된 흰연... 눈앞에 서렸던 안개같은 것이 점차 가셔져서야 분이는 그것이 연이 아니라 해군모라는것을 알았다. 그 해군모밑에 병글썩 웃는 얼굴이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기름하면서도 관꼴이 두드러진 얼굴, 술진 눈썹밑에 기쁨과 환희에 타는듯싶은 어글어글한 두눈.

《믿었어, 이렇게 다시 만날줄.》

순결한 행복감에 떨며 분이는 꿈처럼 속삭인다. 첫째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인다.

《해방이 좋긴 좋다. 무지령이 염부군이 나라 지키는 군사가 되어오다니 이게 이만저만 경사냐.》

그들의 뒤에서 덕삼아바이의 눈물젖은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그날 저녁, 랑동간을 톡 터친 덕삼아바이네 집에 염전마을 남녀로소가 첫째의 이야기를 듣자고 다 모여들었다.

압제자들의 발굽에 밟힐대로 밟히우고 언제 한번 자기들을 사람값에 든다고 생각해본적 없는 염부군들에게 자기들속에서 나온 첫째가 나라 지키는 군사의《대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염전 개펄에서 신선이 났다는 소리만큼이나 놀라운

사변이었다.

《아니, 자네가 그 첫째가 맞긴 맞는개비, 응? 이 사람 한번 안아봅세.》하면서 그를 얼싸안은 장정이 있는가 하면 저저마다 났을 잃고 금빛 견장이며 누런 수장을 쳐다보고 무릎걸음으로 다가와서는 그의 군복을 만져본다.

동그런 해군모는 정지목에서부터 온 방안을 다 돌며 누구나 한번씩 다 써보는판이다.

《그래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얘기하게나.》

덕삼아바이가 사람들의 간절한 궁금증을 그대로 담아 묻는다.

그처럼 준수하고 의젓하게 달라진 첫째도 가슴에 가득 쌓인 걱정을 이야기하자니 목이 메는듯싶었다.

《그날밤 제가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짐짝처럼 묶여 실려간곳은 살아서는 못돌아온다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해군기지였습니다.》

...무더위와 전염병이 끊어번지는 열대의 무인디아, 가슴에 번호패죽 하나씩 달고 매일같이 지구축에 내몰린 《징용》인부들.

왜놈들은 말먹이사료를 끓인 가마앞에 말과 조선사람을 같이 세워놓고 함께 먹였다. 먹는물이 모자란다고 물도 끊어버렸다.

조같이 인 입으로 단숨을 내쉴다 못해 바다물을 퍼마시고 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지던 인부들...

악귀같은 왜놈들은 고통을 견딜수 없어 달아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앞에서 두귀를 잘랐다. 바줄로 묶어 자동차로 끌고가서 산채로 수장했다. 무기를 운반하다 총창 하나를 잃었다고 그자리에 서 참대봉으로 개처럼 때려죽였다.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조선사람들...

눈앞을 스쳐가는 몸서리치는 순간들의 아우성에 첫째는 진저리쳤다.

《그들속엔 놈들에게 〈정신대〉로 끌려온 녀인들도 있었습니다. 짐승같은 왜놈들에게 밟히고 찢기우며 온갖 치욕을 다 겪던 그 녀인들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생생합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놈들은 그 섬에 동원됐던 수백명의 인부들과 녀자들 모두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면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끌고 나가 어뢰를 쏘아 모두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저는 원시림속에 들어가

원주민들과 목감자를 파먹으며 살다가 47 년도에
야 조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날수 있었습니다.》

…뚝뚝이 찢기고 배전이 떨어져나가 만신창이
된 배가 수상보안대의 경비선에 이끌려 겨우 항
구에 들어섰던 그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새 삶의 희망에 넘쳐 자
기들의 고향으로 모두 헤쳐갔다. 그러나 한 청년
만은 뚝천으로 돌돌 만 긴 물건을 메고 부두옆의
수상보안대를 찾아갔다.

보안대장을 만난 그는 그 뚝천 꾸레미를 풀었
다. 그것은 가목이 부러진 왜놈들이 38 식보총이
였다.

《대장님!》

청년은 목메여 부르며 무릎을 꿇었다.

《다시는 노예로 살고싶지 않습니다. 이 손에
총을 잡게 해주십시오. 왜놈들은 제가 반항의 주
먹을 들었다구 이 손에 이렇게 칼날을 박았습니
다. 족쇄를 채워 바다에 내몰았습니다. 다시는 그
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우리 녀인들을 짓밟
지 못하게 전 이 손에 총을 잡겠습니다.》

대장의 눈길은 엉마나 다름없는 청년의 차림새
를 거쳐 소금에 녹슬고 가목이 부러져 파철이나
다름없는 38 식보총에 머물렀다. 가슴이 뭉클했
다.

이름도 부모도 없는 이 청년의 가슴에 사무친
한이 오죽했으면 그리고 그날껏 겪은 수난과 굴
욕이 오죽했으면 그 머나먼 남태평양에서 저 부
러진 총을 들고 해방된 조국의 품을 찾아왔겠는
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꼭 쥐었다.

《동무같은 사람이 총을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
소. 주겠소. 저런 왜놈의 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총을 말ियो.》

그러면서 대장은 주위에 둘러선 대원들을 둘러
보았다.

《그러나 총을 주기전에 우리 우선 이 동무의
이름부터 지어주어야지 않겠소?》

《웁습니다.》

대원들이 다 호응해나섰다...

한달후 청년은 새로 창설되는 수상보안간부학
교로 떠나갔다...

《그 수상보안대장동지는 백두산에서 김일성장
군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혁명투사동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첫째는 옷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를 꺼내 샷자리가 깔린 방안우에 내놓았다.

《아바이! 이게 제 군관신분증입니다.》

《군관신분증?》

《예!》

옆에 앉았던 분이가 호기심에 차서 그것을 받
아들었다. 진갈색바탕에 노란테가 그려진 가운데
《신분증》이라고 씌여진 뚜껑을 펼치니 첫째의 사
진이 있었다.

그밑에 《강철국》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 항일혁명투사동지는 제가 김일성장군님을
받드는 강철기둥이 되어 조국을 지켜 역세게 싸
우라고 제 이름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강철국, 하 그 이름 참 좋다.》

덕삼아바이가 무릎을 철썩 쳤다.

마을사람들의 입에서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나
왔다.

《그러니 자네 안팎으로 다시 태어난셈이군 그
래.》

(강철국.)

분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뜻깊
은 새 이름을 몇번이고 외웠다.

분이의 손에서 신분증을 받아 소중히 두손으로
받쳐들며 철국은 걱정예 떨리는 어조로 이었다.

《여러분!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권리가 무엇이
겠습니까.》

우리가 해방덕분에 공장의 주인도 되고 염전의
바다의 주인도 되었지만 무엇보다 반항의 낮 한
가락 들수 없었던 우리 손에 총을 잡을 권리를
주신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전 행각합니다.

이 군관신분증은 그 권리의 증서구요. 이 권리
를 전 목숨처럼 지키겠어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습
니다.》

박수가 터졌다.

《웁거니. 장하다! 무관을 홀시하던 그런 때가
있어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옛날부터 작은 나라일수록 군대가 강해야 부흥,
부국한다 했거늘 우리 마을에서도 김일성장군님
받들어 총들을 잡아야겠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긴 장죽을 흔들며 하는 말
에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온 염전마을의 경사속에 진행
되었다.

신부치장을 하고 상앞에 나앉은 분이는 눈부시
게 아름다웠다. 바다물처럼 푸른 진남색 치마를
드리운우에 삼희장을 놓은 초록빛저고리를 입고

머리카락 한올 빛나가지 않게 반듯한 가리마를 내고 밀기름 곱게 바른 머리를 참빗으로 단정히 빗어 남자를 올렸다. 그 청초하고 깨끗한 모습이 저 처녀가 과연 몇해전 박지령의 종으로 갓은 천대를 받던 그 분이냐 옳은가싶을정도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끈것은 철국의 모습이었다. 금빛 눈부신 중위의 건장이 달리고 팔소매에도 붉은테의 누런 수장을 두른 해군군관복을 입고 의젓이 상앞에 앉아있는 철국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눈굽을 찌릿하게 했다.

《아무리 해방이 세상천지 변화를 가져왔대두 군복입고 장가를 가는 사람은 참 보누만.》

《참 희한한 잔칠세.》

《여보게 신랑! 임자 신방에도 군복차림 그대로 들어갈 차빈가? 색시가 무서워 엄두를 못내겠네. 하하.》

제염소 한 반장의 호걸스런 소리에 《애개개》마을녀인들이 자지러진 소리를 했다.

《하하하.》

남정들의 헌걸찬 웃음소리...

《성례도 치르지 못하고 생리별한 저애들 혼백이 이국땅에 뿔뿔이 문힌것만 같아 내 잠을 못잠네 그러.》

신랑신부의 첫잔을 받은 덕삼아바이의 목소리가 눈물에 잠겼다.

《철국아! 새 조국의 무관이 된 그 모습을 너희 아버지가 본다면 아마 땅속에서도 한을 풀고 눈을 감으실게다.》

다음날 철국은 바다가 야산에 자리잡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해방이후 마알사람들이 다시 봉분을 올리고 정성껏 잔디를 심어놓은 그앞에서 철국과 분이는 너무도 불행하게 한생을 마친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

머칠후 철국은 분이를 데리고 서해의 한 군항에 자리잡은 군관사택마을로 갔다. 송림이 우거진 산기슭 오붓한 단층집에 신희살림을 켰다.

경비정 정장인 철국은 거의 바다에 나가 살다싶이 했다. 남녘땅에 《단독정부》를 세운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은 육지와 해상에서 매일같이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었다.

분이는 남편과 함께 전장을 지키는 심정으로 부두확장공사장에 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가족들의 군사훈련에도 열성껏 참가했다. 집안도 이웃들이 허를 차게 알뜰히 거두었다.

함선이 수리를 하게 되어 오래간만에 군항에

정박하게 되었던 어느날 철국은 안해가 타준 오이랭국을 맛보다가 너무 신맛에 입이 뻘어 허를 내둘렀다.

분이는 그만 얼굴이 파리빛이 되어 어쩔줄 몰라했다.

《태기가 있는게 아니요?》

철국이 그 억실억실한 눈을 빗내며 이렇게 묻자 《아이, 몰라요.》 분이는 그만 웃고름을 깨물며 부엌으로 뛰어나갔다.

《하하, 만세로군.》

그렇다는것을 알게 된 철국은 해풍에 끄슬린 적동색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으며 기뻐 돌아갔다.

분이는 이듬해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철국은 그 아들을 볼수 없었다. 전쟁이 일어났던것이다.

한뼉 노예로 피땀을 뻘리우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져 본 꿈의 보급자리를 노려 또다시 침략자들의 삼단같은 불길이 쏟아졌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미 속수무책으로 자기 운명을 침략자에게 내맡기던 반세기전의 그 인민이 아니었다.

온 나라 인민이 분노에 피를 끓이며 손에 총을 잡고 일어섰다.

함선들도 남진하는 진격대오를 따라 보급기지들을 옮기며 남으로 내려갔다.

적들의 함포사격이 너무 심하여 분이는 아들을 업고 룡천제염소 덕삼아바이 집으로 갔다.

철국은 편지마다 보지 못한 아들에게였다. 이름도 지어보냈다.

《철해... 강철해.》

아버지 대를 이어 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라는 뜻이다.

젖살이 보동보동 올라 손을 마구 내저으며 어, 어 소리를 하는 아기의 얼굴을 애모쁜 눈길로 들여다보며 분이는 먼 남쪽하늘을 향해 간절히 속삭이였다.

(여보! 어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전선이 랑동강계선에서 피어린 공방전으로 넘어갔던 어느날이였다.

도로복구장에 나갔다고던 분이는 통신원으로부터 류다른 편지를 받았다. 분명 전선에서 자기에게 보낸 편지였으나 남편의 글씨가 아니였다.

분이는 가슴이 내려앉는듯했다. 속이 후드득 떨려다. 한참뒤에야 속지를 뿔아들었다. 그것은 남편이 속한 부대의 부대장이 보낸것이였다.

《아주머니, 경비정 356 호 정장 강철국동무는 적들의 항구를 봉쇄하는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 하였습니다. 여기 보내는 편지는 그가 그들 출항 전에 항구에서 쓴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왔다. 무수한 동그라미들이 불꽃 같은것을 튀기며 엇물러돌아갔다. 현실이 아닌 그 어떤 꿈속의 일이기를 바라며 두번세번 편지를 읽었다.

그것이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라는것을 확인하자 가슴속에 한가득 차오른 슬픔을 더는 견딜수 없었다.

해풍에 그슬린 남편의 얼굴이 마주왔다.

《분이! 당신이 웬일이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 하는 이 싸움에 무슨 일인들 없겠소. 우리 서로 맹세하지 않았소. 목숨바쳐 이 조국, 이 체도를 지켜내자고. 그 맹세를 잊었소?》

분이는 내심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충격에 정신을 차렸다. 흐르는 눈물속으로 남편의 편지를 읽었다.

《분이! 난 지금 전투를 앞두고 함상에서 이 편지를 쓰오. 우리에게 대를 이어갈 병사가 새로 태어났으니 난 한이 없소. 더구나 그애가 나를 닮았다니 막 달려가 안아보고싶구만.

지금 우리앞에는 미국놈들과 5년전에 쫓겨갔던 그 왜놈들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하오. 우리의 손목을 조이던 그 쇠사슬, 겹겹으로 우리 몸을 에워쌌던 천애와 무권리를 벗겨주시고 조국수호의 이 군복을 입혀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난 목숨바쳐 보답할테요.》

그러나 분이는 철국이 그 편지를 쓴 다음날 벌어진 해상전에서 바로 그 철천의 원수 야스께 미노루를 또다시 만났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격렬한 기뢰부설전이었다.

적들이 마구 쏘아대는 해안포와 함포탄에 산더미같은 물기둥들이 수풀처럼 곤두섰다. 그들이 터뜨린 연막탄의 질은 연기가 죽가마처럼 끓는 바다위에 숨막히에 뒤덮였다.

하지만 적들도 결사적이였다. 한개 해병편대가 앉은 자리에서 물귀신이 되느냐 살아나느냐 하는 운명적인 길목이였다.

항구입구에 기뢰를 부설하던 목선들이 련이어 침몰되고 남은것은 철국의 경비정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경비정도 해안포탄에 현측이 몇중되어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철국의 가슴은 재가 없다 못해 하얗게 번져지는데 같았다.

아직 가장 큰 자석기뢰가 세개나 남았다. 항구

입구의 침하지점까지는 1400미터, 너무도 멀다.

앞을 주시하던 갑판장이 우측에 적 소해정이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정황을 살피던 철국은 다음 순간 결연한 결심을 채택한다.

갑판장과 세명의 해병을 이끌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연막연기속을 헤가르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소해정이 그들의 경비정이 침몰된 지점을 배회하며 기뢰를 찾는 순간에 그들은 선미의 쇠란간에 매달렸다.

그들이 갑판위에 올라서자 경악한 적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수류탄뭉음을 안고 달려드는 결사대원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눈앞에 다닥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씹누히며 조타실로 뛰어든 철국은 거기서 함장놈과 함께 있는 견장없는 군복의 백발상고머리 사민을 발견했다.

총구를 쳐드는 순간, 그 순간에 철국은 꿈이 아닌가싶었다.

《야스께 미노루!》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 늙다리는 흠칫 놀라는것이였다.

《야스께! 네놈이 또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자고, 어렵도어 없다.》

약소국을 강탈하고 제것처럼 짓밟으며 전횡을 부려보는 그것도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면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법이다.

야스께는 홍안의 젊은 나이에 칼부림과 살륙으로 첫발을 디딘 조선땅에서 보낸 식민지전성기의 그 제왕갈던 시절을 도저히 잊을수 없었다.

전패국의 무용지물로 가고시마 한 촌락의 전세방에 의족다리를 깔고 앉아 가슴만 뜯고있던 그에게 미군의 조선전쟁은 눈을 확 띄워주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었다.

북조선해안에 대한 수로안내를 의뢰하자 야스께는 당장 왕년의 그 애용하는 《닛뽀도》를 찾아 들고 나섰던것이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운명의 해우도 있단말인가. 수십년전 스물도 안된 그 나이에 천적으로 만났던 그 《외팔사나이》의 아들, 그 아들을 그때의 자기와 똑같은 혈기넘치고 생동하는 조선인민군의 중위로 이 서해의 이름없는 항구에서 또다시 만날줄이야.

《아-》

최후의 순간이 왔다는것을 절감한놈은 해도가 인 탁상한옆에서 레의 《닛뽀도》를 뽑아 제가슴을

겨누었다. 자결하려는것이였다.

순간 철국의 총타이 놈의 손을 처넌겼다. 수천, 수백 조선인민의 피가 묻은 그 《닛뽀도》를 빼앗아든 철국은 늙은 승냥이의 더러운 몸뚱이를 조타실벽에 힘껏 못박았다. ...

잠시후 침몰한 경비정의 자석기뢰를 옮겨 끌고 소해정은 최후의 동음을 울리며 부다방파제끝에 남은 마지막 기뢰부설지점으로 육박해갔다.

아버지의 비참한 운명이 묻힌 바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아들이 승리자로 그 바다에 섰다.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작렬하는 섬광이 쇠물빛으로 타번지는 바다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갑판우에서 자석기뢰의 쇠고리를 억세게 틀어잡은 강철국은 웃고있었다.

며칠후 읍에 있는 조국보위후원회에 한 녀인이 나타났다. 입대를 청원하는 녀인은 자기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듯 태머리를 자르고 단발을 하고있었다.

그는 덕삼아바이집에 아들을 맡기고 떠나온 분이었다.

1 년후, 단기군의강습소를 졸업한 분이는 전선동부 한 야전군의소 간호장으로 임명받았다.

소위의 군사칭호를 받고 자기의 권총번호가 기입된 군관신분증을 받아든 분이는 새삼스런 격정속에 오래도록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회억의 뜨거운 물결이 가슴속에 북받쳐올랐다.

(철해 아버지! 비울수 없는 그 자리에 제가 들 어섰어요.)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때로부터 20 여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가을날, 수도에 자리잡은 인민군중앙병원접수에 해군대학을 갓 졸업한 한 중위가 찾아왔다.

직일관의 안내를 받아 2층 정치부장방에 이른 그는 조심히 무기척을 하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상좌의 견장을 단 녀인앞에 이른 그는 손을 울리며 힘차게 보고했다.

《상좌동지! 해군중위 강철해 해군대학을 졸업

하고...》

책상앞에 앉아 무엇인가 쓰고있던 녀인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한순간 그의 눈앞에 착각이 일어났다.

전쟁전, 룡천포구에 찾아왔던 남편과 너무나 똑같은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금빛견장, 그 흰 연...

《이애야!》

녀인의 두손이 허공으로 올라가며 탄성이 터졌다.

분이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들을 한품에 껴안았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경비정 정장으로 임명받았어요.》

《장하다. 정말 장해.》

분이는 목이 메여 몇번이고 되뇌인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강훈련에 단련된 찻벌어진 어깨머 폭양에 탄 철색얼굴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분이는 가슴속 진정을 담아 말했다.

《철해야, 강한 군대를 가질 때만이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담보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단군이래 수많은 크고 작은 외래침략에 피눈물의 수난을 당해 온 그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할수 없다.

네가 지는 그 군관신분증에 앞서간 세대들의 얼마나 절절한 당부가 담겨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알겠어요. 어머니!》

철해의 얼굴에는 자기 세대의 의무를 심장으로 감수하는 굳은 결의가 차넘쳤다.

군관들... 오늘 조국의 령공과 파도사나운 바다, 최전연초소들에는 강철해와 같은 수천수만의 군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골간이 되여 서있다.

한생을 험준한 산밭을 뚫아오르고 역수 쏟아지는 훈련길, 차디찬 전호가의 언땅에서 사는 그들에게는 공민증이 없다. 군관신분증이 있을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 가나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 나라의 가장 값높은 공민임을 증명한다.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김봉운

사람들이여
내 만약 혈전의 언덕에 홀로 쓰러져도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한생 붓끝에 운명을 걸고
폭풍치는 시대의 열파속에
한몸 던진 시인이라고

내 때로 생각한다
저 들길에 흩어진 냇이
시인이던가
비내리는 들판에 울며 헤매던
매맞고 뜯기우던 아픔이
시인이던가

바위에 부딪쳐
파도는 흩어져 산산이 뿌려져도
나의 물음
시인아, 너의 운명의 닻은
언제 시대앞에 올랐더나

아, 초혼을 부르며 간
눈물의 인생길에
남긴 자옥 안아줄 사랑이 있었던가
빼앗긴 들에 봄종다리를 찾은
그 피터진 운명의 묘비에
시인이란 이름 누가 새겨주었던가

살았어도
나라없는 찬바람 하늘아래에 선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고
이 말을 남긴이 찾을길 없고
붓을 들었어도
태양을 알지 못한 노래는
피맺힌 초혼으로 이땅에 남았나니

아, 나도 몰래
이 가슴에 파고드는 목메인 웨침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때없이 스며드는 이 뜨거움에
격하여 바라보는 저 푸른 하늘
쏟아지는 해빛속에
눈부신 모습들이 가슴에 파고든다
한별을 우러러 붓을 든 심장
원췌의 불구멍을 몸으로 막으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돌도 없는 청춘과 함께 바친 시

참답게 바친 삶
참답게 남긴 그 시앞에
조국은 시인이라 불러
영웅보다 더 값높이
시대앞에 세워주었나니

내 아직 투사시인처럼
밤하늘에 한별의 노래 빛낸적 없고
병사시인같이
시와 함께 원췌의 불구멍 막지 못했고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린 시인처럼
목소리 또한 높지 못해도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그 삶의 높이에
내 스스로 오름은
격랑 사나운 인생의 길에
태양밖에 모르는
나의 붓
나의 웨침은
노래로밖에 달리 될수 없는 운명이기때문...

아, 력사의 자옥 더듬어 헤치던

시는 조선혁명
조선혁명은 아름다운 노래
투쟁의 불길속에 태어난
시가 없이 노래가 없이
어찌 혁명의 자욱자욱 빛날수 있으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일심단결의 봉화가 되어
만리격랑 천만산악도 뚫고헤치며
이 땅우에 불멸의 서사시를 새기는 길에
내 심장을 아끼랴 목숨을 아끼랴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이 한몸 총폭탄이 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여
내 만약 원쑤와의 격전에서
쓰러진대도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총폭탄으로 터친 량심이라야
이 땅에 남길수 있는 말
나를 시인이라 불러달라!

금강산만물경외 1 편

(중국) 김재현

구름우에 산이요
산우에 구름이라
천국에 올랐으니
신선이 나로다

구름속에 천봉만악
천자만태 자랑이요
꿈나라 별세계
금강산의 만물경

기껏해야 ...

자그마한 곤난에 봉착할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에는

자그마한 실수를 할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닥쳐올 곤난에 걱정이 끊고
닥쳐올 불행에 조이는 가슴

그럴 때면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
-기껏해야 그이상 더...

이렇게 생각하면
파문이 찾아지는 마음의 호수

돛배는 저 언덕 행해 달리리
희망의 꽃봉오리 손저어부르는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리광림

날로 풍성해지는 우리 소설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오늘 과학환상소설이 활기를 띠고 창작되고 있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은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신심과 락관, 량만을 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과학환상소설에 특별한 애착을 품고있는 나는 새로운 과학환상소설들이 나올 때마다 남먼저 흥미있게 즐겨 읽어보군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 독자들의 정신력역을 새롭게 넓혀주기 위하여 애쓰고있는 작가들의 남다른 수고가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군한다.

나는 얼마전에 과학환상중편소설 《푸른 이삭》(황정상 작)과 과학환상중편소설 《ㄸ-1 촉매의 비밀》(신승구 작)을 오래간만에 다시 손에 쥐게 되는 기회를 가지였다. 이전에도 읽은뒤에 좀 생각되던것들이 있어 이번에는 꼼꼼히 새겨가면서 읽어보았다.

이 작품들은 우리 독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점령하며 과학탐구의 포부와 희망을 안겨주는데서 제 나름의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은 진정한 과학탐구의 립장과 자세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옳은 과학탐구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과학환상소설 《ㄸ-1 촉매의 비밀》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미래의 동력문제해결을 위한 과학환상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과학탐구의 열정을 북돋아주고 있다.

물론 작가의 의도와 형상간에는 일정한 간격도 생기고있으나 이 작품들은 의의있는 문제성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이 두 작품이 과학환상문학에서 반드시 장려하고 해결해야 할 상반되는 문제점들을 안고있다고 본다. 이것이 오늘 과학환상소설의 일반적인 실태를 보여주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음미해보았다.

이 소설들은 얼핏 보매 미끈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좀 허전한 느낌을 주었다.

(이 과학환상소설들이 일정한 문제성을 안고있으면서도 왜 읽은뒤가 크게 남지 않을까?)

옥속에 티가 섞인것이라면 제껴 찾아낼수 있을련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파아란 유리로 정성들여 만든 공예품을 보는것 같다. 척 보기엔 미끈하고 광택이 있어보이지만 볼 때뿐이다.

내용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번듯한것 같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걸어쥔수 없는것, 세월과 더불어 점점 희미해지는것, 이러한 실체는 흘러가는 인간생활속에 얼마든지 많다. 이것이 곧 생활의 레상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아름다운 한점 불꽃들로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할 문학작품들이 이렇게 되는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소설형태마다 다 자기의 특색이 있다. 청춘의 푸른 리상이꿈같이 내려치는 앞날의 과학세계를 독특하게 비껴담고있는 우리 과학환상소설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지울수 없는 감흥을 새겨주는 생활의 결정체들로, 문학계의 청옥들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

아름다운 보석인 청옥! 언제인가부터 입속에 종종 올려보곤했던 이름이다. 금은보화 가득찬 금수강산은 우리 조국땅에는 5대보석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홍옥, 청옥, 록옥, 단백석, 보라수정을 비롯한 수많은 품위높은 보석들이 널리 분포되어있다.

우리 소설문단도 이런 귀한 보석들로 하여 이채롭게 빛나고있다고 할수 있다. 이 많은 보석들중에서 청옥이 특별히 나의 눈을 끌며 마음속 깊이 파고든다. 하늘을 다 그속에 담아넣은것 같은 맑고 푸른 웅심깊은 빛갈, 시각을 붙자고 놓아주지 않는 선명한 유리광택, 더우기 강하다고 하는 수많은 금속들보다도 비할바없이 굳고 굳은 청옥. 어찌보면 앞에서 말한 유리공예품도 이와 류사한듯하다. 그러나 그 느낌은 순간적이다. 보면 볼수록 그사이에는 엄청난 정서적거리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것이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은 청소하고 이제 첫걸음을 뻗데 불과하다. 하지만 소설은 소설다와야 한다. 옥에 묻은 티나 얼룩은 없앨수도 있고 너그럽게 리해될수도 있다. 작품은 비록 티가 있고 얼룩이 졌어도 사람들을 힘있게 틀어잡은 매력과 속깊이 간직된 정서적감화력이 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소설들이 유리공예품처럼 모양과 빛갈에만 치중하고 내용을 웅심깊게 가꾸어내지 못했다고 본다.

우리 과학환상소설에는 의의있는 종자도 깊이

있게 심어져야 하고 그를 정서적으로 힘있게 부각시켜주는 형상도 아름답게 비껴돌아야 하며 기발하고 엉뚱한 과학환상도 힘차게 내려쳐야 한다. 그런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이 작품들에서 생동하게 로출된 종자를 보게 되었고 피상적인 인간성 격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작가의 주관에 무리하게 용해된 과학환상도 보게 되었다. 생리적으로 요소들이 원만하지 못하고 이 요소들의 튼튼한 맥락도 느껴지지 않는다. 작품을 읽고 받은 허전한 감정은 다 이런 꾸민듯한, 진실치 못한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과학환상소설 작품들의 질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청옥에 대해 다시 상기해보게 된다. 청옥의 화학식은 Al_2O_3 이다. 가벼운 금속원소 알루미늄과 자유로운 기체원소인 산소가 더 이상 조일수 없이 치밀한 하나의 전일적인 결합방식에 의해 융합된 것이 바로 맑고 굳은 청옥이다. 이렇게 더 들어내고 끼워놓을수 없이 상하좌우로 꼭 짜여진 작품이라야 강철보다 굳센 생명력을 가진 소설계의 청옥으로 될수 있다.

자연계의 청옥은 깊고 깊은 땅속에서 생겨난다. 만약 우리가 땅속 수백키로미터 깊이의 지구만을 층내부까지 파고들어갈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막대한 량의 보석이 들어있는 청보석산지를 볼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유능한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확고한 주장이다. 자연계의 청옥은 거대한 압력의 태동속에서 응축되고 자라나면서 땅속깊이에서 소리없이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 소설문단의 푸른 보석은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것일까?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독자들의 마음에 굳은 신념과 벅찬 랑만을 새겨줄 우리의 푸른 보석은 과연 어떤 힘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가?

나는 이 물음에 이끌려 스스로 손에 펜을 쥐게 되었다.

1. 주인공의 웨침과 작가의 눈빛

우리의 소설작품들에서는 언제나 주인공의 웨침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온다. 작품의 생리로 보아 주인공의 웨침에는 작품의 무게를 담보해주는 강한 힘이 들어있게 된다. 그 웨침은 독자의 마음속에서 사상적으로 뿐만아니라 감정정서적으로도 공명이 되어 힘찬 꺼울림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 웨침은 우리 독자들을 미래의 과학세계를 점령하려는 열망에 불타게 하는 힘있는 웨침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게 될 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의 주인공 광원이의 웨침은 우리 독자들에게 얼마만한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는가.

이 작품에서도 우리는 주인공 광원이의 격조높은 웨침을 자주 들을수 있다. 그는 기울어지는 진오석을 향해서도 절절하게 호소하며 최교수에게도 열렬히 자기 진심을 토로하며 나약해지는 자기 자신에게도 준렬히 웨친다.

주인공의 이 모든 웨침의 어조는 아주 높고 또 그것은 모두 옳고 정당한것들이다. 그러나 터놓고 말해서 나는 그 웨침들에 크게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그 원인에 대해 매 말마디를 따라가면서 이렇소, 저렇소하고 의견을 찍어 말할수는 없다. 다만 그 웨침들이 주는 느낌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운이 없다는것이다. 묵직한 울림통에 느껴지는 웅심깊고 색깔있는 고유한 가락음으로 안겨오지 않고 분주하고 고르롭지 못한 느낌을 준다.

연주법상 기교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데 원인이 있다. 나는 이것이 종자의 무게에서 연원된것이라고 본다. 주인공의 웨침이라 바로 종자의 웨침이 아니겠는가.

작품에서는 오늘은 비록 미지의 세계이지만 반드시 인간지성에 의하여 현실로 도래할 새로운 세계에 우리모두를 희망차게 불러주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의 웨침이 울리지 않고있다.

그렇다면 과학환상중편소설 《푸른 이삭》의 작가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있는가? 마침 나는 작품의 종자탐구경험을 서술한 작가의 논문(《과학환상문학창작》)을 통해 대답을 들을수 있었다.

《나는 과학자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과학자는 탐구생활과 사랑에서 자기 리기적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종자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종자를 들끓는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잡아쥐게 되자 나는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인물, 갈등, 사건, 줄거리, 생활세부 등 형상의 요소들을 표상할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써나갈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예상하게 되었다.

또한 플라톤 종자로부터 주제, 사상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구성형식도 찾아낼수 있게 되었으며 함양성분이 많은 바다식물을 리용하기 위한 문제 등 작품에 담은 과학환상의 범위를 예측할수 있게 되었다.》(우와 같은 책)

작가의 말은 끝났다. 그러나 마음속의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작품의 종자가 과연 과학환상소설의 진짜 종자로 될수 있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는가?

물론 작가는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에 수긍할수 없었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에는 응당 의의있는 과학환상생활의 맹아가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맹아가 짙어지지 않

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게 되었겠는가? 나는 이것이 작가의 종자탐구방식이 가져온 필수적산물이라고 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종자를 잡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것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로써 파악하기 때문에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작품내용의 기본으로 되는 동시에 형식의 기초로 되며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종자에 형상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다름아닌 생동한 생활속에서 파악된 사상적알맹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작품속에 의의있는 과학환상생활이 깊이있게 그려지려면 응당 과학환상소설의 종자가 생동하고 의의있는 과학환상생활속에서 탐구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작가는 응당 축적된 과학원리와 지식을 동원하여 과학환상생활화폭들을 부단히 눈앞에 펼쳐보면서 보다 높은 과학환상세계로 근기있게 헤엄쳐나가야 했을것이다. 그리고 그속에서 가장 의의있는 과학환상생활화폭들을 골라진 다음 해부학적으로 그 과학환상생활을 세심하게 파헤치면서 우리의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곳에 깊숙히 박혀있는 생활의 사상적인 알맹이를 예리하게 찾아냈어야 했을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오늘의 일반과학탐구생활을 취재하고 여기서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쉽게 찾아 쥐겠다고 생각된다. 이 종자에 기초하여 작가는 대번에 미래의 인물, 사건, 이야기줄거리 등 형상요소들을 표상하는 창작단계에 들어갔을것이며 또 이 종자에 기초하여 작품에 반영할 과학환상의 분야와 범위도 서둘러 선택하여 끌어들었을것이다.

과학자는 탐구생활과 사랑에서 자기 리기적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어야 한다는것은 작품이 보여주는 사상이지 종자는 아닌것 같다. 작가의 논리대로 그것이 설사 종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명백히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라고는 말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의 종자는 그가 포괄하고있는 의미와 내용과 기능에서 그 어떤 문예학적범주도 대신할수 없을만큼 뜻이 깊고 심오한것이다. 표면에 드러난 몇마디 말이나 어구를 가지고 가타부타할 그런 성질의것이 아니다. 그것은 독자의 가시선으로서는 결코 다 들여다볼수 없는것으로서 독자에게는 무색, 무취, 무미의 어떤 물질과 같이 그 본질적의미를 낱알이 투시하기 힘든것이다.

실지 창작과정에서 탐구된 종자의 본체와 색깔,

향기와 맛은 오직 그 종자를 찾아 쫓는 작가만이 알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탐구생활과 사랑에서 리기적이 아니라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종자로부터 작가가 어떤 과학환상생활을 펼칠수 있는 형상의 전모를 파악했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예상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면 작가가 어떤 과학환상생활을 낳을수 있는 진짜 종자를 골라잡았는가 골라잡지 못했는가 하는것을 독자들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작품이다. 가령 그 작품이 과학환상문학의 체모를 원만히 갖춘것이라면 종자를 옹골케 골라잡은것으로 될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와 반대되는것으로 될것이다.

일췌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이 리치를 왜 새삼스럽게 언급하게 되는가. 그것은 과학환상소설을 《푸른 이삭》의 종자가 명실공히 과학환상소설을 낳을수 있는 독특한 종자로 선택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일반현실주제 소설이 보여주는 종자라고도 말할수 없고 그저 작품의 사상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라고 서둘러 규정하였다고 생각되기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구체적인 작품형상과 형상론리를 가지고 론증하고싶다.

이 작품에서 취급하고있는 항암성바다버를 지배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이야기는 과학환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과학문제를 다루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작품에서 주인공이 이룩한 과학적 성과를 세계적인것이라고 묘사하고있는데 과학환상작품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그것이 너무나 과장된것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이 작품에서 과학환상은 심도가 없고 초점이 흐려졌다. 주인공 광원이의 항암성바다버채배 문제를 주선으로 여기에 모를 박고 환상을 깊이있게 펼쳐야 하겠는데 진오석의 바다밑땅룡기를 위한 연구과제수행문제에 지나친 폐지를 주고있다. 물론 진오석의 이 연구과제수행에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는것을 통하여 영웅적인 그의 자기 희생정신을 두차례에 걸쳐 감동적으로 보여주기는 있지만 자기의 기본연구과제수행에서가 아니라 결들인 연구과제수행에서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기본적으로 드러내보이게 한 작품의 이런 형상처리는 원만한 형상처리라고 말할수 없다. 작품의 주요형상과제를 이렇게 두 생활화폭에 고루 나누어 분배함으로써 주인공의 기본연구과제수행을 위한 과학탐구생활이 많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 또한 무게있게 안겨오지 않고 있다. 이 작품은 형상을 한곳에 립체적으로 집중시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한 과학자의 미답자료의 묶음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게 하였다.

축적된 내용물이 부족한 설익은 씨앗에서 목직 한 이삭을 그려볼수 없듯이 자기에게 고유한 생활의 즙을 담지 못한 어설픈 종자에서 독특한 형상의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없다.

앞에서 간단히 본것처럼 이 소설에 펼쳐진 환상적인 푸른 이삭들은 작품이 말하려는 사상을 특색있고 의미있게 담아낸 무게있는 형상의 이삭들로 되지 못했다.

결국 소설은 작가의 의도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주인공 광원으로 하여금 생경한 사상을 목청높이 웨치도록 하였다. 그러니 작품에서 울리는 우리 주인공의 웨침이 우리 마음속에 긴 여운을 안겨 주지 못한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과학환상소설의 사상적핵은 웅당 과학환상의 세계를 무한히 펼쳐줄수 있는 바탕에서 찾아낸것이어야 하며 또 작품에 펼쳐지는 과학환상은 작품의 사상을 충분히 부각시켜 나타낼수 있는 가장 적중한 과학환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고급한 융합은 오직 원만한 자기의 알찬 종자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우리는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종자탐구에 관한적인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과학환상을 취급한다는 수고의 보상으로 독자들로부터 너그러운 융화를 바라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은 무엇보다도 그 인간학적인 가치로 밝게 빛을 뿌려야 한다.

나는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찾는 우리 작가들의 탐구의 눈이 보다 좀 더 높았으면 한다. 소설의 외형상 체모나 갖추수 있는 일반적인 종자에 만족하여 서둘러 펜을 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자를 찾는 탐구의 눈이 보다 투시적이고 보다 예리해야 하며 중요하게는 보다 폭넓고 환상적이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 독자대중을 벅찬 투쟁과 위훈, 미리에로 부르는 우리 주인공들의 웨침의 메아리가 어디까지나 우리 작가들의 진지한 탐구의 눈빛에 크게 달려있기때문이다.

그 눈빛은 언제나 진지하게 불타야 한다.

2. 주인공과 나는 대화

담화는 매우 유익한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호상 리해를 깊이하고 견해를 일치시켜나가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작품을 읽는 과정에 나는 과학환상중편소설《푸른 이삭》의 주인공 광원과와 조용히 만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에게서 많은것을 듣고싶었다. 특히 작품의 인물성격형상에 대해 허심한 의견들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이러한 충동의 안내를 받아 주인공 광원의 숨결과 사색이 고스란히 간직되어있는 그의 함숙방으로 곧장 찾아들어갈수 있었다. 마침 그는 실험일지를 꺼내들고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그의 영민한 시선과 나의 조심스러운 눈길이 한 순간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나를 찾아온 독자동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나의 외모에 예민한 눈길을 보내던 그가 먼저 반갑게 말을 건넸다.

《예,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한데 어떻게 나를 제격 알아볼수 있었습니까?》

《다 아는수가 있지요. 하하...》 그는 활달하게 웃으며 의미깊은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자, 여기 좀 앉으십시오.》 그가 친절하게 권하는 폭신한 안락의자에 온몸을 척 내맡기고보니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들어앉았던 긴장이 순간에 풀리고 표현못할 상쾌한 기분으로 온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옆자리에 가까이 다가앉은 광원이는 온기가 철철 넘쳐나는따뜻한 손을 내 손우에 목직이 덧실으며 후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참,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왜서인지 광원동무를 꼭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웃음을 머금은 눈길들이 정답게 마주쳤다. 순간 수백년 떨어져있던 우리 마음들도 금시에 차분히 녹아붙었다.

《참, 이렇게 다감한 동무인걸 모르고. 허허, 조금전까지만해도 난 광원동무를 차갑고 랭랭한 사람으로 생각했더랬습니다. 하하...》

이 말은 갱뽕하고 날카로운 그의 얼굴에 예민한 변화를 일으켰다. 두 입귀에 힘을 주고 묵묵히 창문쪽을 주시하던 그가 이내 침묵을 깨치었다.

《우리 과학환상소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걸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내 좀 품었던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작품에서 이렇게 보였으리라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할만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격랑하는 바다에도 목숨걸고 뛰어들고 용암에 이끌거리는 위험천만한 땅속에도 용감하게 육박해 들어가고 나의 피와 육신 이상의것이라고도 볼수 있는 귀중한 과학연구자료들도 주저없이 모두 나누어주었는데도 독자들이 내 마음 가까이로 다가들지 않는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가벼운 한숨을 몰아쉬던 그가 목직한 입을 다시 꼭 다물어버렸다.

한치한치 툭아오르는 그의 흥분된 숨결이 육감적으로 안겨왔다. 한편 급한 성미를 자제하는데

습관된 웅심깊은 그의 심중세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잠시후 다시 그가 입을 열었다.

《왜 작가가 작품에서 나의 속마음을 씨원하게 할 헤쳐보여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편 독자들앞에서 얼마나 낮이 뜨겁게 달아 올랐겠는지 모릅니다. 작품에서 내가 너무 신경질적이고 매물찬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야 않지요.》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생각납니까? 우리 어머니 60뽕생일전날이 말입니다.》

《예- 연구소창립 40 뽕이기도 한 그 어머니 환갑날말이지요. 생각납니다. 그 전날저녁이 말입니다.》

《웁습니다. 나는 그때 이 방에서 번거로운 마음을 달래느라고 내가 직접 작사작곡한 기타의 선율에 담아 부르고있었지요. 만아들로서 래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것도 감감 다 잊어버리고서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뒤에는 내가 왜 것처럼 파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지 나로서도 통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때 광원의의 행동을 다시 되살려보았다.

...

합숙방에 들어선 조수가 의아해하는 광원에게 말을 꺼냈다.

《빨리 떠날 준비를 하세요. 전화가 왔는데 빨리 오시랍니다. 래일이 연구사선생의 어머니 환갑이래요.》

《영?!》광원이는 와플 놀라며 일어서서 열걸에 려서를 쳐다보았다.

《웁구만!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미쳐 몰랐을까?》

《호호... 선생이 모르는게 어디 그것 하나뿐이예요.》

《허허... 그런데 차시간은 언제요?》

《30 분후에 비행기가 떠나요. 어서 준비하세요!》

《그래?... 그럼 래일은 휴일이니 내 제껴 갔다 오겠소. 동무도 꼭 쉬오.》

《예.》 조수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광원이는 분주히 책상우를 정리하며 헤덕버렸다. 문득 탁상등밑 연구일지에 눈길이 뻗었다.

《래일모레중으로 실험자료에 기초한 새 연구안을 채택할것!》 그는 갑자기 어깨숨을 몰아쉬며 눈살을 찌프렸다.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며 못박힌 듯 움직일줄 몰랐다.

《왜 그러세요. 시간이 없잖아요.》조수의 독촉이었다.

광원이는 듣는중마는등 그대로 의자에 폭 주저앉았다. 조수가 긴 속눈썹을 까뽏거리며 다가섰다. 광원이는 두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폭 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안되겠소. 래일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소.》

《예?... 래일이야 휴식날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급한 일두 아닐텐데...》

《급하오. 급해... 제구실을 못한 과학자에게는 급하지 않은 일이란 없소.》

광원이는 불안간 웃웃을 벗어던지며 어성을 높였다.

조수는 아연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동문 곧 돌아가서 래일아침 진행할 실험준비를 해놓으시오. 당장!》

《...》 조수는 가슴이 알알해졌다. 광원의의 심정이 이해되기보다 어쩐지 그에게서 모욕당한듯한 아픈 생각이 온몸을 휩싸는것이였다.

...

장면을 더듬는 나의 귀전에 그의 목소리가 준렬하게 울렸다.

《여기서 노린 작가의 의도는 이해할만 합니다. 불타는 탐구열, 개성적특질, 괴로운 심정, 이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로 향해지는 그의 열기띤 시선을 느끼며 나는 머리를 주억거렸다.

그렇다. 작가의 무리한 의도는 보다 중요한것을 허물어버렸다. 어떤 경우에도 허물지 말아야 할 주인공의 인간성의 기초를 마구 흔들어놓았다.

주인공의 섬세한 정신세계의 색채를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할 때 그의 인간세계가 독자들로부터 본의아닌 반발과 배척을 당할수 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독자들도 조수와 마찬가지로 그를 탓하게 된다.

(쇠꼬챙이... 과학에 미친 사나이)라고.

《작품에서 작가는 나를 가지없고 잎이 없는 거칠고 곳곳한 나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즈을 빨아올리고 기운차게 자라오를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더 물어볼가요? 작품에서 표현되는 나의 지성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나에게 직접 말하기 따분해서 그런것 같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낮고 또 범박합니다.》

여러가지 실례를 들어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하나의 세부를 드는것으로 써도 충분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거 작품 중간쯤에 가서 왕문어와 푸른 상어의 싸움장면이 나오지요.》

생각난다. 왜서인지 나도 이 대목에 와서 몇번

급썩어 읽어보게 되던 기억이 난다.

...

광원이는 자기의 실험을 중지하라는 연구소의 부당한 지시에 격한 마음을 누를길 없던 나머지 즉시에 바다가로 달려나가 바다물속에 뛰어들다. 힘껏 헤엄친뒤 마음이 좀 누그러지자 바다밑 시험포전쪽으로 향한다. 그런데 시험포전은 푸른 상어놈들의 승벽싸움으로 하여 말할수 없이 험창해졌다.

《어떤놈이, 모조리 죽어버릴테다.》울분이 욱 치민 그는 도망치는 상어놈들을 따라 추적한다.

그중에서 가장 크고 포악한 상어놈의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건다. 그는 고주파복사속권총대신에 칼을 빼어들고서 그놈과 격투를 벌린다. 싸움 도중에 그는 바위에 나뿔어지게 되는데 이때 배낭식로켓트의 발동이 덜컥 멎어버린다. 상어가 단숨에 집어삼킬듯이 잡아드는 순간에 그는 진한 물감을 뿌려 위험을 모면한다.

이때 일이 될 때라 결불에 봉변을 당한 왕문어가 상어와의 싸움에 나선다. (계속하여 작품은 이렇게 서술하고있다.)

그는 바위에 붙어 배낭을 수리하며 놈들의 대결을 구경했다. (싸움장면 중략...)

팔딱하는 성미인 상어는 2 시간의 맹렬한 싸움 끝에 기진맥진하여 그만 배를 드러내놓고 죽고말았다. 왕문어는 주근주근 앉아버티는 성미를 가진 덕분에 대결에서 결국 승리자가 되었다.

왕문어는 자기보다 큰 상어를 도끼날같이 센 이발로 씹어먹기 시작했다. 광원이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음, 모든 일에서 성공하자면 팔딱거릴것이 아니라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심스럽게 들어붙어야 한다.》

광원은 싹이 꺾이운 종자 몇개를 플라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움직일줄 몰랐다.

...

《작품에서 나는 연구사업을 중지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받고서 기분이 잡친 나머지 모든것을 제쳐 내버려둔채 무작정 바다로 뛰쳐나갑니다.

강력한 육체적힘의 소모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시험포전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터질듯한 울분을 느낍니다. 이제는 더욱더 무모하게 행동적으로 나옵니다.

작품에서 이런 형상처리도 불만스럽지만 왕문어와 상어의 싸움장면 당시에 묘사된 나의 마지막 결론은 참 얼마나 단순하고 순진합니까.

소설의 매 계기마다 빈번히 나를 개방시켜보여 달라는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무게없이 처리해줍니까.

네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묘사한 이 사건뒤에 비로소 내가 얻게 되는 이런 결론이 얼마나 저조

합니까.》

그의 알팍한 눈두덩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나도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흥분된 어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연구안이 채택되기전부터 것처럼 에누리없이 시간을 따지던 내가 연구가 본격화된 오늘에와서 2 시간이나 한자리에 앉아서 싸움을 구경하면서 그래 정신적으로 이렇게 공허해야 합니까.

작가는 이렇게 한마디 말로써 표현했지만 사실 그때 나의 심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문 싸움광경이 바로 코앞에서 펼쳐졌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내 눈앞에는 이것들이 영 어려오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운 일들이 기다리는 연구실안에서는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애똥한 추억과련민의 물결이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엔 엄하고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그러자 죄스러운 감정이 가슴속 한가운데로 뻗죽이 살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또 평상시에 어머니가 늘 하시던 의미깊은 말씀으로 변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던 내 생활의 소박한 꿈으로 펼쳐지기도 하더군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모든것을 뭉청 잘라냈습니다.》

날카롭게 내려긋는 그의 손세를 따라보며 나도 생각을 이어나갔다. 결국 작가는 인간의 세계를 감동깊이 펼쳐보일 하나의 귀중한 계기를 놓쳐버리게 되었다. 결국 광원이는 즉흥적이고 천박한 인간으로 안겨오게 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 장면설정도 싱겁게 되었다. 결국 이 장면은 녹거리흥미나 돈구어주는 장면으로 작품속에 어둡게 끼여들게 되었다. 작품의 인간성격형상에 바쳐지는 작가의 심혈을 가늠해보게 하는 하나하나의 세부였다.

계속하여 여기서 나와 주인공 광원이와 나는 대화는 다음과 같다.

나; 《시간위주의 소설이 아니라 성격위주의 소설이 되야 한다는 요구는 과학환상소설의 경우 더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봅니다.

희한한 과학환상의 창조물들, 그 놀라운 성능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왕왕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라새로운 생활의 가능성들을 예고해줍니다. 그러나 작품의 흥미를 목적으로 한 사건의 지나친 도입은 생활의 진실성과 깊이를 약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고상한 예술적흥미도 약화시킬 수 있지요.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은 웅당 품의높은 인간성격형상을 통해 그 가치를 빛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수록 여기에 바쳐지는 작가의 노력이 특별히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원; 《웁습니다. 내가 체험한바이지만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에

대한 성실치 못한 창작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작가들의 심장이 뜨거워야 우리 주인공들이 깊이있고 뜨겁고 영웅적인 행동들이 자기 빛을 다 발산할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우리 과학자들이 지니고있는 풍부한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깊이있는 탐구를 요구하는 어려운 창작실천적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식으로 그들의 깊은 심중세계를 탐험가의 정신세계와 간단히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위험한 곤란을 무릅쓴 탐방가들을 탐험가들이라고 하지요.

나는 우리 시대의 용감한 탐험가들은 바로 다름아닌 우리의 열정적인 청년과학자들과고 봅니다.

참 탐험가들에게 어떤 남다른 기질이 필요되는지 여기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나; 《생각은 깊이 해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리상과 포부, 튼튼한 체력, 완강한 의지, 이런것들이라고 말할수 있겠지요.》

광원;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험주한 봉우리들을 능히 정복해낼수 있다고 쉽게 단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난 탐험가들은 레외없이 높은 리상과 비상한 의지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동시에 락천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겹쳐드는 엄혹한 고난과 시련을 자기들 특유의 고상한 랑만과 정서로 감수할줄 아는 폭이 대단히 큰 사람들입니다.

정말 남들이 몹시도 탐내할만큼 넓고 아름다운 미적세계를 간직하고있는 정신적부자들ियो. 물론 작가가 체험하는 그 세계의 빛같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거세찬 눈보라에도 매혹을 느끼고 끊임없이 뒤따르는 위험과 터질듯한 긴장에도 벅찬 매력을 느낄줄 아는 사람들이 탐험가들입니다.

하다면 그들이 날 때부터 그런 랑만적기질을 타고났는가. 아니지요. 그들은 고봉을 노리는 탐험가인 동시에 일생을 두고 정신적아름다움을 찾고 맛보는 미의 세계의 탐험가, 생활의 개척자들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그들은 더욱더 역세여지고 풍만해집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은 나를 포함한 작품의 주인공들을 높은 자각과 의무감, 의지를 지평이삼아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안간힘을 써가며 자신을 떠밀어나가는 사람들로 형상하였습니다. 어떤 땐 우리를 초보적인 인간성의 요구도 외면한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로 성의없이 묘사해주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사는 미래세계의 밝은 환경을 담고있지만 레외없이 좁무겁고 침침하게 느껴지고있습니다. 우리 과학환상소설의 주인공들의 형상이 과연 이렇게 되어야

울겠습니까?》(여기서 광원이는 한동안 사이를 두었다.)

광원; 《우리 시대는, 더우기 지금 온 나라는 높아가는 과학열로 부글부글 들끓고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시각도 소문없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갱그리 불태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과학의 절정에 자신을 내세워보며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가고있는 귀여운 꼬마과학자들도 있고 이를 악물고 <과학봉> 에로 힘차게 뚝오르고있는 과학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들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속삭임을 주고 보람을 더해주는 없어서는 안될 과학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어야 합니다.》

나; 《그러자면 우리 과학환상소설 작가들이 구태의연한 소극적인 창작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광원; 《옳습니다. 인간정신의 관망자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탐험가로서의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창작에 펼쳐나서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봉우리들이 우리 나라 곳곳에 무수히 솟아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조국의 부강에 필요한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에게는 어쩐지 이 산봉우리들이 모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용약 펼쳐나선 수많은 귀중한 마음들로 보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귀중한 산봉우리들을 그저 무심히 훑어보며 스쳐지날것이 아니라 실속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환상의 날개를 달고 거침없이 훨날아올라 성급하게 만세를 부를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새겨보면서 한치한치 깊이있게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절정에 올라가야 비록 몸이 들고 힘이 들어도 그 산이 간직한 깊숙한 보물을 모두 찾아낼수 있을겁니다.

그 마음들에서 파낸 온갖 아름다움을 우리 작가들이 풍부하게 체험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 과학자들의 새롭고 풍만한 인간세계를 의의있게 묘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많은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나누고싶었지만 시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며 정답게 그와 인사말을 나눈 나는 발걸음 가벼이 합숙문을 나섰다.

살뜰한 바다바람이 한결 가벼워진 나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시원하게 스며들었다. 더욱 커지고 더욱 밝아진 태양이 나에게 밝고밝은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정다웁게 안겨왔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우에서 살며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따사로운 해빛이 밝게 비치는 강산에서 살며 아름답게

변해가고있다. 이 땅의 오늘이 못견디게 정다왔다.

그러니 더욱더 번영할 이 땅의 래일은 또 얼마나 밝을것인가. 나는 오늘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더욱더 역세여지고 더욱더 풍만해질 다감하고 정다운 수많은 우리 광원이들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뽕뽕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려볼수 없는 벽찬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래일이다.

미래의 힘찬 파도가 내 가슴이 벽차오르도록 밀려오고 또 밀려왔다. 이 파도는 주인공의 준렬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싣고 밀려와서는 나의 흥벽을 세차게 계속계속 두드려댄다.

《탐구자의 자새와 창작적열정, 열정...》

3. 푸른 빛에 대한 생각

청옥의 푸른 빛은 웅심깊은 바탕을 가지고있다.

깊이있게 물든 진한 푸른 빛을 그려보느라던 자연히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속에 담겨지는 과학 환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의 과학환상은 소설의 흥미나 살리고 멋이나 돌구는 그런 외견상의 치레거리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과학환상은 철저히 청소년들의 푸른꿈과 리상을 남다르게 키워줄 깊이와 순도를 가진 무게있고 깊이있는 푸른 빛을 띠여야 한다. 그러면 청옥은 어떻게 되어 아름다운 푸른 빛을 고이 간직하고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 과학자들은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었다. 그것은 이 보석속에 철(Fe)과 티탄(Ti)이 일정하게 들어있기때문이다.

철과 티탄! 이 말이 나온김에 나는 여담삼아 이 금속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우연한 일치에 의해 청옥속에 나란히 들어가있기는 하나 이것들은 서로 야릇한 관계에 놓여있다. 오랜력사를 자랑하는 철은 량적으로나 쓰이는 분야의 범위로 보나 그 무엇도 감히 견줄수 없는 금속으로서 지금도 금속의 《왕》으로 당당하게 불리우는 세상에 제일 잘 알려진 금속이다.

그럼 티탄은? 이 티탄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귀에 설어한다. 웅당한 일이다. 그것은 티탄이 100 여년전에 와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고 20 세기전반기까지 크게 그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밖에서 존재해왔기때문이다.

그러나 티탄의 미래의 쓸모는 철과 같은 금속은 비할바도 못될만큼 대단하다. 강철은 비행기가 되어 하늘을 날수 없고 우주나 바다에도 진출할수 없다. 그러나 티탄은 알루미늄도 넘어설수 없는 소리장벽을 뚫고 초음속의 몇곱이나 되

는 요란한 속도로 하늘을 썰수 있고 세상 엄혹한 우주여행에도 모든 금속들을 대신하여 유일하게 진출하여 나설수 있다. 또 소금이나 엄청난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티탄만이 앞날의 바다속세계와 땅속세계의 유일한 수송수단, 생산수단, 연구수단으로 될수 있다. 티탄의 응용분야는 실로 방대하고 끝이 없을 정도이며 또 그 자원도 지구와 다른 가까운 행성들에 무진장하다. 이제 가까운 앞날에 티탄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금속으로 되게 될것이며 그때가서 티탄은 금속의 종신 《왕》 행세를 하는 철을 밀어내고 금속의 《왕자》에 당당히 올라앉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에는 과연 어떤 과학환상이 담겨져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이 자기의 특색과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자면 어떤 과학환상분야를 취급하든지간에 철저히 이 티탄과 같이 과학적으로 근거있으면서도 환상적으로 의의가 큰 과학환상을 담고있어야 한다. 즉 허공중에 뜬 환상이 아니라 든든한 자기의 발판을 가진 나래치는 과학 환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 발판으로 될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과학환상소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쉬이 대답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최신과학의 원리와 지식 그리고 대답하고 기발한 새로운 착상과 가설이다.

옳다. 우리는 철저히 이 위력한 발판들을 토대로 하여 과학환상을 그려야 하며 이 발판들이 가지고있는 환상적됨성을 최대한 리용하여 작품속에 보다 중요한 발판을 작가자신이 찾아쥐고 구현하게 되는 대답하고 기발한 착상과 가설이다. 과학원리에 모순되지 않는 가설다운 가설은 작품의 환상에 역센 나래를 달아줄수 있으며 또 앞으로 공인될 과학원리로 새롭게 등록될지도 모를 이러한 가설만이 독자들의 탐구력과 상상력을 크게 계발시켜줄수 있다. 우리는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언제나 이 힘있는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명활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이 요구는 누구에게나 아주 명백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이것을 과학환상작품속에 원만히 구현한다는것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편향들이 나타나고있다. 어떤 과학환상소설인 경우에는 손쉬운 방법으로 수준이 낮은 과학환상을 그리고있으며 또 어떤 경우의 과학환상소설은 환상의 높이만을 쳐다보던 나머지 공인된 과학원리를 심한 주관으로 눌러버리는 편향도 발로시키고있다.

나는 이 첫번째 경우의 편향을 과학환상중편소설 《푸른 이삭》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미래의 티탄은 하늘이나 바다나 땅속을 무한정

파고들수 있으며 무한정 높이높이 날아오를수 있다. 이 사랑스러운 티탄이 갈수 있는 미래에로의 길은 여러갈래이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지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환상세계에로의 지향이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환상의 매력은 우선 환상의 높이에 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나에게 그늘을 던져주었다.

이 소설은 각종 암을 다 척척 고치고 예방할수 있는 항암성분을 가진 항암성바다버를 재배해내는 연구과정을 취급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연구완성한 이 재배연구성과를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온통 뿜어번지게 한 커다란 연구업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그런데 다름아닌 이 큰 연구업적이 나로 하여금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다.

남이 다 연구하여 만들어낸 바다벼종자를 가지고 미래의 그 발전된 과학연구조건하에서 그것을 다만 대량재배할수 있게 해놓는것이 어떻게 되여 세계의 찬양을 다 모을수 있는 업적으로 되는가?

이 재배연구과제는 지금의 현대과학도 얼마든지 실현시킬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이다. 주인공이 내세웠던 중요연구과제들인 바다밀 땅을 고르는 문제, 협착물제거문제, 바다동물의 피해제거문제, 비료시비문제 및 원천확보문제 등에는 현재로서도 부가능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 다만 그 실현방법과 효율만이 문제될 따름이다.

나는 이 소설에서 여러가지 추세자료들을 수집하여 작품의 갈피갈피에 수많은 끼워놓은 작가의 수고는 볼수 있었지만 대담하고 기발한 과학원리와 착상을 의의있게 끌어들여 작품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환상을 찾아 펼치기 위해 노력한 작가의 혁신적인 탐구열정은 크게 느낄수 없었다. 나는 이런 열정의 부족이 평면적이고 상식적인 환상의 라열을 가져왔으며 그 라열속에서 작품의 과학환상이 자기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과학환상소설에서 환상의 높이는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과학환상에 펼쳐지는 환상의 실용적가치 또한 아주 중요하다. 과학환상은 높아야 할뿐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가치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과학환상증편소설 《τ-1 촉매의 비밀》은 이런 측면에서 일련의 문제점들을 안고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τ-1 촉매를 리용하여 물로부터 전망성있는 연료인 수소를 대량 손쉽게 얻어내는 연구과정을 취급한 소설이다.

문제점은 우선 주인공 성철이가 연구해낸 촉매물질자체에 내포되어있다. 그가 연구해낸 촉매물질은 밀가루처럼 보드라운 분말인데 지구상의 유기물촉매와 무기물촉매에서 물에 작용하는 성분들만 끌라서 합성해낸 합성촉매에 인화제를 적당

히 섞어서 만든것이다.

이 촉매를 물에 조금 풀어넣으면 먼저 그속에 들어가있는 인화제가 분해되면서 그때 나오는 굉장한 열에너기에 의하여 물의 온도가 그 해리 온도인 3000℃이상까지 쑥 올라가게 된다. 이때 합성촉매의 역할에 의해 그 해리반응이 순간에 진행되면서 다량의 액체수소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 이런 분말상태의 촉매만 가지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액체화된 수소연료를 마음껏 얻을수 있는것이다. 생각만 해봐도 정말 가슴 흐뭇해지는 환상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환상일 따름이지 원만한 과학환상으로는 될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 촉매물질자체의 실효성과 관련된다. 이런 정도의 높은 온도조건에서는 이런 복잡한 촉매가 아니라 단순한 촉매인 백금을 가지고도 순간에 다량의 수소를 손쉽게 얻을수 있을것이다. 이 백금의 촉매적역할은 이미 1822년에 발견되었다.

지금 수소연료생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생산능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수소를 값죽게 생산해내는 방도를 밝히는 문제이다. 소설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근본문제에는 전혀 낮을 돌리지 못했다. 이 연구안대로 생산을 진행한다면 굉장한 량의 에너지가 소비되게 될것이다.

생각해보라! 세상에서 녹음점이 제일 높은 합금인 탕그스텐도 3400℃에 채 이르지 못하고 녹아버리는데 방대하게 소모되는 수소를 얻기 위해 그 많은 물을 이 정도 온도에 이를 때까지 가열해내자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는가? 더구나 물의 비열(물질 1Kg 의 온도를 1℃ 올리는데 드는 에너지)이 크다는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들게 될 에너지량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량이다. 인화제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같이 공짜로 얻게 되는 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 수소연료를 얻기 위해서 그만한 에너지적가치를 가지는 연료를 소비해야 하는 이 연구는 과학상의 현실적요구를 완전히 외면한 실용성없는 연구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무연탄가스화의 방법으로 수소를 값죽게 대량생산하여 우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방대하게 요구되는 수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앞으로 석탄이 다 고갈된다고 해도 여러 측면에서 물로부터 수소를 직접 얻어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결코 이렇게 값비싸게 수소를 얻게 되지는 않을것이다. 거기에는 발전소의 핵반응로에서 필요없이 나가는 방사선의 에너지를 리용하는 방법도 있고 800℃ 이하의 온도조건하에서 간단한 촉매를 써서 물로

부터 수소를 직접 얻어내기 위한 연구방법들도 있다. 아마 미래의 그 시대에 가면 보다 혁신적인 생산방법들이 새롭게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학환상은 높을수록 좋다. 하지만 우리의 과학환상은 환상 그 자체를 위한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반드시 성취되게 될 휘황한 미래의 세계에 이끌려주어 그들을 과학탐구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내려쳐야 한다. 그것은 우리것을 잘 알게 하며 우리것을 우리 식으로 더욱 높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환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땅우에서도 능히 손쉽게 얻을수 있는 풍부한 수소연료를 얻기 위해서 멀고먼 목적에 가서 액체나 고체 상태로 쌓여 있다는 수소를 날라오려 막대한 재부를 공간에 뿌려가는식의 타산없는 주관적인 환상을 작품속에 펼쳐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상에서 본 이러저러한 편향들은 다 작가들이 작품의 과학환상이 가지게 되는 생리를 무시한데로부터 생겨난 편향들이다.

우리는 응당 우리의 과학환상속에 높고높은 하늘도 담고 깊고깊은 바다도 담아야 한다. 환상의 푸른 빛을 가득 비껴담고 과학의 푸른 물을 함뱍 머금은 과학환상만이 자기의 매력과 특색을 한껏 살린 가치있는 과학환상으로 될수 있다.

이러한 과학환상탐구의 길은 결코 험한 길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창작가들속에서는 과학환상 작품창작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향성이 있는것 같다.

이런 창작태도를 가지고 창작해낸 작품을 예리한 독자대중은 결코 뜨겁게 대하지 않을것이다. 흐리터분한 하늘은 결코 자기의 청청한 본색을 살려내지 못한다. 맑고맑은 하늘만이 푸르른 희망의 빛갈을 선명하게 담아낼수 있다.

우리 식의 가치있는 과학환상은 결코 쉽게 펼쳐지지 않는다. 우리 독자들이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지 않는 손색없는 과학환상작품을 기어이 창작해내겠다는 높은 창작적열정만이 작품속에 가치있는 우리 식의 푸른 빛을 선명하게 담아낼수 있다.

자연계의 청옥은 땅속에서 여기에 우연히 섞여 들게 된 티탄이나 철에 의해 비로소 푸른 빛을 간직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독자들의 푸른 꿈과 리상을 띄워주고 자래워줄 우리 과학환상소설의 푸른 빛은 창작가의 심장속에 불타오르는 높은 창작적열정이 가져다주는 주동적인 산물이다. 우리 창작가들의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

의 과학환상소설은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과학환상소설의 푸른 빛은 바로 우리 창작가들의 높은 요구성과 열정에서 진하게 우리나라에게 된다고 말하고싶다.

나는 오늘 독자의 자그마한 마치를 들고 나서서는 매우 심중하고 조심스럽게 작품의 일부 측면들을 두드려보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품에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는 부스러기들이 생겨났다. 여기에는 잘잘한것도 많았지만 큼직한 조각들도 있었다.

이자리에서 그 작은 조각들을 다 일일이 새겨 볼수는 없고 해서 나는 큰 조각들만을 따로 골라 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조각들은 모두 창작상 기교나 솜씨에서 생겨난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작가의 높은 요구성과 창작적열정이 부족한데서 생겨난것들이었다.

우리의 푸른 보석은 겉모양을 곱게 단장시켜주는 기교에서 생겨난것이 아니라 작가의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서 생겨난다.

그러면 무엇이 작가의 마음속에 이런 보석을 자래울 힘을 안겨주는가?

그것은 작가의 심장의 뜨거움이다. 다시말하여 당의 호소에 열렬히 불타오르는 창작적열정이다.

아직까지 우리 과학환상소설은 더 많은 명작을 창작하여 명작풍년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 당의 부름에 응당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있는 수많은 우리 청년독자들에게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의 마치를 힘있게 추켜들어야 한다. 당이 바라는 명작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높은 각오와 지향,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의지로 억척같이 다져진 마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힘있게 추켜들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견인불발의 의지와 열정을 안고 마음속 깊은곳을 광광 기운차게 두드려야 한다.

이런 힘찬 두드림에 의해 다져지고 또 다져진 작품만이, 이런 힘찬 두드림에 의해 검증되고 또 검증된 작품만이 천년이 가도 부스러지지 않고 만년이 가도 빛을 잃지 않는 문학계의 푸른 보석, 우리 시대의 특색있는 명작으로 불리워지게 될것이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열정에 있다.

동집게

(중국) 문창남

사람이 재미있게 살자는데 해와 달이 바뀔수록 박꽃같은 얼굴은 왜 주름져 시들고 날아갈듯 팽팽한 탄력을 채워둔 몸은 왜 병들어 쓰러지곤하는지...

전설과 의술에서 선도복숭아요 장생불로초요 하고 일컫더라만 다 거짓말같다. 아마도 변할줄 모르는 복숭아염통과 늙을줄 모르는 마음을 두고 이런 명약이름을 지었으리라. 약은 약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안해는 나보다 열한살 어리건만 더 젊은빛으로 푸르게 살아보려는지 나더러 연변출장 가면 동집게를 꼭 사오라 부탁하였다.

길을 걸어도 수염이 꺼칠한 나는 슬며시 어린 안해와 떨어져 걸으며 괜한 신경을 쓰곤했는데 또 더 젊어보이려고?! 나는 질투심까지 났다.

《젊은 안해와 같이 살면 나이든분도 함께 젊어 진대요... 호호.》

안해는 내 심중의 저울금을 번바로 꺾어버본듯이 생긋거린다. 본시 큼직한 쌍겹눈에 너성치고 술진 눈섭을 가진 그녀는 눈섭을 버들잎이나 반달처럼 곱게 다듬자는 심사였다.

세월의 풍상고초속에 빼앗긴 나의 청춘을 자신의 예쁜 얼굴에서 찾으란말인가. 나이보다 그 마음이 더 천진해보이건만 《청춘을 찾아야 해요, 찾을 수 있어요...》하고 정색해서 말할적이면 또 어른스러워보인다. 눈길에서마저 나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자는 그 심중의 고임돌은 어디서 모아왔으며 어떻게 받쳐올리고있는가. 짙은 향수와 연지곤지로 나를 현혹시킬대신 얼굴의 눈섭이라도 다듬어보려는 그 심정... 내 젊음의 쇠퇴를 고운 눈섭으로 밀막느니보다 봄빛어린 청춘의 눈정기를 한시라도 나의 단풍든 눈귀에 부어주고싶어서 이리라.

동집게-이런걸 사내가 어떻게 산담?! 연길잡화매대들을 슬금슬금 돌던 나의 눈에 마침 그것이 띄었다.

입떼기 난감해서 담배꽁초만 태우다가 《연변아 매》더러 《얼른 하나 주세요.》하자 그 할머니는 눈에 돋보기를 걸고 많은 사람앞에 《작은게 좋습네.》하며 동집게 이가 잘 물리는가, 탄성이 어떤가, 녹이 없는가 헤아리듯 자세히도 골라주었다.

이번에사 마음에 들겠지... 나는 빛이든 항상 판매원이 주는대로 받곤하여 물건을 살줄 모른다고 안해에게 얼마나 코침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장거리나 상점을 가는 권리를 빼앗기고 그만큼 책보는 시간을 더 얻었다 쳐도 이긴셈이다.

타향에서 여러날 묵은 나의 조급한 심정을 레루짬을 지날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고르로운 소리를 뒤로 밀어제끼며 은근한 그리움의 풍선들을 차창밖으로 뚱뚱 띄어올렸다. 안해의 눈섭이 어떻게 고와지겠는지, 동집게, 동집게... 비몽사몽간에 렬차는 왔노라 기적소리를 울리며 길림역에 들어섰다.

안해의 눈보다 입이 먼저 새물새물 웃는 모습을 그리며 아빠트층계를 오르던 나는 제 귀를 의심했다. 내 발자국소리에 뒤미처 안해의 문여는 소리가 똑똑 들리곤했는데 왜 이다지 조용할가...

문을 여는 순간에 방안에 찬바람이 뻥 도는것 같았다. 행뎡그렇 빈집이다.

《?!》

이웃집문을 두드리니 한쪽 《따냥》이 놀랜듯한 눈길로 어서 병원에 가보라 하였다.

자전거방울을 울리며 날다싶이 찾아가 병원복도에 숨가빠 들어서니 간호원이 앞을 막았다.

《조용하세요. 안에 간호하는 사람이 있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병세가 어떻습니까?!》

《호전기예요. 급성리질로 심한 탈수증과 현훈증이 왔지요. 앞으론 쉼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해요.》

간호원의 마지막 말은 명령조였다.

나의 귀가엔 언젠가 출장갔다오니 목에 열쇠를 걸고 놀던 딸애가 달려와 안기며 《아버지, 어디까지마. 아버지만 없으면 우린 늘 맛없는거 먹어...》하던 애원섞인 투정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내가 날자를 늦어오니 밤해놓고 기다리다가 늘 선밥을 먹었으리라.

내때문에 병이 난듯 입원실 문가에 죄송스레 섰노라니 《엄마, 엄마...》 애절히 부르는 어린것의 지친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가, 울지마... 엄마 일없다...》

안해의 신음에 가까우나 생의 불붙는 욕망이 어린 음성이다.

《깨였군요!》

《아! 뻘소, 뻘소!》

내가 사업하는 단위의 책임자와 동지들의 나지막하나 기쁨에 찬 환성이다.

《춘희 어머니, 문선생에게 빨리 오라 전보칠까요?》

부서의 젊은 녀동무가 안타까이 묻는 말이다.

《전보?... 치지 마세요, 그인 바깥일이 바쁘실텐데... 얼마나 놀라시겠나요...》

안해의 간곡한 만류다.

그담엔 서로 무슨 귀속말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이윽하여 문틈으로 말이 또 새어나왔다.

《애기엄마가 이렇게 약해서 어째요. 어서 보약을 좀 쓰셔야지요.》

《전... 일없어요. 춘희 아버지도 여태껏 보약 한번 옳게 못써봤어요... 만이가 돼서 그런지, 별긴 벌어도... 이젠 닝겔주사를 더 맞지 않겠어요. 전 림시공이길래 약값을 감당 못해요.》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왔군요!...》

몸을 반쯤 일으키고 애써 웃는 안해의 얼굴! 그 너머 창문턱에 주련이 놓인 빈 닝겔병꼭지들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안해의 머리우에 솟은 성모마리아 모자총처럼 내 눈에 환각을 일

으켰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가슴속으로부터 피워올리는 그 웃음꽃은 《저승갔다 님이 그리워 돌아왔어요.》하고 속삭이는듯했다.

나는 안해의 피어린 진정과 백합같이 창백하던 그 웃음을 잊을수 없다.

모진 탈수로 쓰러지면서도 집떠난 남편의 사업을 먼저 걱정하며 병마에 시달린 여원 몸에 수혈이라도 해넣을 지경이지만 남편의 몸을 더 생각하는 그 지성! 백합꽃같은 창백한 웃음으로라도 남편을 젊어지게 하려는 마지막 힘! 이런 진정으로 이 나라 녀성들 가슴속 희망의 언덕우에 세우려는것은 어찌 남편의 위치뿐이라! 수수한 촌아낙네의 심중에도 남편들을 사회에 떳떳이 내세워 중화민족의 진흥을 촉구하려는 신념의 탑이 솟아 있다!

아, 내 어찌 통닭 한마리라도 살아오지 못하고 동집계만 들고왔을가... 실박하고 혈기왕성하게 보신시킬 대신 왜 동집계로 가날픈 안해 얼굴의 눈섭만 아프게 치장해주려 했을가. 애로를 말하지 않는다고 몰라주면 뭇말인가. 남편의 몸과 사업을 자신의 생명우에 놓고 모질게 아픈 순간에도 오히려 웃음으로 남편을 위로하려는 그 가특한 충성에 비해 나는 너무도 미련하였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를 장마당에 보냈는데 또 물건을 잘못 샀구나... 배우지 못했다고 꾸중받을 사람은 촌아낙네가 아니라 대학을 나온 내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지금껏 숨겨놓은 동집계를 만지고 또 눌러본다. 누를수록 내 자책의 마음을 꼭꼭 아프게 집어내는것 같다. 한대 두대... 덧난 눈섭보다 잡초같은 내 마음의 풀을 먼저 매버리고 안해가 내 가슴에 심어준 애절한 희망의 꽃을 뜨거운 시와 노래로 가꿔가리라.

아, 동집계- 안해의 몸이 튼튼히 추서기전엔 내놓지 않으리라.